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20세기 초반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 수용 과정

- 언론 매체의 공기어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이 윤 원

20세기 초반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 수용 과정

- 언론 매체의 공기어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허 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이 윤 원

이윤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고 태 우

부위원장 허 수

위 원 노 관 범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근대 ‘혁명’ 개념이 수용되는 과정과 함께, 그 과정에 ‘보호국’ 및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는 양상을 언론 매체의 공기어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사상과 문화 방면에서 발화되었던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용례들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 지식인들이 발화한 ‘혁명’ 중에서는 ‘사상계혁명’이나 ‘문단의 혁명’처럼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혁명’의 의미나 용례와는 조금 다른 사례들이 발견된다. 20세기 초반 한국의 ‘혁명’ 개념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용례들을 ‘혁명’ 개념의 보수화나 언어적 수사로 이해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해에서 더 나아가서, 비폭력적·비정치적 ‘혁명’의 용례들이 한국의 ‘혁명’ 개념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 사회적 맥락을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의 언론 매체 자료에서 등장하는 ‘혁명’의 문맥들을 공기어 연결망으로 구현해보면,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혁명’이 발화되었던 맥락은 크게 ‘프랑스’ 관련 맥락, ‘思想’ 관련 맥락, ‘文壇’·‘문학’ 관련 맥락, ‘산업’ 관련 맥락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기어 연결망에서의 특징과 ‘혁명’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1906~1910년과 1914~1918년의 사이에 ‘혁명’이 논의되던 구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1914~1918년의 연결망에서는 1906~1910년까지 존재했던 ‘프랑스’와 ‘思想’ 중심의 구도에 더해 ‘文壇’과 관련된 논의와 ‘산업’과 관련된 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1920~1924년의 연결망에서도 계속 관찰되었다.

이때, '프랑스'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정치·사회적 논의 맥락의 시기별 변화상은 서구 근대 '혁명' 개념의 도입과 사회주의적 '혁명' 용법의 정착 과정을 잘 보여준다. 1906~1910년에 근대 '혁명' 개념은 '프랑스혁명'이라는 용례를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프랑스혁명'은 한국이 문명부강을 달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던 '입헌', '공화', '민권', '자유' 등의 단어들과 함께 이해되었다. 1914~1918년부터는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함께 '산업혁명'이 사회문제 및 노동문제의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발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1920년대 전반부터는 러시아혁명이 프랑스혁명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사회혁명(경제혁명)'과 '정치혁명'을 구분하고 두 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산업혁명'을 인식하는 사회주의적인 '혁명'의 용법이 정착되었다.

한편, '思想'과 '文壇'·'문학'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사상·문화적 논의 맥락은 (반)식민지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실천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었다. 1900년대 후반에는 사상계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혁명' 개념에 반영되어 '혁명'이 사상·문화적 용례로도 발화되기 시작했다면, 1910년대~1920년대 전반에는 이러한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논의 맥락이 문학과 사상 방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914~1918년에는 문단과 문학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하는 논의가 '혁명' 개념의 사용에도 반영되어 '문단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1920년대 전반에는 중국 문학혁명론의 본격적인 수용과 소개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에도 '사상계혁명'과 '사상혁명'이라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문단의 혁명’이나 ‘문학혁명’, ‘사상계혁명’과 ‘사상혁명’은 정치적 저항이나 폭력과 같은 전형적인 ‘혁명’의 의미에서는 거리가 멀다. 또한, ‘산업혁명’, ‘사회혁명’, ‘정치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사회주의적 용법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상과 문학 방면에서 발화된 ‘혁명’의 맥락들은 20세기 초반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에서 계속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해왔다. 또한, 이러한 ‘혁명’의 용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혁명’ 개념이 수용되고 정착해가는 과정에 ‘보호국’ 및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용례와 의미들을 언어적 수사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반)식민지라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요어 : 혁명, 혁명 개념, 번역, 언론 매체, 20세기 초반, 공기어 연결망

학 번 : 2019-28126

목 차

머리말 ····· 1

一. ‘혁명’ 개념의 사용 양상과 시기 구분 ····· 9
1. 분석 대상 자료 현황과 ‘혁명’의 출현 빈도 ····· 9
2. 공기어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과 시기 구분 ····· 22

二. 근대 ‘혁명’ 개념의 수용과 정치·사회적 용례 ·· 41
1. 1900년대 후반 프랑스혁명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도입 ····· 41
2. 1910년대~1920년대 전반 사회주의적 용법의 정착 ··· 52

三. (반)식민지 상황의 반영과 사상·문화적 용례 ·· 67
1. 1900년대 후반 사상계의 변혁 요구와 ‘혁명’의 사용 범위 확장 ····· 67
2. 1910년대~1920년대 전반 비폭력적·비정치적 ‘혁명’ 논의의 지속 ····· 77

맺음말 ····· 90

참고문헌 ····· 93
부록 ····· 100
Abstract ····· 105

표 목 차

[표 1] 분석 대상 자료 현황 ····· 14
[표 2] 1906~1910년 '혁명'의 연도별 빈도(단위 : 회) 및 전체 데이터양(단위 : 음절) ····· 16
[표 3] 1914~1918년, 1920~1924년 '혁명'의 연도별 빈도(단위 : 회) 및 전체 데이터양(단위 : 음절) ····· 16
[표 4] 매체별·시기별 '혁명'의 상대빈도 평균(단위 : 회) ·· 19
[표 5] 단일 기사 내 '혁명' 출현 빈도의 매체별·시기별 평균(단위 : 회) ····· 20
[표 6] 공기어 연결망 산출 기준 ····· 26
[표 7] ≪동아일보≫와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 구성 단어와 비율 ····· 35
[표 8] 시기별 공기어 연결망의 공통 공기어와 유지 비율 39

그 림 목 차

[그림 1] '혁명'의 연도별 상대빈도(단위 : 회) ····· 17
[그림 2]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 30
[그림 3]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 31
[그림 4]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32
[그림 5]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 34
[그림 6]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 36
[그림 7]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 37

[그림 8]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 43
[그림 9]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 44
[그림 10]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 44
[그림 11]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중국' 관련 커뮤니티 ····· 50
[그림 12]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부분 확대도 - '산업'과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 53
[그림 13]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 '산업'과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 61
[그림 14]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 61
[그림 15]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 68
[그림 16]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 69
[그림 17]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思想'과 '종교' 관련 커뮤니티 ····· 71
[그림 18]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부분 확대도 - '文壇' 관련 커뮤니티 ····· 78
[그림 19]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 '문학' 관련 커뮤니티 ····· 78
[그림 20]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 82
[그림 21]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 84
[그림 22]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 85
[그림 23]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 85

머리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개항과 식민지화를 비롯한 정치적 격변과 함께 서구 근대 개념들의 전파와 확산으로 인해 언어 질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1] 개항 이후 한국 지식인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고 사회 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서구 근대적 국제질서와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개념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2] 새롭게 전파된 개념들은 기존에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개념들과 충돌하면서 언어 질서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개념들은 또한 한국인들이 세계정세와 자국의 현실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질서를 구상하게 해주는 토대로도 작동했다.[3]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개념사 연구가 시작된 이후, 한국의 근대 경험을 밝히려는 차원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언어 질서 변화와 근대 개념의 형성 과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었다. 한국에서 서구 근대 개념이 주로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수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중국과 일본과는 또 다른 경로의 근대 경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다.[4] 특히 서구 개념의 번역과 수용 과정에서 식민지 근대의 특성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근대 한국이 처한 주변부적 특성을 개념사에서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는 한국 근대 개념사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5]

---

1) 허 수, 2012 <한국 개념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와 현실≫ 86; 박명규, 2014 ≪국민 · 인민 ·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38-44쪽.
2) 양일모, 2011 <한국 개념사 연구의 모색과 논점> ≪개념과 소통≫ 8, 21-22쪽.
3)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편, 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하영선 외,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하영선·손열 외, 2012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창비; 이경구 외, 2012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편, 2013 ≪두 시점의 개념사 - 현지성과 동시성으로 보는 동아시아 근대≫, 푸른역사; 박명규, 2014 앞 책; 노관범, 2016 ≪기억의 역전 -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 소명출판 등 참조.
4) 양일모, 2011 앞 논문, 18-33쪽.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한국 사회에서 서구 근대 개념이 수용되고 정착하는 과정과 함께, 그 과정에 '보호국' 및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는 양상을 20세기 초반의 '혁명'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혁명'은 개항 이전에는 '易姓革命'이나 '湯武革命' 등의 용례로 한정적으로 사용되다가, 개항 이후에 'revolution'의 번역어로 활용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개념이다.[6] 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지식인의 글에서 '혁명' 개념이 차지하는 위상이다. 1900년대 후반부터 언론 매체 속에서 본격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한[7] '혁명'은 한국인들이 서구 근대 문명의 본질로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을 인식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근대 제국주의 질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변혁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8]

---

5) 윤해동, 2010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 박명규 · 박찬승의 개념사연구> ≪개념과 소통≫ 6, 96-98쪽; 양일모, 2011 앞 논문, 18-28쪽; 허 수, 2012 앞 논문, 367-369쪽; 나인호, 2014 <'한국개념사총서'의 이론적 감수성> ≪개념과 소통≫ 13, 102-107쪽; 송인재, 2019 <한국 개념사의 이론적 탐색에 대한 고찰과 전망> ≪한국학연구≫ 70, 84-88쪽.

6) 동아시아에서 'revolution'이 '혁명'으로 번역된 과정에 대해서는 진관타오·류칭펑 저(양일모 외 역), 2010 ≪중국 근현대사를 새로 쓰는 관념사란 무엇인가 -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453-509쪽; 양일모, 2010 <번역과 개념으로 본 중국의 근대성 - '유신'과 '혁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3; 이혜경, 2015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청의보』·『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 ≪인문논총≫ 72(2) 참조.

7) ≪황성신문≫의 일반기사와 논설 전체에서 검색해보면, '혁명'이 1905년에는 54회 등장하다가 1906년에는 172회, 1907년에는 162회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한매일신보≫도 1905년에는 13회 등장하다가 1906년에는 74회, 1907년에는 83회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재일유학생단체의 잡지인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는 1906년 이후에 발간되어 앞 시기와의 비교는 불가하지만, 같은 시기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와 비교했을 때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대부분의 연도에 걸쳐 비교적 고른 양상으로 '혁명'이 자주 발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1900년대 후반 한국의 언론매체에서는 프랑스혁명과 1905년 러시아혁명, 중국의 혁명적 정세를 주로 근대적 헌정 제도로의 변화를 향한 관심에서 인식하고 소개했다[김현주, 2017 <1907년 이후, ≪제국신문≫ 외보란의 담론 구성 방식> ≪현대문학의 연구≫ 63, 309-317쪽; 노관범, 2016 앞 책, 40쪽; 블라디미르 티흐노프, 2016 <1905~1907년의 러시아혁명을 바라본 조선의 시각: 러시아혁명에 관한 조선 언론매체의 논의를 중심으로> ≪1905년 러시아혁명과 동아시아 3국의 반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72-294쪽 참조].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한국 지식인들은

그동안 운동사·사상사 연구에서 '혁명' 개념은 주로 당시 지식인들이 같은 시기에 발발했던 국외의 혁명 사건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어떠한 혁명론을 지침으로 삼고 구현하고자 했는지를 분석하면서 함께 다루어졌다. 이때 20세기 초반, 특히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발생한 혁명의 여파와 맞물려서 한국 사회에 다양한 사조의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고 혁명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9] 20세기 초반의 '혁명' 개념은 당시에 혁명으로 명명되었던 사건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혁명론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분파 및

1917년 러시아혁명과 중국의 신문화운동 및 국민혁명을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사회의 근본적 변혁과 피압박 민족 해방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기도 했다[권보드래, 2015 <1910년대의 '혁명' -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5, 73-75쪽; 이만영, 2018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 - 1910~1920년대 초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28-134쪽; 최은혜, 2021 <민족과 혁명 :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77, 346-350쪽; 이기훈, 2017 <1920년대 ≪동아일보≫의 중국 인식 - 계몽과 혁명,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시각의 부침과 교차> ≪東方學志≫ 178, 62쪽 참조]. 이외에도, 20세기 초반 전체에 걸쳐 '혁명'은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을 전망하는 키워드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노관범, 2009 <『韓國痛史』의 時代思想 - 自强, 人道, 革命의 삼중주> ≪韓國思想史學≫ 33, 341-347쪽; 노관범, 2016 앞 책, 343-345쪽; 노관범, 2021 ≪백암 박은식 평전≫, 이조, 227-231, 286-291쪽 참조].

9)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만 한정하지 않고 아나키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회주의 사상은 1900년대 후반에 이미 한국 사회에 수용되고 있었다[이호룡, 2001, ≪한국의 아나키즘 - 사상편≫, 지식산업사, 86-87쪽; 양진오, 2013 <신채호 문학에서의 혁명 개념 연구> ≪국어교육연구≫ 52, 426-428쪽].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사회주의 세력의 분화, 1923년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혁명론 논쟁과 관련해서는 이호룡, 2001, 앞 책;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이현주, 2003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1919~1923≫, 일조각;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 - 서울파 사회주의그룹의 노선과 활동≫, 선인; 박종린, 2007,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硏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류시현, 2010 <1920년대 전반기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소개 및 수용> ≪역사문제연구≫ 52; 박양신, 2012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 - 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양진오, 2013 앞 논문; 윤덕영, 2019, <1920년대 전반 조선물산장려운동 주도세력의 사회운동론과 서구 사회주의 사상과의 비교 - '국내상해파'와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87; 최은혜, 2021 앞 논문 등 참조.

개별 지식인의 혁명론이나 특정한 혁명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서 '혁명' 개념이 수용되고 발화되었던 맥락 자체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 한국 지식인들이 발화한 '혁명'의 문맥 중에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혁명'의 의미나 용례와는 조금 다른 사례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코젤렉에 의하면, 유럽에서 '혁명'의 의미는 18세기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천체의 순환이나 회귀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나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정당화하는 진보적 미래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는 '혁명'을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으로 분화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혁명을 초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도 점차 상용되었다.[10)]

정치나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 개념이나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구분하는 용법은 20세기 초반 한국 지식인들의 글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상계혁명'이나 '문단의 혁명'처럼, 서구에서 주로 사용된 '혁명'의 의미나 용례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혁명'을 발화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명'의 의미와 용례들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제기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 수용 과정에서 이러한 용례들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

---

10) 유럽 사회에서 프랑스혁명 이후에 '혁명' 개념의 의미가 변화한 양상에 대해서는 라인하르트 코젤렉 저(한철 역), 1998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79-86쪽;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음(한운석 역), 2019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2 - 혁명≫, 푸른역사, 43-44, 120-133쪽 참조. 20세기 초 한국 지식인들의 글 속에서는 종교개혁이 간혹 '종교혁명'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부터 이미 종교개혁과 그 주도 세력을 'Reformation'과 'reformiert(개혁파)'라고 부르는 명칭이 자리 잡았고, 유럽에서 '혁명' 개념이 근대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종교혁명'이라는 용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기 때문에 '종교혁명'은 서구 근대 '혁명'의 보편적 용례나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이케 볼가스트 지음,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음(백승종 역), 2014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8 - 개혁과 (종교)개혁≫, 푸른역사;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음(한운석 역), 2019 앞 책 참조].

그동안 20세기 초반 한국의 ‘혁명’ 개념을 다룬 연구들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기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혁명’이 가지는 정치적 저항성과 폭력성, 운동성에 주로 주목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대한제국기의 ‘혁명’ 개념을 연구한 이헌미는 ‘혁명’을 ‘폭력에 의한 정치질서의 근본적 변혁’이라고 먼저 상정한 후 분석을 진행했다. 그는 대한제국에서 혁명은 없었으나 혁명의 언어는 계속 이어져서 이후에 ‘3·1혁명’, ‘동학혁명’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법에서 민주공화정체를 지향하는 혁명적 현실을 낳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1]

권보드래는 신해혁명, 러시아혁명,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같은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1910년대 ≪學之光≫에서 ‘혁명’이 ‘정치조직·사회조직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의미로 보편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12] 이 연구는 1910년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서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명명하려는 시도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가능했는지를 살펴본다는 문제의식의 차원에서는 이헌미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진화’ 개념을 분석하면서 그 유관 개념으로 ‘혁명’을 다룬 이만영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 연구는 3·1운동을 전후로 ‘혁명’ 개념이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면서, 약자가 강자에게 저항하는 혁명적 주체로 상상되고, 인류 역사가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라 급진적인 진화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해졌음을 밝혔다.[13] 분석 대상 시기를 1920년대 초까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혁명’의 주된 의미를 ‘정치질서의 근본적 변혁’이라고 보고 ‘혁명’ 개념이 가지는 저항성과 급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앞의 연구들과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혁명’이 1900년대를 전후로 해서 ‘revolution’의 번역어로 도입되고 사용된 양상과 1910년대를 기점으로 이

11) 이헌미, 2012 <반역의 정치학 -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2) 권보드래, 2015 앞 논문.
13) 이만영, 2018 앞 논문; 이만영, 2020 <1920년대 초 사회주의 비평 담론과 진화론 인식> ≪현대소설연구≫ 78.

전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해된 양상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첫째, '혁명' 개념의 의미 중 정치적 저항성과 폭력성, 운동성에 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지 않은 '혁명'의 의미들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다. 당시 'revolution'의 번역어로 도입된 '혁명' 개념은 정치적 저항성이나 폭력성, 운동성의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의미 층위가 다양했다. 그리고 정치적 저항이나 폭력, 운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의미도 당시 '혁명'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폭력에 의한 정치질서의 근본적 변혁'을 '혁명'의 주요한 의미로 보는 시각에서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계속 존재했던 '혁명'의 비정치적·비폭력적인 의미들을 '혁명' 개념의 보수화나 언어적 수사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20세기 초반 전체에 걸쳐서 '혁명'의 논의 맥락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헌미는 분석 대상 시기를 대한제국기로 한정했다. 권보드래와 이만영은 1900년대를 전사로 다루긴 했지만, 중점은 1910년대 이후의 '혁명' 개념에 두고 있어서 20세기 초반의 '혁명' 개념이 고르게 분석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 연구 모두 '혁명'의 의미 자체를 정치적 저항성과 폭력성, 운동성을 중심으로 좁게 설정했기 때문에 '혁명'의 다양한 논의 맥락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혁명' 개념이 수용되고 정착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분석되었다고 하기 힘들다.

한편, 1900년대에 신채호(申采浩)가 량치차오(梁啓超)의 ≪意大利建國三傑傳≫을 역술하는 과정에서 '혁명' 개념을 인식하고 사용한 양상에 주목한 양진오의 연구는 신채호가 강조한 '정신의 혁명'을 언어적 수사나 보수화가 아니라, '혁명' 개념의 자기화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4] 다만, 해당 연구도 1900년대 신채호의 문학에서 사용된 '혁명' 개념으로만 분석 대상 시기와 매체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전

14) 양진오, 2013 앞 논문.

체에 걸쳐 당대 지식인층 일반에서 ‘혁명’이 비정치적·비폭력적인 의미까지 포괄한 다양한 층위로 발화된 양상과 그 사회적 맥락은 아직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인 용례들까지를 모두 포괄하여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서구 근대 ‘혁명’ 개념이 수용되고 정착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보호국’ 및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실인식과 고민이 반영되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자료로는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 한국 지식인에 의해 발간된 언론 매체에 주목하였다. 1900년대 후반의 경우, 국내에서 발간되었던 일간지인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와 일본 동경에서 재일유학생단체들이 발간한 ≪太極學報≫, ≪大韓學會月報≫, ≪大韓興學報≫를 활용했다. 1910년대의 경우, 동경의 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 1914년부터 발간한 ≪學之光≫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1920년대 전반의 ‘혁명’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간지 ≪東亞日報≫와 잡지 ≪開闢≫을 함께 활용했다. 해당 사료들을 선정한 기준과 각 사료의 발간 상황, 매체적 성격,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료들에 등장한 ‘혁명’의 논의 맥락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공기어(共起語)[15] 연결망 분석을 활용했다. 공기어 연결망은 ‘혁명’과 동일한 문맥에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형성하는 ‘혁명’의 논의 맥락을 연결망의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16] 공기어 연결망 분석은 활용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혁명’의 모든 문맥을 포괄해서 공기어 연결망을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공기어 연결망에는 고빈도의 단어들만 남게 되지만, 그 기준은 연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기어의 빈도와 유사도라는 양적 지표에 근거한다. 이러한 점에서 ‘혁명’의 특정한 의미에 중심을 두고 분석을 진행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혁명’의 논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15) 본 연구에서 ‘공기어’는 “혁명’과 동일한 문맥에서 등장한 단어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16) 허 수, 2016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 - 『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8, 66-70쪽.

공기어 연결망은 ‘혁명’의 논의 구도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한 연결망 안에서 ‘혁명’의 전체 논의 구도가 어떠한 맥락들로 구성되고 있는지와 그 비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시기별·매체별로 공기어 연결망을 구성할 때, 노드(node)나 링크(link)와 같은 연결망 구성 요소들의 개수를 연구자의 임의가 아닌 일관된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러 시기에 걸쳐 ‘혁명’이 논의되는 맥락을 연결망 구조의 차원에서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다. 공기어 연결망을 구현하는 과정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했다. 1장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 속에 등장한 ‘혁명’의 빈도와 공기어 연결망 구현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로 ‘혁명’의 논의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혁명’의 논의 구도가 달라지는 시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사회혁명’, ‘정치혁명’ 등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서구 근대 ‘혁명’ 개념이 도입되고 사회주의적 ‘혁명’ 용법이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사상계혁명’, ‘문단의 혁명’, ‘사상혁명’처럼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의미와 용례들과는 거리가 있는 ‘혁명’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발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초반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인 용례들을 단순히 언어적 수사로만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一. ‘혁명’ 개념의 사용 양상과 시기 구분

1. 분석 대상 자료 현황과 ‘혁명’의 출현 빈도

본 연구에서는 공기어 연결망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의 일간지와 잡지를 활용했다. 공기어 연결망을 토대로 각 매체에서 ‘혁명’이 등장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서, 이 절에서는 해당 사료들을 활용한 이유를 각각의 매체적 성격, 발간 정보, 전체 데이터양 등의 사항과 함께 설명하고, 그 활용 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매체들에서 ‘혁명’ 개념이 등장한 빈도의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 대상 사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사 제목과 본문 전체가 전산화되어 있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각 매체에서 ‘혁명’이 등장한 빈도처럼, 공기어 연결망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치들을 수월하게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전산화된 매체 중에서도 20세기 초반 한국 지식인층 전반에 대중적 영향력을 가졌거나 ‘혁명’을 다룬 기존 연구사에서 중요하게 분석된 매체를 위주로 선정했다. 셋째,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의 ‘혁명’ 개념을 연속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료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상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한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1900년대 후반의 경우, 일간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와 재일유학생단체 잡지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를 분석 대상 사료로 선정했다. 1910년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로는 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 발간한 ≪학지광≫을 선택했다. 1920년대 전반의 ‘혁명’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간지 ≪동아일보≫와 잡지 ≪개벽≫을 활용했다. 해당 매체들의 발간 정보 및 기사 원문의 전자 텍스트화 상황은 뒤의 [부록 1]에서 표로 제시했다.

먼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개벽≫은 20세

기 초반에 한국 지식인층 전반에 대중적 영향력을 가졌던 언론 매체 중에서 현재 전산화된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황성신문 계열의 인물들이 개신유학 계열의 지식인들로 평가된다면, 대한매일신보 계열의 인물들은 한학보다는 서양사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지식인들로, 학문적·사상적으로 황성신문계의 지식인들과 1906년 이후의 일본 유학생들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지녔다고도 평가된다.[17] 두 계열의 신문이 당시 한국 지식인층 전부를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료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당시 지식인층 전반에서 사용되었던 '혁명' 개념의 의미를 최대한 포착하고자 했다.

≪동아일보≫와 ≪개벽≫은 사회주의를 내세운 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매체가 당시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혁명' 개념 사용 양상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의 ≪동아일보≫의 논설반에는 장덕수, 김명식과 같은 국내 상해파 사회주의자들도 참여하고 있었고, ≪개벽≫은 1923~1924년 무렵에 사회주의적 논설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18] 본고의 연구 목적은 사회주의자들의 '혁명' 개념 사용 양상만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고, 당시 지식인층 일반에 대중적인 영향을 미쳤던 매체에서 사용된 '혁명' 개념의 논의 맥

17)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69-72, 83-86쪽.

18) 기존 연구에서 동아일보 세력은 부르주아민족주의 우파로 주로 분류되었지만[박찬승, 1992 위 책, 20-26쪽], 최근에는 1920년대 초에 국내 상해파 사회주의자들이 ≪동아일보≫의 논설반에서 활동하면서 ≪동아일보≫ 사설을 집필했다는 사실과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도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나 사회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의 논조가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윤덕영, 2010 <일제하 해방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윤덕영, 2018 <1920년대 초반 협동조합운동론의 형성과 특징 - 동아일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9; 최선웅, 2014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개벽≫은 발간 당시 평균 8천 부의 판매부수와 최대 1만 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대중적 종합지였다. 천도교청년회의 간부들이었던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 등이 ≪개벽≫의 발행을 주도했지만 잡지 전체에서 천도교 관련 기사의 수는 많지 않으며, 1923년 중반 이후에는 사회주의적 논설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정인, 2007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35-239쪽; 허 수, 2021 <『개벽』 논조의 사회주의화에 관한 새로운 접근 - 토픽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8(1), 243쪽].

락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지식인층 전반에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당시의 사상적 동향으로서 사회주의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이들 매체가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매체들보다 오히려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하는 사료라고 판단했다.

한편, 1900년대와 1910년대의 재일유학생단체들이 일본 동경에서 발간했던 잡지인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 ≪학지광≫은 앞서 소개한 자료들만큼 한국 지식인층 전반에 사회적 파급력을 지녔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 ≪동아일보≫의 논설반원과 ≪개벽≫에 논설을 실은 필자 중 많은 수가 1910년대에는 재일유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10년대에 발간된 ≪학지광≫은 1920년대 ≪동아일보≫와 ≪개벽≫ 속 '혁명'의 사용 양상과 논의 맥락을 1900년대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앞서 머리말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1910년대 '혁명'의 논의 맥락 변화를 설명하는 사료로 ≪학지광≫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19]

1900년대 후반의 잡지인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분석 대상 사료의 범위에 포함했다.[20] 첫째, 뒤의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00년대 후반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는 '혁명'의 출현 빈도가 연도에 따라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반면에, 재일유학생단체 잡지들에서는 '혁명'이 연도별로 큰 편차 없이 대체로 고르게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만으로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혁명'의 논의 맥락을 재일유학생단체 잡지들을 통해 보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

19) 전자화된 자료의 여건상 1910년대의 자료로는 ≪학지광≫만을 활용하지만, ≪학지광≫이 당시 한국 지식인층 일반에서 사용된 '혁명' 개념 전체를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지광≫은 1914년부터 발간되었기 때문에, 1911년부터 1913년까지 '혁명'이 발화된 맥락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新韓民報≫와 ≪每日申報≫, 박은식과 신채호의 전집 자료를 보조적으로 함께 활용했다.

20) 원래는 일본 동경의 대한유학생회에서 1907년 3월 3일부터 1907년 5월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발간한 ≪大韓留學生會學報≫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혁명'이 사용된 문맥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아서 제외했다.

둘째, 태극학회와 대한학회가 주축이 되어 다른 재일유학생단체들을 통합해서 1909년 1월에 발족한 대한흥학회가 1910년에 강제 해산되고, 1912년 10월에 새로운 재일유학생단체로 결성된 것이 조선유학생학우회로, ≪학지광≫에서의 '혁명'의 의미가 1900년대 후반의 의미와 달라지거나 혹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료라고 판단했다.[21]

각각의 매체적 성격이 다른데 신문과 잡지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신문과 잡지 각각에서 사용되었던 '혁명'의 의미 차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인층이 발화했던 '혁명'의 논의 맥락과 사용 양상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들 매체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문에는 보도기사나 만평,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잡지에는 문학작품, 소식란, 편집후기 등의 글이 섞여 있어서 분석 대상 텍스트가 균질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문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에서는 '사설'로 분류된 기사들만을 분석 대상 자료에 포함했고, 재일유학생단체 잡지인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 ≪학지광≫에서는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 학회 관련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란, 편집후기 등의 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22] ≪개벽≫은 논설 중에서도 '주요논설'만을 분

---

21) 김인덕, 1995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國史館論叢≫ 66, 117-118쪽; 대한흥학회와 조선유학생학우회의 사이에는 1911년 5월 21일 일본에서 결성되었던 조선유학생친목회도 존재한다. 조선유학생친목회에서는 잡지 ≪學界報≫를 발행했다. 다만, ≪학계보≫는 1912년 4월 1일 창간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못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선유학생친목회도 해산되었다[김영민, 2019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잡지 연구≫, 소명출판, 55-63쪽].

22)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에서의 분류를 따랐고, ≪동아일보≫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에서의 분류를 따랐다.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에서의 분류(논설/학술/잡저/세태비평/문예평론/문예기타/기행문/회고·수기/시/소설/소식/사고·편집후기)를 기반으로, '논설', '학술', '잡저', '세태비평', '문예평론'으로 분류된 글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학지광≫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분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필자가 기사를 직접 확인하면서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 학

석 대상에 포함했다.[23] 이상에서 소개한 분석 대상 자료의 매체명, 분석 대상 시기, 분석 대상 기사 유형, 분석 대상 권호수 및 기사수, 분석 대상 기사들의 전체 데이터양(전체 음절 수)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회 관련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란, 편집후기 등의 글은 모두 제외했다. 아울러, 이는 매체 발간 당시의 발간 주체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후대 연구자들에 의한 분류임을 밝힌다. ≪황성신문≫의 경우 '사설'로 분류된 기사에는 원문에서 '사설'이라는 분류하에 게재된 기사들과 '논설'이라는 분류하에 게재된 기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한매일신보≫의 경우 신문 1면 가장 앞부분의 '논설'란에 실린 기사들이 아카이브 사이트에서는 '사설'로 분류되어 있다.

23) '주요논설'은 ≪개벽≫ 논조의 사회주의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의 분류 기준을 따랐다. 해당 연구에서 '주요논설'로 분류된 논설 기사는 총 334개로, 잡지의 목차나 실제 본문 상에서 주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며 개벽 주도층의 입장과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기사라고 평가된다[허 수, 2008 <『개벽』의 '표상공간'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62, 362쪽; 허 수, 2021 앞 논문, 226-227쪽].

[표 1] 분석 대상 자료 현황

매체명	분석 대상 시기	분석 대상 기사 유형	분석 대상 권호수·기사수	전체 데이터양 (단위 : 음절)
≪황성신문≫	1906.02.12~1910.09.14	사설	기사 1,049개	1,033,969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6.01.04~1910.08.28	사설	기사 1,098개	948,313
≪태극학보≫	1906.08.24~1908.11.24	논설, 학술, 잡저, 세태비평, 문예평론	총 26호· 기사 440개	712,698
≪대한학회월보≫	1908.02.25~1908.11.25		총 9호· 기사 168개	226,468
≪대한흥학보≫	1909.03.20~1910.05.20		총 13호· 기사 178개	314,792
≪학지광≫	1914.04.20~1918.03.25	논설·학술·비평 성격의 글[24]	총 11호[25]· 기사 145개	525,928
≪동아일보≫	1920.04.01~1924.12.31	사설	기사 1,537개	2,397,063
≪개벽≫	1920.06.25~1924.12.01	주요논설	총 54호· 기사 249개	1,349,065
합계			기사 4,881개	7,507,666

24) ≪학지광≫의 경우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기사 분류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필자가 기사를 직접 확인하면서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의 논설, 학술, 잡저, 세태비평, 문예평론과 비슷한 성격의 글들만 포함했기 때문에, '논설·학술·비평 성격의 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25) 본고에서는 1910년대에 발간되었으면서 현재 전산화되어 활용 가능한 ≪학지광≫의 12개 호에서 제17호(1919.01.03.)를 제외한 11개 호{제2호(1914.04.20.), 제3호(1914.12.03.), 제4호(1915.02.27.), 제5호(1915.05.02.), 제6호(1915.07.23.), 제10호(1916.09.04.), 제11호(1917.01.01.), 제12호(1917.04.19.), 제13호(1917.07.19.), 제14호(1917.11.20.), 제15호(1918.03.25.)}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17호의 경우에는, 바로 앞의 제16호가 문헌 사료로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같은 1919년에 발간된 제18호는 전자 텍스트화되지 않아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7호를 앞선 권호들과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다음으로, 각 자료에 ‘혁명’이 등장하는 빈도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 [표 2], [표 3]과 같다.[26] ‘혁명’의 빈도는 한글로 된 ‘혁명’과 ‘러볼류슌’, 한자 ‘革命’ 세 가지 기표의 출현 횟수를 모두 더해서 구했다.[27] 아래의 표에서는 연도별 빈도를 ‘절대빈도’와 ‘상대빈도’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절대빈도는 각 사료에서 ‘혁명’이 등장하는 횟수 그 자체이다. 다만, 이는 전체 기사 수의 연도별 증감이나 개별 기사의 분량 차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양이 다른 매체나 연도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각 매체의 전체 데이터양을 고려한 상대빈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연도별 상대빈도를 편의상 “혁명’의 연도별 절대빈도’를 ‘분석 대상 텍스트의 연도별 전체 데이터양(전체 음절 수)’으로 나눈 후에 1,000,000을 곱한 값으로 정의했다.[28]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상대빈도 값은 ‘100만 음절당 혁명 개념이 등장한 횟수’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2] 중 ≪황성신문≫의 1906년 절대빈도인 29(회)를 해당 연도의 전체 데이터양인 266,160(음절)으로 나누고 1,000,000을 곱한 값인 108.95(회)가 ‘혁명’의 상대빈도라고 할 수 있다.[29]

해당 호에서의 ‘혁명’의 사용 양상이 1919년 ≪학지광≫의 ‘혁명’ 개념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26) 각 기사의 제목과 본문 모두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다만, 실제 텍스트에서는 ‘혁명(革命)’과 같은 형태로 ‘혁명’이 한글과 한자로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두 기표가 동일한 문맥 속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혁명’과 ‘革命’으로 각각 1회씩, ‘혁명’이 총 2회 등장한 것으로 계산한다면, 특정 문맥에서의 ‘혁명’의 빈도만 두 배로 산출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혁명’을 검색하기 전에 모든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괄호 ‘()’ 속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삭제했다.

27)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혁명’ 개념에 해당하는 실제 기표는 ‘혁명’과 ‘革命’, ‘러볼류슌’ 세 가지이며, ‘혁명’ 개념의 빈도는 이 세 기표의 빈도를 더한 값을 의미함을 밝힌다. 이후에 본문에서 ‘혁명’이라고 서술할 때 “기표로서의 ‘혁명’”이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혁명’은 기표 ‘혁명’과 ‘革命’, ‘러볼류슌’을 모두 포괄하는 ‘혁명’ 개념을 지칭한다.

28) 각 매체의 연도별 전체 데이터양(전체 음절 수)은 기사 본문과 제목에서 ‘▣’나 ‘◎’ 같은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괄호 ‘()’ 속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삭제한 후, 글자 간의 공백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산출했다.

29) [표 2]와 [표 3]에서 제시한 상대빈도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했으며, 표의 하단에 제시한 상대빈도의 합계와 평균은 이 값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이다. 절대빈도와 상대빈도, 전체 데이터양의 평균값 또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했다.

[표 2] 1906~1910년 '혁명'의 연도별 빈도(단위 : 회) 및 전체 데이터양(단위 : 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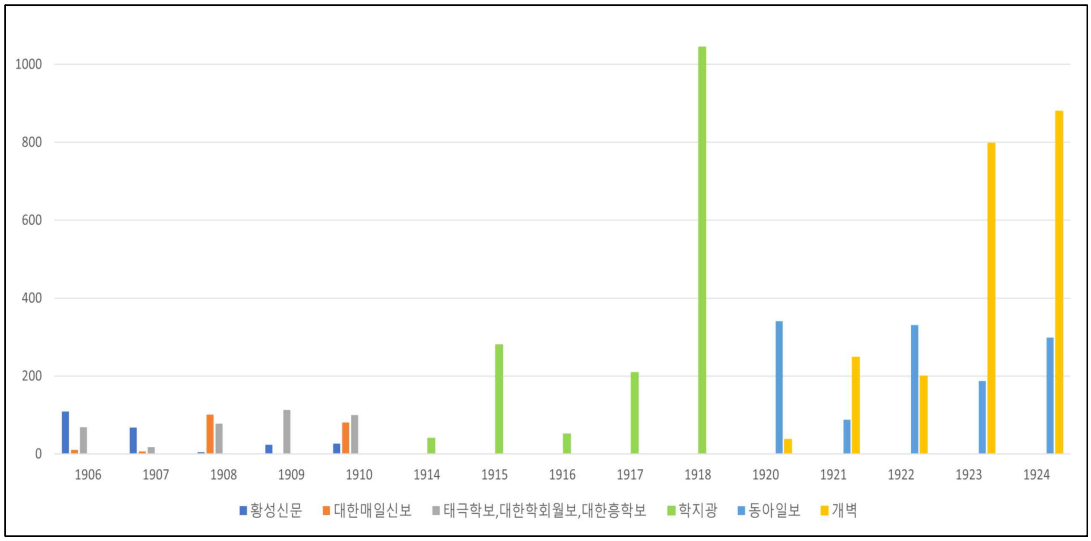
연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전체 데이터양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전체 데이터양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전체 데이터양
1906	29	108.95	266,160	2	10.86	184,054	9	68.21	131,932
1907	18	67.32	267,376	1	6.10	163,845	5	17.20	290,674
1908	1	4.60	217,035	22	101.13	217,531	40	77.43	516,560
1909	5	23.96	208,595	0	0	221,394	22	112.71	195,180
1910	2	26.73	74,803	13	80.50	161,489	12	100.32	119,612
합계	55	231.56	1,033,969	38	198.59	948,313	88	375.87	1,253,958
평균	11	46.31	206,793.8	7.6	39.71	189,662.6	17.6	75.17	250,791.6

[표 3] 1914~1918년, 1920~1924년 '혁명'의 연도별 빈도(단위 : 회) 및 전체 데이터양 (단위 : 음절)

연도	≪학지광≫			≪동아일보≫			≪개벽≫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전체 데이터양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전체 데이터양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전체 데이터양
1914	2	40.43	49,466	-	-	-	-	-	-
1915	46	280.03	164,266	-	-	-	-	-	-
1916	2	51.24	39,030	-	-	-	-	-	-
1917	45	209.22	215,075	-	-	-	-	-	-
1918	60	1044.18	57,461	-	-	-	-	-	-
1920	-	-	-	115	340.63	337,604	4	37.44	106,830
1921	-	-	-	46	87.99	522,778	92	248.36	370,420
1922	-	-	-	188	330.29	569,188	69	199.61	345,664
1923	-	-	-	96	187.62	511,672	232	797.60	290,869
1924	-	-	-	136	298.36	455,821	207	879.79	235,282

합계	155	1625.1	525,298	581	1244.89	2,397,063	604	2162.8	1,349,065
평균	31	325.02	105,059.6	116.2	248.97	479,412.6	120.8	432.56	269,813

위의 [표 2]와 [표 3]의 수치 중 '혁명'의 연도별 상대빈도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1]이다.



[그림 1] '혁명'의 연도별 상대빈도(단위 : 회)

[그림 1]의 상대빈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시기별·매체별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906~1910년의 경우, ≪황성신문≫은 1906년에 '혁명'의 상대빈도가 가장 높았다가 1908~1910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과 1910년에 상대빈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두 신문에서는 특정한 기사나 주제에 의해서 '혁명'의 빈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30] 반면, ≪태극학보≫·≪

30) 1906년 ≪황성신문≫에서는 '혁명'이 등장한 29개의 문맥 중에 89퍼센트(%)에 해당하는 26개의 문맥이 모두 「讀意大利三傑傳」 연재 기사에서 등장했다. 당시 1906년 12월 18일부터 1906년 12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신문에 연재되던 이 기사는 이탈리아 건국의 삼걸로 불리는 마치니, 가리발디, 카부르의 생애와 활동을 담고 있으며, ≪황성신문≫에서 량치차오가 1902년 6월부터 12월까지 ≪新民叢報≫에 연재했던 「意大利建國三傑傳」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국내에 소개한 것이다[양진오, 2013 앞 논문, 429-430쪽; 김주현, 2009 <<월남망국사>와 <의대리건국3걸전>의 첫 번역자> ≪한국현대문학연구≫ 29, 10-14쪽]. 한편,

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에서는 1907년을 제외하면 특정한 기사나 주제에 따른 쏠림 현상 없이 '혁명'이 여러 개의 기사에서 고르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1914~1918년의 ≪학지광≫은 1915년과 1917년, 1918년에 상대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31] 1920~1924년의 경우, ≪동아일보≫는 1920년과 1922년, 1924년의 상대빈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32] ≪개벽≫은 1923~1924년에 상대빈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33]

≪대한매일신보≫에서 '혁명'의 상대빈도가 가장 높은 1908년에는 '혁명'이 등장한 문맥 총 22개 중 77퍼센트(%)에 해당하는 17개의 문맥이 당시 중국의 상황을 다룬 「淸國立憲問題에 對ᄒᆞᆫ 所感」(1908.04.11.), 「淸國內叛亂」(1908.05.27.), 「光緖及西太后崩逝後支那問題에 對ᄒᆞᆫ 硏究」(1908.12.01.) 세 개의 논설에서 사용되었다.

31) 각 연도에 '혁명'의 빈도 증가를 이끈 기사들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1915년에 등장한 '혁명'의 문맥 46개 중 6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28개의 문맥은 1915년 5월 2일 ≪학지광≫ 제5호에 실린 최승구(崔承九)의 「너를 혁명하라! Revolutionize yourself!」라는 글에서 등장했다. 1917년에는 '혁명'의 문맥 총 45개 중 35퍼센트(%)에 해당하는 문맥 16개는 백일생(白一生)의 글 「文壇의 革命兒야」(1917.11.20.)에서 등장했고, 24퍼센트(%)에 해당하는 문맥 11개는 「KERENSKY」(1917.11.20.)에서 등장했다. 1918년에 등장한 문맥 60개 중 58개(96%)가 서상일(徐尙一)의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1918.03.25.)에서 등장했다.

32) 각 연도에 '혁명'의 빈도 증가를 이끈 기사들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의 1920년 기사 중에서는 「歷史的 事實과 自由의 解放」(1920.05.27.)에서 '혁명'이 19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對露通商問題」(1920.06.12.)과 「平等의 原理－實力養成－」(1920.06.26.)에서는 14회, 「中國政局將多事」(1920.07.28.)에서는 12회 등장했다. 이상 네 기사에서 '혁명'이 등장한 횟수는 1920년 기사 전체에서 등장한 '혁명' 횟수의 42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1922년에는 「勞農政府의 五週年 星霜」(1922.11.14.)에서 '혁명'이 21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政治와 中心勢力」(1922.07.06.)에서 14회, 「政治와 經濟」에서 11회 등장했다. 세 기사에서 '혁명'이 등장한 횟수는 전체의 24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1924년에는 「英國勞働黨 內閣의 出現과 레닌氏의 死」(1924.01.25.)에서 '혁명'이 15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孫文氏의 訃를 聞하고」(1924.05.16.)에서 11회, 「全世界 革命運動」(1924.05.30.)에서 10회, 「孫文氏의 三民三政主義」(1924.02.28.)에서 7회 등장했다. 네 기사에서 '혁명'이 등장한 횟수는 전체의 36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33) 1923년 ≪개벽≫의 주요논설에서 사용된 '혁명'의 51퍼센트(%)는 「中國의 政治的 現勢와 社會的 現勢(現勢的 政治의 破産과 革命的 氣分이 漲溢한 社會의 現態)」(1923.01.01.)(60회), 「빠르뷰스對 로맨·로란間의 爭論, 클라르테운동의 世界化(끗) 1921년 12월 巴里에서」(1923.10.01.)(33회), 「爭鬪의 世界로부터 扶助의 世界에」(1923.02.01.)(27회) 세 논설에서 등장했다. 1924년 ≪개벽≫에서는 전체 '혁명'의 문맥 중 47퍼센트(%) 정도가 「우리의 思想革命과 科學的 態度」

이처럼, 1906~1910년의 시기와 1920~1924년의 시기에는 매체에 따라 상대빈도의 증감 추이가 조금씩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1906~1910년의 매체들에 비해서 1914~1918년과 1920~1924년의 매체들에서 '혁명'의 상대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은 뚜렷해 보인다. 이는 매체별·시기별로 '혁명'의 상대빈도 평균값을 제시한 아래의 [표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매체별·시기별 '혁명'의 상대빈도 평균(단위 : 회)

시기	매체명	상대빈도 평균 (매체별)	상대빈도 평균 (시기별)
1906~1910년	≪황성신문≫	46.31	53.73
	≪대한매일신보≫	39.71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	75.17	
1914~1918년	≪학지광≫	325.02	325.02
1920~1924년	≪동아일보≫	248.97	340.76
	≪개벽≫	432.56	

위의 [표 4]는 앞서 [표 2]와 [표 3]에서 제시했던 각 매체의 연도별 상대빈도를 평균한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상대빈도 평균(매체별)'은 매체별로 해당 매체의 연도별 상대빈도의 평균을 구한 값을 의미하고, '상대빈도 평균(시기별)'은 1906~1910년, 1914~1918년, 1920~1924년 세 시기별로 해당 시기에 속한 모든 매체의 연도별 상대빈도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시기별 상대빈도 평균값을 살펴보면, 1906~1910년의 시기에는 53.73(회)인 데 비해 1914~1918년에는 325.02(회), 1920~1924년에는

(1924.01.01.)(39회), 「「모든 問題 모든 方面을 取扱하는 組織」-러시아의 共産黨은 엇더한 일을 하는지-」(1924.04.01.)(31회), 「唯物史觀의 「要領記」, 社會主義學說大要=其四」(1924.01.01.)(29회) 세 개의 논설에서 등장했다.

340.76(회)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매체들에 한정해서는 1906~1910년, 1914~1918년, 1920~1924년의 세 시기 중에 '혁명'이 발화되는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두 번째 시기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매체별·시기별로 단일 기사 내 '혁명' 출현 빈도의 평균, 즉 하나의 기사 당 '혁명'이 등장하는 빈도를[34] 계산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단일 기사 내 '혁명' 출현 빈도의 평균을 시기별로 계산한 수치를 살펴보면, 1906~1910년까지는 '혁명'이 하나의 기사에서 평균 1.82회 정도로 등장한다면, 1914~1918년과 1920~1924년에는 '혁명'이 하나의 기사에서 평균 5.34회와 4.45회 정도로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값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기사에서 '혁명'이 한 번만 언급되는 경우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발화되는 상황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단일 기사 내 '혁명' 출현 빈도의 매체별·시기별 평균(단위 : 회)

시기	매체명	단일 기사 내 '혁명' 출현 빈도의 평균 (매체별)	단일 기사 내 '혁명' 출현 빈도의 평균 (시기별)
1906~1910년	≪황성신문≫	1.83	1.82
	≪대한매일신보≫	2.11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	1.72	
1914~1918년	≪학지광≫	5.34	5.34
1920~1924년	≪동아일보≫	2.93	4.45
	≪개벽≫	8.88	

이를 앞서 살펴본 [표 4]와 함께 이해해보면, '혁명'의 시기별 상대빈도의 평균값과 하나의 기사 당 '혁명'이 등장하는 빈도 둘 다 1914~1918년

34) '혁명'의 전체 빈도를 '혁명'이 등장한 기사의 전체 개수로 나눈 값이다.

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1906~1910년과 비교했을 때, 1914~1918년과 1920~1924년에 들어서 '혁명'이 발화되는 상황 자체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 하나의 기사 속에서 '혁명'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등장하는 상황도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1914~1918년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혁명'의 출현 빈도상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빈도상에서의 변화만으로는 이 시기에 '혁명'의 논의 맥락에서도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의 빈도상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혁명'과 동일한 문맥에서 함께 등장하는 공기어들의 변화 양상을 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공기어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과 시기 구분

1914~1918년에 '혁명'의 출현 빈도상에서뿐만 아니라 논의 맥락상에서도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기어 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공기어'는 '혁명'이 등장한 문맥에서 '혁명'과 함께 사용된 단어들을 의미한다. '혁명'과 동일한 문맥에서 함께 발화되면서 '혁명'의 실제 논의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기어는 각 매체에서 '혁명'이 논의된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35] 이 절에서는 먼저 '혁명'이 등장한 문맥들에서 공기어들을 선별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공기어 연결망을 구현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공기어 연결망들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혁명'의 논의 맥락상에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혁명'의 공기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기어 연결망을 활용한 까닭은 공기어 연결망이 공기어들이 형성하고 있는 '혁명'의 논의 맥락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공기어 연결망은 '혁명'의 공기어들이 등장하는 패턴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도가 높은 공기어끼리 서로 연결관계를 형성하도록 구현된다. 예를 들어, '혁명'의 문맥 1에서 '프랑스'와 '자유'가 함께 등장하고, '혁명'의 문맥 2에서도 '프랑스'와 '자유'가 함께 사용되는 반면에, '혁명'의 문맥 3에서는 공기어로 '사회'만 등장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공기어들이 등장하는 패턴의 유사도에서 '프랑스'는 '사회'보다 '자유'와 더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다.[36]

이러한 연결망 분석 방법은 공기어들을 연결망의 형태로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혁명'과 함께 사용되는 몇몇 개별 단어 수준의 비교를 넘어서, 연결망의 구조 차원에서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7] '혁명'과 함께 사용된 단어들이 형성하고 있는 '혁명'의 논의 맥락들을 네트워크

35) 김일환 외, 2017 ≪키워드, 공기어, 그리고 네트워크 - 신문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20-21쪽.
36) 허 수, 2016 앞 논문, 66-67쪽.
37) 허 수, 2022 <192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와 '민중'> ≪역사비평≫ 140, 285쪽.

구조의 형태로 시각화하고, 시기별·매체별로 공기어 연결망 간에 어떠한 구조적 유사성 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혁명'과 함께 자주 발화된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차원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당대에 '혁명'이 발화되었던 맥락의 실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공기어 연결망을 구현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기어 연결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명'의 공기어를 추출하는 문맥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한 것인지는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연구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38] 본 연구에서는 '혁명'과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하게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공백을 제외하고 '혁명'의 앞뒤 각 20음절, 총 40음절을 하나의 문맥으로 간주했다.[39] 이렇게 설정한 문맥의 범위 안에서는 명사와 고유명사를 위주로 공기어를 선별했다. 그 자세한 기준과 방식은 뒤의 [부록 2]에서 제시했다. 공기어를 모두 선별한 후 하나의 문맥 안에서 동일한 공기어가 두 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남겨서 같은 문맥 안에서는 중복된 공기어가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 문맥 안에서 '黨'이라는 단어가 세 번, '思想'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경우에 '黨'과 '思想' 모두 한 번씩 등장한 것으로 조정했다.

이상의 방식으로 전처리 작업을 한 공기어 정보는 넷마이너(NetMiner) 프로그램을 거쳐 공기어 연결망으로 구현된다.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기어 연결망을 구현하는 과정[40]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혁

38) 김일환 외, 2017 앞 책, 20-21쪽.

39) 문장이나 어절을 기준으로 문맥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료들의 경우, 문장과 문장이 현대 한국어에서처럼 마침표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각 문장의 길이도 일정하지 않아서 문장을 기준으로 문맥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료가 많아서 어절을 기준으로 문맥을 나눌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필자는 음절 수를 기준으로 문맥을 설정하는 것이 분석 대상 사료 전체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공기어를 추출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문맥의 범위는 공기어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설정한 문맥 범위인 '키워드 좌우 15형태'와 비슷한 정도의 길이로 맞춰서 '공백을 제외한 키워드 앞뒤 20음절'로 설정했다[허 수, 2016 앞 논문, 58-59쪽].

명’이 사용된 문맥에서 선별한 공기어 정보를, ‘문맥 번호-공기어’ 형식의 2항 연결 관계 정보[41]로 바꿔서 넷마이너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이때, 각 문맥에서 키워드인 ‘혁명’은 제외하고 공기어들의 정보만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최종 연결망에는 공기어들만 나타나도록 했다. 다음으로, ‘문맥 정보 - 공기어’의 2항 연결 관계를 문맥 번호 정보에 근거한 공기어 간의 유사도[42]를 바탕으로 ‘공기어 - 공기어’의 1항 연결 관계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링크의 개수를 절삭하고, 컴포넌트와 커뮤니티 분석을 완료하면 최종 연결망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석 대상 매체마다 연결망 각각 하나씩, 총 여섯 개의 공기어 연결망을 구현했다.

공기어 연결망 구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결망에 나타내는 정보의 양이다. ‘혁명’의 절대빈도와 상대빈도는 시기와 매체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혁명’과 함께 등장하는 공기어의 종류수도 달라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 시기의 공기어 정보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같은 분량의 정보를 연결망으로 그려낸다면, 특정 시기 ‘혁명’ 개념의 논의 양상이 과잉 표현되거나 과소 표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별로 공기어 연결망에 최종적으로 남기는 노드의 개수는 ‘혁명’의 문맥 개수와 공기어의 종류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906~1910년의 매체는 20~23개, 1914~1918년의 ≪학지광≫과 1920~1924년의 ≪동아일보≫, ≪개벽≫은 49~50개로 설정했다.[43] 자세한 산출 기준은 아래의 [표 6]에

---

40) 넷마이너에서 연결망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문맥 번호-공기어’ 형식의 2항 연결 관계 정보 입력 → ② 노드 개수 절삭 → ③ 2항 연결 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공기어-공기어’ 형식의 1항 연결망 생성 → ④ 셀프 루프(self loop) 제거 → ⑤ 링크 개수 절삭 → ⑥ 컴포넌트 분석 → ⑦ 커뮤니티 분석.

41) 앞서 1장 1절에서 ‘혁명’의 상대빈도를 구한 이유와 비슷하게, ‘혁명’의 공기어도 각 매체의 연도별 전체 음절 수를 반영한 상대빈도를 고려해서 공기어 연결망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넷마이너 프로그램에 공기어와 문맥 정보를 입력할 때, 각 공기어의 속성값으로 각 공기어가 연도별 사료 전체의 글자 수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을 함께 입력해서, 연결망에서도 연도별 상대빈도에 따른 가중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단, ≪학지광≫의 경우 1918년의 절대빈도와 상대빈도의 차이가 다른 연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커서 상대빈도를 기반으로 연결망을 그렸을 경우 다른 연도의 공기어 분포가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학지광≫의 연결망만 절대빈도를 기반으로 그렸다.

42)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활용했다.

서 제시했다.

먼저, [표 6]의 항목 중에서 '노드(node)'는 공기어 연결망에 표현된 점을 지칭하고, '링크(link)'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공기어 연결망에서 공기어들은 노드로 표시되며, 각각의 노드들은 함께 입력된 문맥 번호 정보에 근거한 코사인 유사도에 따라 링크로 연결된다. 연결망에서 노드의 크기는 그 노드에 해당하는 공기어가 '혁명'과 같은 문맥에서 자주 등장할수록 더 커지며,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의 굵기는 두 공기어 간에 유사도가 높을수록 더 굵어진다. 이때, 두 공기어 간에 유사도가 높다는 것은 두 공기어가 같은 문맥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44]

---

43) 공기어 연결망에 표현되는 노드의 개수를 차등화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06~1910년, 1914~1918년, 1920~1924년 세 개의 시기 중 같은 시기에 속한 매체들은 '혁명'의 문맥 수와 상대빈도 등의 지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결망에 처음 입력하는 노드와 최종적으로 남기는 노드의 개수를 비슷한 수준에서 설정하려고 했다. 다만, 1906~1910년과 1914~1918년, 1920~1924년의 매체를 시기별로 비교하면 '혁명'의 문맥 수(절대빈도) 및 상대빈도의 차이가 같은 시기의 매체끼리 비교했을 때보다 더 커지는데, 이때에는 앞서 1장 1절에서 구한 시기별 상대빈도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노드 수를 설정했다. 1906~1910년의 상대빈도 평균값은 53.73(회)이고, 1914~1918년은 325.02(회), 1920~1924년의 평균값은 340.76(회)이다. 1906~1910년의 값을 1로 가정했을 때, 1914~1918년의 값은 약 6.04, 1920~1924년의 값은 약 6.34가 된다. 다만, 이를 그대로 공기어 연결망에 반영하면 1920년대 전반의 공기어 연결망의 노드 수가 1900년대 후반에 비해 6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며 연결망에 표현되는 노드 개수도 너무 많아서 분석에 활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별 평균값의 배율에 루트(√)를 씌운 값을 근거로 노드 개수를 설정했다. 평균값의 배율에 루트를 씌우면, 1906~1910년을 1로 가정했을 때, 1914~1918년은 2.45, 1920~1924년은 2.51이 된다. 따라서, 1906~1910년은 20개, 1914~1918년은 49개, 1920~1924년은 50개를 최종적으로 남기는 노드의 개수로 설정했다. 이 수치의 110% 수준에서 노드 개수를 최초 절삭했고, 링크 절삭과 컴포넌트 절삭 과정을 통해 처음 설정한 개수의 노드가 연결망에 표시되게 했다. 다만, 실제 노드 절삭 과정에서는 앞서 제시한 이론상의 수치와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근접한 수치로 노드 개수를 조정했다.

44) 허 수, 2016 앞 논문, 70쪽.

45) 커뮤니티 분석은 넷마이너에서 제시한 여러 개의 fusion level 중에서 그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학지광≫의 경우

[표 6] 공기어 연결망 산출 기준

매체명	최초 입력값(개)	노드 절삭	링크 절삭	컴포넌트 절삭	커뮤니티 구분[45]
≪황성신문≫	문맥: 55 공기어 종류: 329 문맥-공기어: 468	degree≥ 14 (20/329)	weight≥ 0.2202 (34/65)	size≥3 (20/20)	개수 : 3 fusion level 14 (10.026687)
≪대한매일신보≫	문맥: 38 공기어 종류: 184 문맥-공기어: 251	degree≥ 10 (20/184)	— (48/48)	size≥3 (20/20)	개수 : 3 fusion level 6 (22.510725)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흥학보≫	문맥: 88 공기어 종류: 450 문맥-공기어: 679	degree≥ 16 (28/450)	weight≥ 0.33 (51/100)	size≥3 (23/28)	개수 : 2 fusion level 36 (8.699169)
≪학지광≫	문맥: 154 공기어 종류: 471 문맥-공기어: 914	degree≥ 4 (54/471)	weight≥ 0.19 (120/225)	size≥3 (49/54)	개수 : 4 fusion level 40.5 (11.116068)
≪동아일보≫	문맥: 581 공기어 종류: 1661 문맥-공기어: 3909	degree≥ 24 (55/1661)	weight≥ 0.148 (110/650)	size≥3 (50/55)	개수 : 4 fusion level 36 (20.519496)
≪개벽≫	문맥: 604 공기어 종류: 1338 문맥-공기어: 4095	degree≥ 42.2 (55/1338)	weight≥ 0.139 (112/656)	size≥3 (49/55)	개수 : 4 fusion level 42 (23.587723)

이어서, 컴포넌트(component)는 연결망에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노드들의 집단이다. 본고에서 구현한 6개의 공기어 연결망은 모두 한 개의 컴포넌트를 가진다. 한편, 커뮤니티(community)는 연결망에 표현된 노드들을 서로 간의 응집 정도에 따라 구분한 하부 단위이다.[46] 커

넷마이너에서 제시한 가장 높은 적합도의 fusion level로 하위집단을 나눈 결과보다 2순위 적합도의 fusion level에 의한 구분이 실제 텍스트에서의 논의 맥락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 경우에만 2순위 적합도의 fusion level을 선택했다.

뮤니티의 구분은 넷마이너 프로그램에서 '연결 매개성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을 활용해서 진행했다.[47] 최종적으로 구현된 연결망에서 커뮤니티는 서로 다른 색과 형태의 노드로 구분해서 표시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표 6]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벽≫의 '최초 입력값' 항목의 내용인 '문맥: 604, 공기어 종류: 1338, 문맥-공기어: 4095'는 넷마이너에 처음 입력한 문맥의 개수가 604개, 공기어의 종류가 1,338개, '문맥 - 공기어'의 2항 연결 관계 정보가 4,095개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드 절삭' 항목은 처음 입력한 1,338개의 노드 중 상대빈도(degree)가 42.2 이상인 노드 55개만 남겼음을 의미한다. '링크 절삭' 항목은 656개의 링크 중 유사도 값(weight)이 0.139 이상인 112개의 링크만 연결망에 남겼음을 뜻한다. '컴포넌트 절삭' 항목은 노드가 3개 미만인 컴포넌트는 삭제해서 55개의 노드 중 49개의 노드만 최종적으로 연결망에 표시했음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구분' 항목은 23.587723의 적합도의 fusion level 42를 선택해서 연결망의 노드를 네 개의 하위집단(커뮤니티)으로 구분했음을 뜻한다.

이상에서 '혁명'의 공기어 선별 및 공기어 연결망 구현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1914~1918년에 '혁명'이 논의되는 맥락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체별·시기별로 각각 구성된 공기어 연결망들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

46) 허 수, 2016 앞 논문, 70쪽.

47) '연결 매개성 커뮤니티 분석'은 '연결 매개성'의 중심성을 계산해서 연결 매개 중심성이 높은 링크를 하나씩 전체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해 나가면서 연결이 끊어진 노드들의 그룹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구성하는 방법이다[박찬정, 2020 <공영방송 내부 의사결정조직의 사회연결망 분석 - 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7쪽; 허 수, 2022 앞 논문, 303쪽]. '연결 매개 중심성'은 '매개 중심성'이라고도 하며, 특정 노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노드를 매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전체 연결망에서 중재자, 혹은 다리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261-262쪽; 최수진, 2016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62쪽].

지 지표에 주목했다. 첫째, 넷마이너로 구현한 여섯 개의 공기어 연결망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인 '프랑스', '思想', '국가'가 시기별로, 매체별로 전체 연결망에서 어떠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섯 개의 공기어 연결망 모두에서 등장하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단어들이 시기나 매체와 상관없이 '혁명'과 같은 문맥에서 계속 등장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매체 간에 공유하고 있는 '혁명'의 논의 맥락이나 '혁명'의 의미가 시기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각 공기어 연결망이 어떠한 커뮤니티들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공기어 연결망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각 연결망에서 어떠한 커뮤니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고자 했다. 커뮤니티는 전체 연결망을 노드 간의 응집 정도에 따라 나눈 하부 단위로, 전체 연결망이 몇 개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들은 어떠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공기어 연결망이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48] 즉, 공기어 연결망이 어떠한 하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그 하부 단위가 어떠한 단어들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곧 공기어 연결망의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06~1910년의 시기와 1920~1924년의 시기에는 여러 개의 매체를 동시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신문과 잡지 사이에는 매체의 성격 차이가 존재하고, 신문들 사이에서도 발행 주체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나 논조에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시기여도 매체에 따라 공기어 연결망을 구성하는 단어들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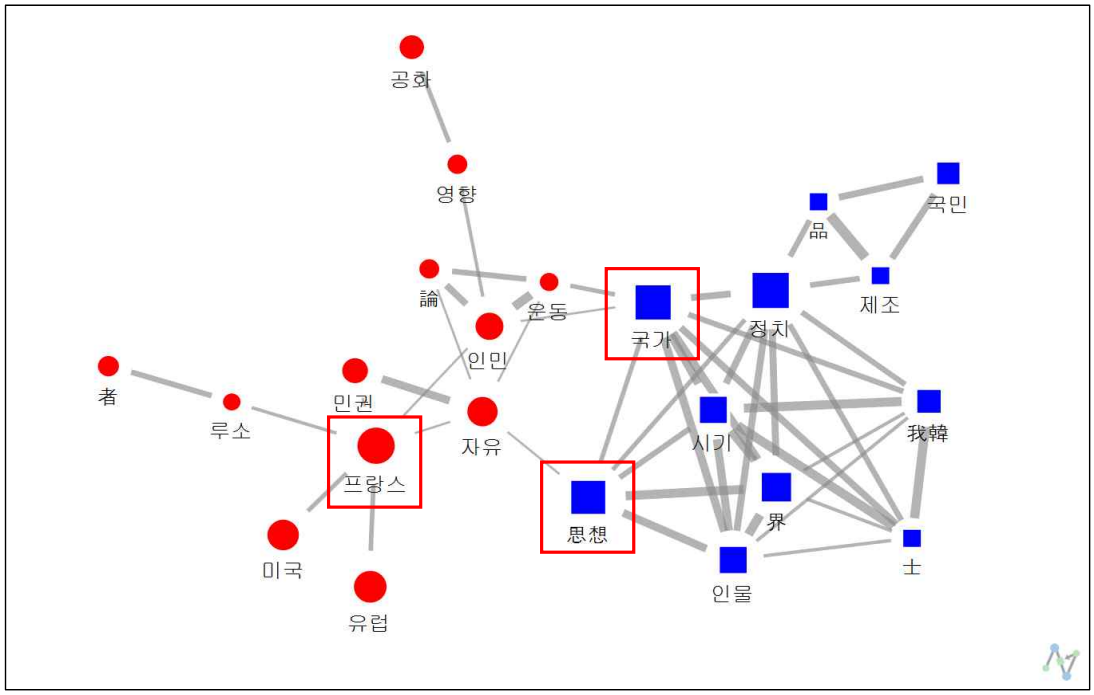
48)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노드들 사이에도 링크를 매개로 한 연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커뮤니티로 구분되었다고 해서 '혁명'의 논의 맥락이 반드시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커뮤니티는 전체 연결망을 노드 간의 응집 정도에 따라 나눈 하부 단위이기 때문에, 공기어 연결망에서 어떠한 공기어들이 서로 응집 정도가 높고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어떠한 '혁명'의 논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되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주목했을 때 오히려 각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점, 특징들이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보다는 같은 시기의 매체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에 주목했다. 이 연구의 목적이 각각의 매체별 특성을 넘어서서 공유되고 있는 '혁명'의 논의 맥락을 확인함으로써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발화되었던 '혁명'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먼저, 1906~1910년 세 개의 공기어 연결망이 어떠한 커뮤니티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프랑스', '思想', '국가'가 어떠한 커뮤니티에 포함되어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인 [그림 2]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속해있는 커뮤니티와 '思想'이 속해있는 커뮤니티가 전체 연결망을 양분하는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가 속해있는 커뮤니티의 단어들이 등장한 문맥을 모두 살펴보면, 35개의 문맥 중에서 "法蘭西革命", "法國革命" 등 '프랑스혁명'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거나 내용적으로 프랑스혁명과 관련된 문맥은 28개로, 전체에서 8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커뮤니티를 '프랑스'와 관련된 '혁명'의 논의 맥락을 보여주는 커뮤니티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思想' 관련 커뮤니티의 단어들이 등장한 문맥들을 확인해보면, 이 단어들이 1910년 2월에 발표된 「告我韓士」라는 논설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9] '국가'는 '思想'이 속해있는 커뮤니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만, "국가적 정치혁명"이 아니라 "인물사상계에 일대혁명"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思想'과 '국가'가 함께 발화되고 있으므로 이 커뮤니티에서는 '국가'보다 '思想'이 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思想'이 등장하는 커뮤니티는 '思想'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논의 맥락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9) ≪대한흥학보≫ 1910년 2월 20일 「告我韓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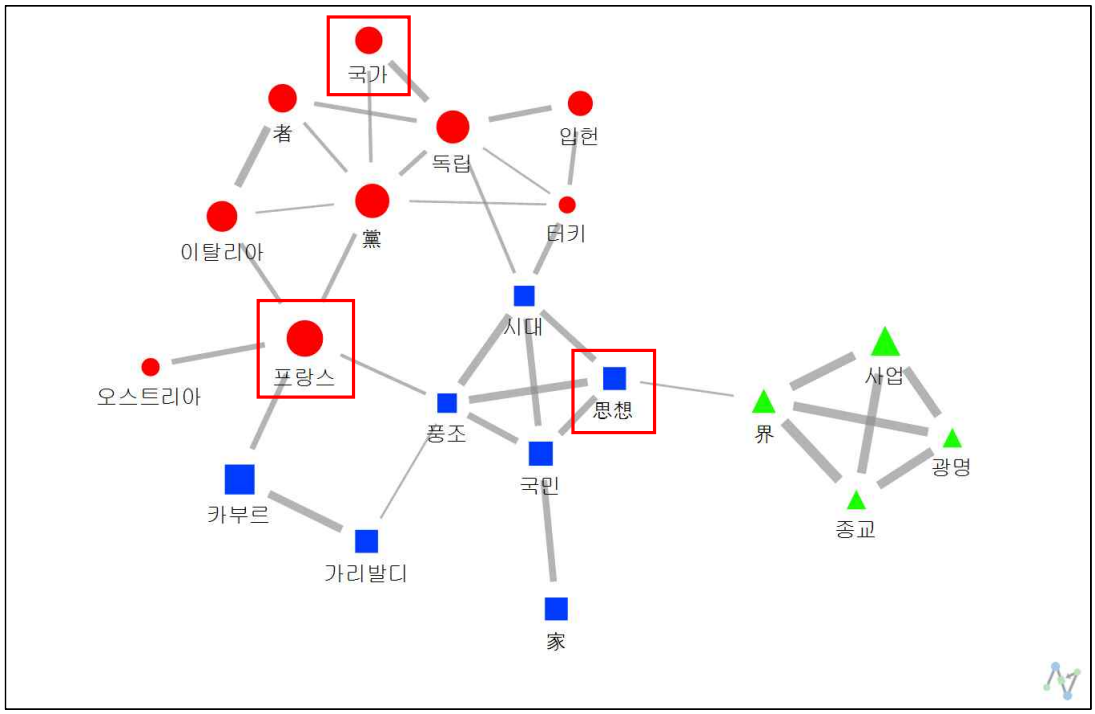


[그림 2]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다음으로,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인 [그림 3]과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인 [그림 4]를 살펴보면, 두 연결망 모두에서 '프랑스'와 '思想'이 다른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살펴본 양상과 유사하다. 또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연결망에서 '국가'는 모두 '프랑스'와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노드의 크기나 연결된 링크의 개수를 '프랑스'와 비교해봤을 때 '프랑스'가 더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50] 두 연결망에서 '思想'

50)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과도 비교해봐도 노드의 크기나 연결된 링크의 개수에서 '프랑스'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프랑스'가 속해있는 커뮤니티에서 '黨'이나 '독립'도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 관계가 활발하긴 하다. 그러나 실제 문맥에서 '黨'은 '프랑스혁명당'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독립'은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을 나열하거나, 프랑스혁명당과 이탈리아독립당을 열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에서 '프랑스'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황성신문≫ 1907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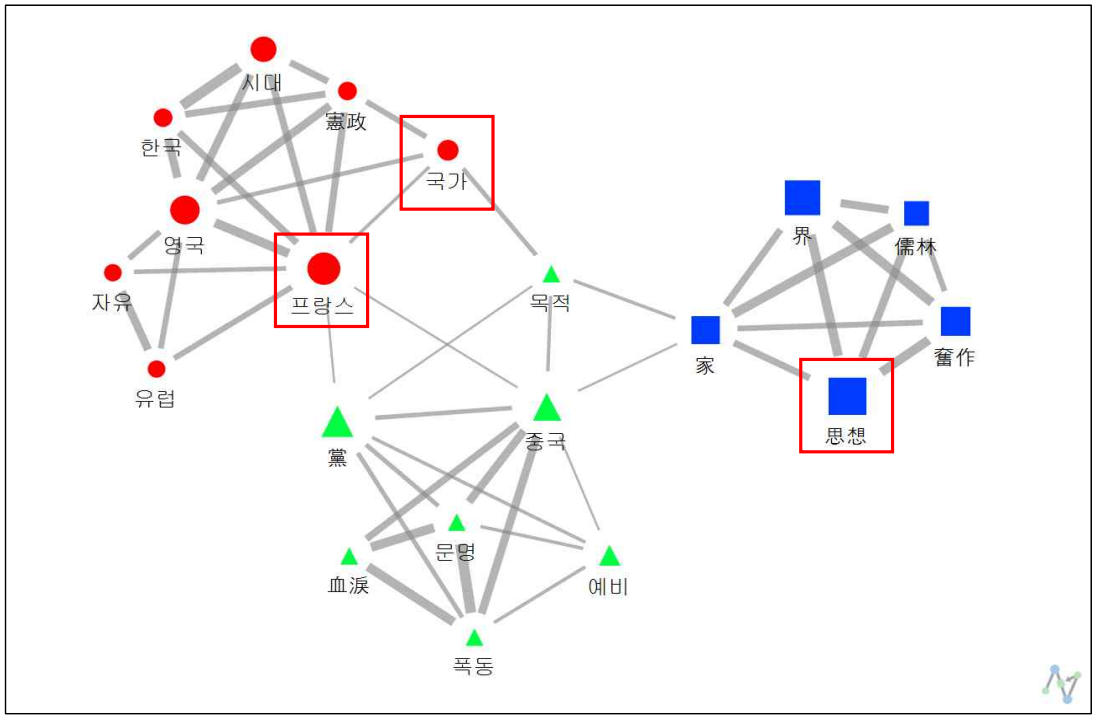
과 관련된 커뮤니티들 또한 각 커뮤니티에 속하는 단어들이 등장한 문맥들을 확인해봤을 때, “革命之思想”이나 “思想界革命”처럼 ‘혁명’과 직접 결합해서 복합어로 사용된 것은 대체로 ‘思想’이었다.[51] 따라서, 이 커뮤니티들에서도 ‘思想’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월 10일「思想과 能力 (續)」; ≪황성신문≫ 1907년 9월 17일「請質義兵者」].

51) ≪황성신문≫ 1906년 12월 25일「讀意大利建國三傑傳 (續)」;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3일「儒林家의 思想界革命」



[그림 4]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한편,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과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은 재일유학생단체의 잡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먼저,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에는 '사업', '종교'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프랑스'와 '思想'의 커뮤니티 외에 따로 존재한다. '사업', '종교', '界', '광명'이 함께 쓰인 문맥을 확인해보면, 종교계에 위인걸사의 혁명사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맥락에서 '혁명'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 종교계는 "儒林家"를 지칭한다.[52] 사실상 재일유학생단체 잡지와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思想' 관련 커뮤니티의 논의 맥락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그림 4]의 공기어 연결망에 등장하는 '중국' 관련 커뮤니티는 같은 시기 다른 연결망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한매일신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 '목적',

52) ≪황성신문≫ 1910년 7월 20일「忠南中學校發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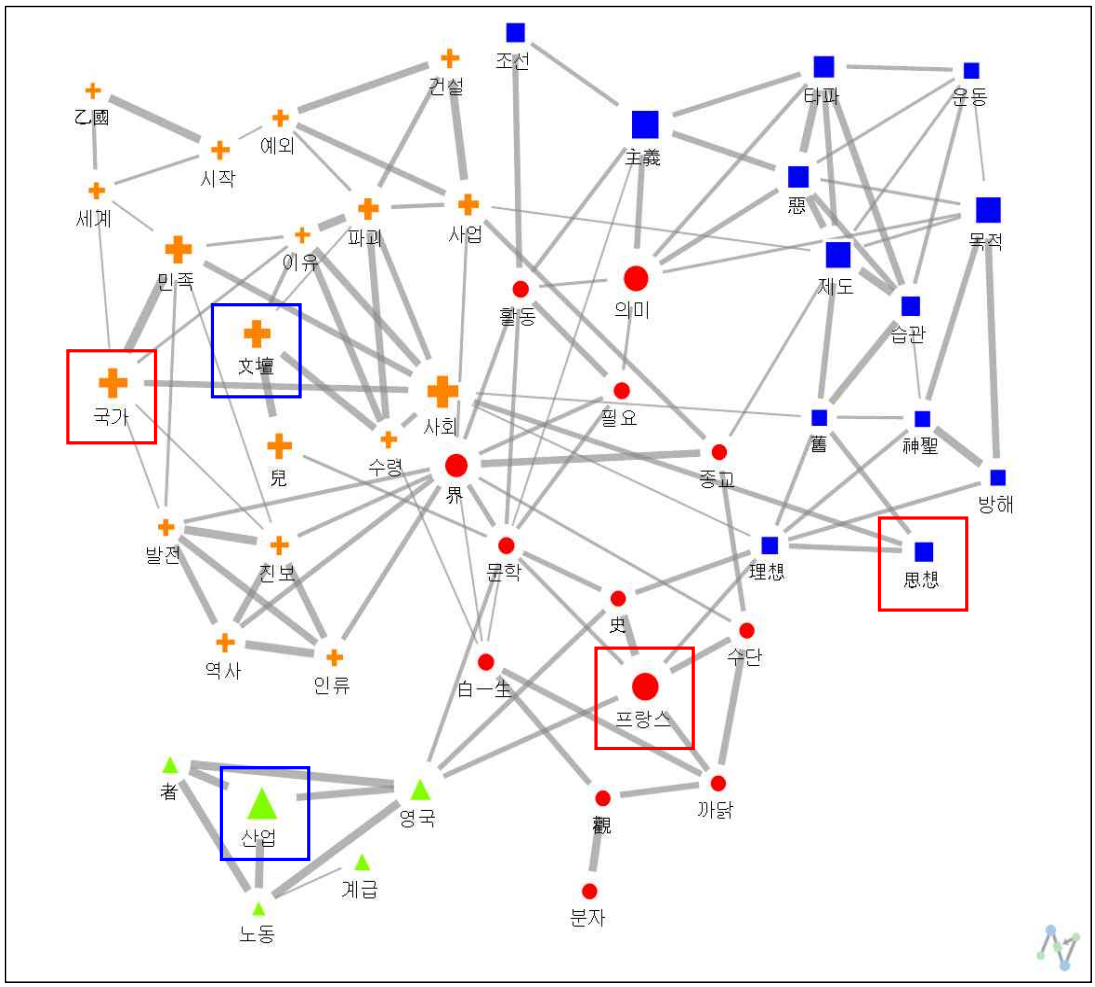
‘黨’, ‘문명’, ‘예비’, ‘血淚’, ‘폭동’ 등이 함께 쓰인 문맥을 확인해보면, 1908년 4월 11일「淸國立憲問題에 對ᄒᆞᆫ 所感」이라는 기사에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논설은 당시 중국에서 “입헌 예비의 皇勅을 선포”한 것이 “문명으로 가는 維新風潮”라고 하며, 혁명과 폭동은 야만적인 것과 문명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최근 중국의 혁명, 폭동은 문명적인 것에 가까워져 이러한 유신풍조가 생긴 것이라고 평한다.[53] 이 논설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은 프랑스혁명이 아니라 중국의 혁명이라는 점에서는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국’ 관련 커뮤니티 또한 외국의 혁명 사건을 발화하는 맥락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헌’, ‘문명’에 대한 관심에서 ‘혁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속한 커뮤니티와 그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1906~1910년의 세 연결망은 ‘프랑스’와 ‘思想’이 각각 다른 논의 맥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외국의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입헌’에 대한 관심에서 ‘혁명’을 발화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었다면, ‘思想’과 관련된 커뮤니티는 대체로 국내의 사상계와 종교계, 주로 儒林의 변화를 요구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혁명’은 크게 프랑스혁명과 같은 외국의 혁명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의 사상계 및 종교계의 변혁에 대한 제기와 관련해서 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14~1918년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부터이다. [그림 5]의 연결망에서 ‘프랑스’와 ‘思想’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커뮤니티에 속해있긴 하지만, 이 두 커뮤니티 외에도 ‘文壇’, ‘사회’, ‘민족’, ‘국가’, ‘역사’, ‘진보’, ‘발전’, ‘인류’ 등이 속한 커뮤니티와 ‘산업’, ‘영국’, ‘노동’, ‘계급’이 속한 커뮤니티가 새롭게 등장한다. ‘프랑스’나 ‘思想’이 속한 커뮤니티에 ‘국가’도 함께 속해있었던 1900년대 후반의 양상과 달리, 1914~1918년부터는 ‘국가’가 ‘프랑스’나 ‘思想’과 별개의 커뮤니티에 속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1914~1918년의 연결망에

53)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1일「淸國立憲問題에 對ᄒᆞᆫ 所感」

서는 ‘프랑스’와 ‘思想’을 중심으로 한 1906~1910년의 연결망에서의 구도에 변화가 발생해서, 기존 두 개의 논의 맥락 외에 ‘文壇’과 관련된 맥락과 ‘산업’과 관련된 맥락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54]



[그림 5]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54) ‘文壇’과 ‘산업’이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다. 각 커뮤니티에 속하는 단어들이 등장한 실제 문맥을 확인했을 때, ‘文壇’이 속한 커뮤니티의 단어들은 “文壇의 革命”에 대해서 논하는 맥락에서 등장했다[≪학지광≫ 제14호, 1917년 11월 20일 「文壇의 革命兒야」 白一生; ≪학지광≫ 제15호, 1918년 3월 25일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 徐尙一]. ‘산업’이 속한 커뮤니티의 단어들도 실제 문맥을 조사해보면, 대체로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 ‘영국’, ‘노동’, ‘계급’, ‘者’가 한 번이라도 등장한 문맥 총 21개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14개 문맥에서 ‘혁명’은 “産業革命”이라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1920~1924년 시기의 두 공기어 연결망에서 공유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먼저, ≪동아일보≫와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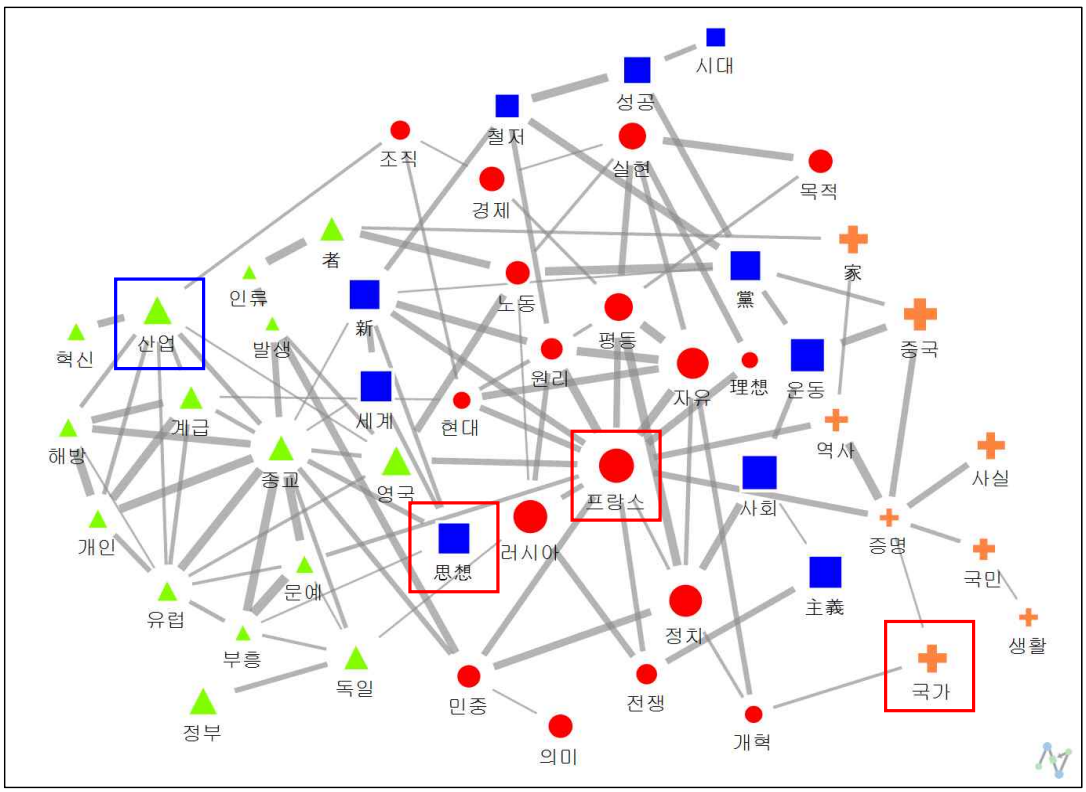
[표 7] ≪동아일보≫와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 구성 단어와 비율

구분	공기어 연결망 구성 단어	비율(%)[55]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에만 등장하는 단어	개인, 개혁, 독일, 목적, 문예, 민중, 발생, 부흥, 사실, 생활, 영국, 원리, 유럽, 의미, 理想, 정부, 증명, 철저, 해방, 혁신, 현대 (21개(=a))	42 {=a/(a+c)*100}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에만 등장하는 단어	건설, 공산, 과학, 까닭, 레닌, 맑스, 무산, 문학, 발달, 선언, 세력, 요구, 印度, 자본, 제도, 주장, 진리, 청년, 투쟁, 派 (20개(=b))	40.81 {=b/(b+c)*100}
≪동아일보≫와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 모두에서 등장하는 단어	家, 경제, 계급, 국가, 국민, 노동, 黨, 러시아, 思想, 사회, 세계, 산업, 성공, 시대, 新, 실현, 역사, 운동, 인류, 者, 자유, 전쟁, 정치, 조직, 종교, 主義, 중국, 평등, 프랑스 (29개(=c))	58 {=c/(a+c)*100} 59.18 {=c/(b+c)*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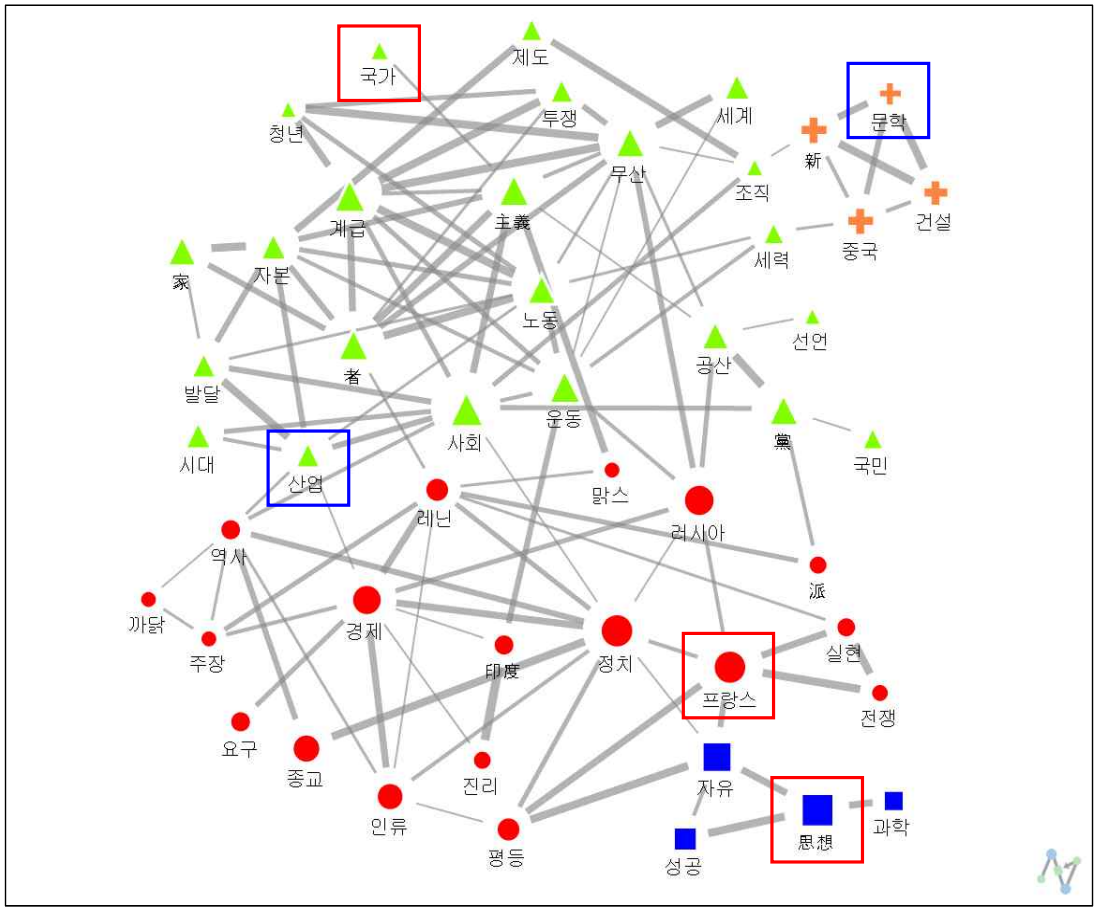
≪동아일보≫와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는 [표 7]의 '공기어 연결망 구성 단어' 항목의 세 번째 칸에 해당하며, 모두 29개이다. 이는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을 구성하는 단어 전체 50개 중에서는 58퍼센트를 차지하며,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의 49개 단어 중에서는 59.18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동아일보≫와 ≪개벽≫이 서로 다른 매체임에도 각각의 연결망에 등장하는 공기어 중 절반 이상이 겹친다는 점에서, 당시 매체와 상관없이 공유되는 '혁명'의 논의 맥락이 존재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55)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했다.

개별 단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커뮤니티 구성에서도 두 공기어 연결망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6]과 [그림 7]을 비교해보면, 구체적인 단어의 구성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연결망 모두 '산업'과 '계급'이 포함된 커뮤니티부터 '러시아'와 '프랑스'가 속한 커뮤니티, '思想'이 포함된 커뮤니티, '중국'이 속한 커뮤니티까지 총 네 개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벽≫에서는 '산업'과 '계급'이 포함된 커뮤니티에 '사회'와 '主義'가 함께 소속되어 있고, ≪동아일보≫에서는 '산업', '계급'과 '사회', '主義'가 별도의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등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커뮤니티의 구성 차원에서는 두 매체의 공기어 연결망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6]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그림 7]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이어서, 1920~1924년 공기어 연결망의 특징을 1906~1910년과 1914~1918년의 공기어 연결망들과 연결해서 마저 살펴보겠다. 앞서 1914~1918년의 연결망에서는 1906~1910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프랑스'와 '思想'의 구도에 더해서 새롭게 '산업' 관련 논의 맥락과 '文壇' 관련 논의 맥락이 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1920~1924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다. ≪개벽≫의 연결망에서는 '프랑스'와 '思想'이 속한 커뮤니티 외에도 '사회', '무산', '계급',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와 '중국', '문학' 관련 커뮤니티가 등장한다. ≪동아일보≫의 연결망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프랑스'와 '思想' 관련 커뮤니티 외에 '산업', '계급', '영국', '종교' 등이 속한 커뮤니티와 '중국', '역사', '국민', '국가' 등이 속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일보≫의 '중국'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단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는다. 다만, '중국'이 등장한 문맥이나 '산업' 커뮤니티에서 '문예'가 등장한 문맥을 확인해보면 이 시기 ≪동아일보≫에도 문학이나 문예 방면에서의 혁신을 요구하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6]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의 공기어 연결망 여섯 개 모두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프랑스', '思想', '국가' 세 개다. 1906~1910년에는 '프랑스'와 '思想'이 '혁명'의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는 앞의 두 단어가 속해있는 커뮤니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1914~1918년부터는 '프랑스'와 '思想'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논의 구도에 더해서 '사회', '文壇', '진보' 등과 관련된 커뮤니티와 '영국', '산업', '계급'이 포함된 커뮤니티가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국가'는 '프랑스'나 '思想'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文壇'이 속한 커뮤니티에 포함된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1920~1924년의 연결망에서도 계속 관찰된다. ≪동아일보≫와 ≪개벽≫의 연결망에서는 구체적인 단어의 구성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프랑스'와 '思想'이 각각 속해있는 커뮤니티 외에 '산업', '계급' 등이 속해있는 커뮤니티와 '중국'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가 등장해서 총 네 개의 커뮤니티로 구성되며, '국가'는 '프랑스'나 '思想'과는 별도의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개벽≫의 연결망에서는 '문학'이 계속 '혁명'의 공기어로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동아일보≫의 연결망에서는 '문학'이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중국'과 '산업' 관련 커뮤니티들의 문맥을 확인해보면 문학 방면에서의 혁신을 요구하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6) '산업' 관련 커뮤니티의 '혁신'이나 '문예'가 등장한 문맥들에서는 조선이 서양문명을 소화해서 신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문학과 산업혁명이 긴절하다는 주장이 발견된다[≪동아일보≫ 1920년 5월 27일「歷史的 事實과 自由의 解放」; ≪동아일보≫ 1921년 6월 17일「社會發展의 階段 文學革新, 産業革命」]. 또한, '중국'이 등장하는 문맥에서는, 중국의 신해혁명이 사상혁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도덕과 구관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정권 교체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확인된다[≪동아일보≫ 1922년 4월 30일「中國廣東의 蓄妾廢止運動에 對하야」].

‘혁명’의 논의 구도가 크게 재편되는 시점을 1914~1918년의 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연결망 구조상에서의 변화와 함께 각 연결망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변화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8]은 시기별로 공기어 연결망을 구성하는 단어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기 간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공기어의 종류와 개수, 공기어들의 유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시기별 공기어 연결망의 공통 공기어와 유지 비율

구분	공통 공기어	유지 비율(%)[57]
1906~1910년 연결망의 단어 중 1914~1918년 연결망에 나타나는 단어들	界, 국가, 목적, 思想, 사업, 영국, 운동, 者, 종교, 프랑스 (10개(=a))	20.83 (=a/1906~1910년 공기어 연결망의 단의 개수*100)
1914~1918년 연결망의 단어 중 1920~1924년 연결망에 나타나는 단어들	건설, 계급, 국가, 까닭, 노동, 理想, 목적, 문학, 思想, 사회, 산업, 세계, 역사, 영국, 운동, 의미, 인류, 者, 제도, 종교, 主義, 프랑스 (22개(=b))	44.89 (=b/1914~1918년 공기어 연결망의 단어 개수*100)

[표 8]의 ‘공통 공기어’ 항목을 보면, 1906~1910년 세 개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한 번이라도 등장한 단어들과 1914~1918년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등장한 단어들 사이에 겹치는 단어는 ‘界, 국가, 목적, 思想, 사업, 영국, 운동, 者, 종교, 프랑스’ 총 10개이다. 1914~1918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등장한 단어들과 1920~1924년 두 개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한 번이라도 등장한 단어들 사이에 중복되는 단어는 ‘건설, 계급, 국가, 까닭, 노동, 理想, 목적, 문학, 思想, 사회, 산업, 세계, 역사, 영국, 운동, 의미, 인류, 者, 제도, 종교, 主義, 프랑스’ 총 22개이다.

[표 8]에서 제시한 ‘유지 비율’은 앞선 시기의 공기어 연결망에 표현된

57)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했다.

단어 중 몇 퍼센트의 단어가 바로 다음 시기의 공기어 연결망에 유지되는지를 계산한 값이다. 1906~1910년의 공기어 연결망 세 개에서 등장한 공기어 중에서 1914~1918년의 공기어 연결망에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의 비율은 20.83(%)이다. 1914~1918년의 공기어 연결망의 단어 중에서 1920~1924년의 연결망에도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의 비율은 44.89(%)이다. 즉, 1906~1910년에 공기어 연결망에 등장한 단어 중 약 20퍼센트가 1914~1918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등장한다면, 1914~1918년 공기어 연결망에서 등장한 단어 중에서는 약 44퍼센트가 1920~1924년의 공기어 연결망에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혁명'의 출현 빈도와 공기어 연결망 구조의 시기별 변화 양상, 공기어 연결망에서 시기별로 단어들이 유지되는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혁명'의 논의 구도가 크게 재편되는 시점은 1914~1918년, 정확히는 1906~1910년과 1914~1918년 사이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1914~1918년과 1920~1924년 사이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가 속한 커뮤니티에 '러시아'가 새로 등장하거나 '산업'이 속한 커뮤니티가 1920년대에 들어서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커지는 등의 변화들이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제시한 지표들에서 1914~1918년에 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혁명'의 논의 맥락에서 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1914~1918년이었다고 봤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는 1914~19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혁명'의 논의 맥락이 변화하고 지속하는 양상을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프랑스'와 '산업' 관련 커뮤니티의 시기별 변화상은 서구 근대 '혁명' 개념의 도입과 사회주의적 '혁명' 용법의 정착 과정을 잘 보여준다. 한편, '思想'과 '文壇'·'문학' 관련 커뮤니티는 당시 지식인들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맥락에서 주로 발화되었다. 이후의 장에서는 '혁명'의 논의 구도를 크게 '프랑스'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 맥락과 '思想'과 '文壇'·'문학'을 중심으로 한 논의 맥락으로 나눠서, 그 시기별 변화상과 해당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회적 배경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二. 근대 '혁명' 개념의 수용과 정치·사회적 용례

1. 1900년대 후반 프랑스혁명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도입

앞의 1장에서는 '혁명'이 출현한 빈도와 공기어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을 근거로, 20세기 초반의 언론 매체들에서 '혁명'이 논의되었던 구도가 1906~1910년과 1914~1918년 사이에 크게 재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시기별·매체별로 구성한 공기어 연결망들의 커뮤니티 분석을 토대로 20세기 초반 '혁명'의 논의 구도를 '프랑스' 관련 맥락, '산업' 관련 맥락, '思想' 관련 맥락, '文壇'·'문학' 관련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프랑스'와 '산업' 관련 맥락의 시기별 변화상은 서구 근대 '혁명' 개념의 도입과 사회주의적 '혁명' 용법의 정착 과정을 잘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먼저 1900년대 후반에 근대 '혁명' 개념이 프랑스혁명과 관련된 문맥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수용되고 정착해가는 양상과 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재일유학생단체 잡지들로 각각 구성한 공기어 연결망들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특징은 '프랑스'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연결망의 한 축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때, 공기어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프랑스'는 실제 문맥에서 '프랑스혁명'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 매체들을 모두 종합해서 계산했을 때, '프랑스'가 '혁명'의 공기어로 등장하는 문맥 52개 중에서 '혁명'이 '프랑스'와 결합하여 '프랑스혁명'과 같은 형태의 복합어로 사용된 문맥은 33개로 63.46퍼센트(%)에 달한다. 이 시기 '혁명'이 사용된 문맥 전체에서 '프랑스혁명'으로 분류되는 용례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적지 않았다.[58]

---

58) 1906~1910년에 '혁명'이 사용된 문맥 전체 181개 중에서 '혁명'이 단독형으로 사용된 경우(53개)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사용된 용례는 '프랑스혁명'이다(33개). 이는 '法蘭西革命', '法國革命' 등의 용례를 모두 '프랑스혁명'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발화되었던 ‘혁명’의 문맥들에서 프랑스혁명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혁명’이 ‘revolution’의 번역어로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혁명’이라는 용례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revolution’의 번역어로서 ‘혁명’은 1880년대부터 신문에서 ‘法國革命亂’, ‘佛國之革命’과 같이 프랑스혁명을 가리키는 용례들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59] 1900년을 전후로 해서 발간된 외국사 교과서나 외국사 단행본들도 마찬가지다.[60] 이처럼 19세기 후반의 한국 사회에서 근대 ‘혁명’ 개념은 프랑스혁명과 같이 외국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용례를 중심으로 수용되고 발화되었다.[61] 1906~1910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프랑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도 그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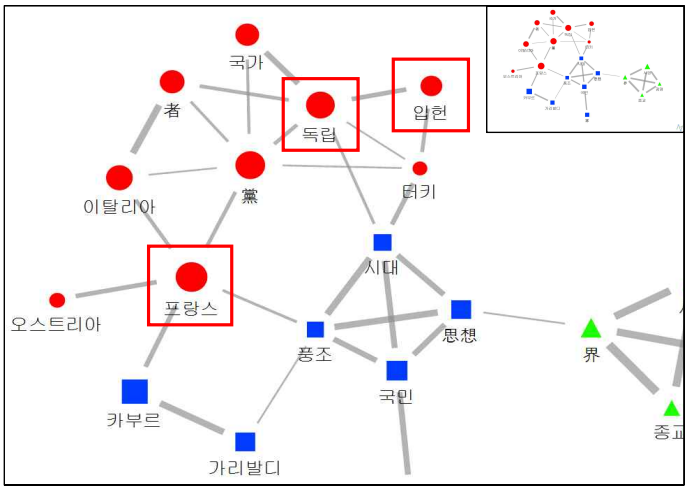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시기에 프랑스혁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발화되었을까? 먼저,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인 [그림 8]을 보면,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부르’, ‘黨’, ‘풍조’와는 직접 링크로 연결된 모습을 보인다. ‘독립’, ‘입헌’ 등과는 직접 연결되진 않았지만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있다. 이 중에서, ‘프랑스’와 직접 링크로 연결된 단어들이 등장한 문맥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讀意大利建國三傑傳」이라는 연재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성신문≫에서 ‘프랑스’가 ‘혁명’의 공기어로 등장한 문맥 총 15개 중 6개, ‘프랑스혁명’이라는 용례가 등장한 문맥 총 9개 중 4개가 모두 이 연재 기사에 있다. 이 기사는 량치차오가 1902년 6월부터 12월까지 ≪新民叢報≫에 연재했던 「意大利建國三傑傳」의 내용을 요약해서 국내에 소개한 것으로, 1906년 12월 18일부터 1906

59) ≪漢城旬報≫의 1884년 2월 27일 기사인 「泰西運輸續稿」에서는 “法國革命亂”이라는 용례로 사용되었고, ≪漢城週報≫의 1886년 4월 26일 기사인 「英京民亂」에서는 “佛國之革命”이라는 용례로 사용되었다.

60) 1896년에 학부에서 펴낸 외국사 교과서였던 ≪萬國略史≫에서는 ‘혁명’이 두 차례에 걸쳐 등장했는데, 하나는 프랑스대혁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1852년 프랑스의 제2 제정 수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황성신문사에서 발행한 ≪美國獨立史≫(1899)와 ≪法國革新戰史≫(1900)에서 ‘혁명’은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혁명을 지칭하면서 사용되었다(이헌미, 2012 앞 논문, 76-119쪽).

61) 이헌미, 2012 앞 논문, 89-119쪽.

년 12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62] 여기에서 프랑스혁명은 이탈리아 건국의 삼걸로 불리는 마치니, 가리발디, 카부르가 활동하던 당시 유럽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등장한다. “빈 회의 3년 후여서 프랑스혁명의 반동력이 크게 일어”난 때라거나, “프랑스 제2혁명”이 일어난 시기라는 것과 같은 서술이다.[63] 공기어 연결망에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부르’, ‘黨’ 등과 링크로 연결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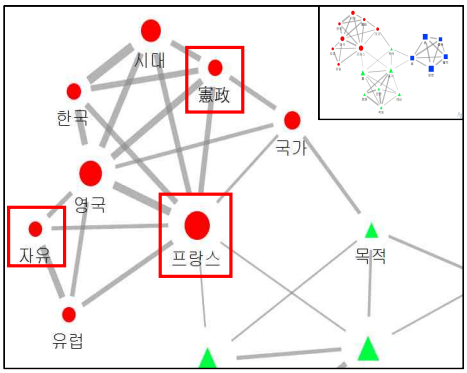
[그림 8]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이어서, ‘입헌’과 ‘독립’이 ‘프랑스’와 같은 커뮤니티에 속하면서 형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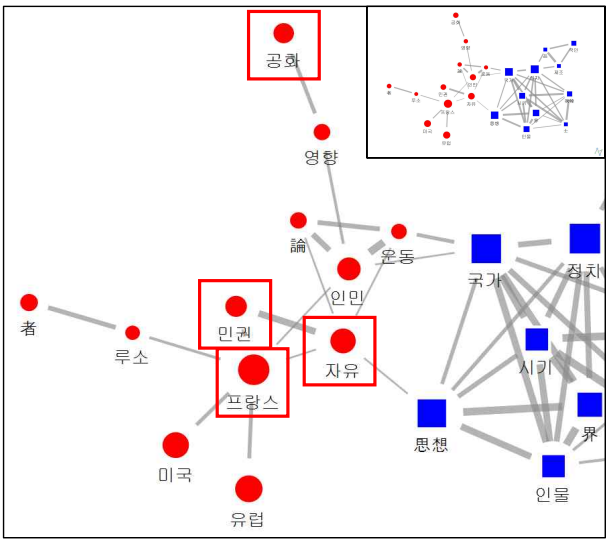
62) 양진오, 2013 앞 논문, 429-430쪽; 김주현, 2009 <<월남망국사>와 <의대리건국3걸전>의 첫 번역자> ≪한국현대문학연구≫ 29.

63) ≪황성신문≫ 1906년 12월 19일 「讀意大利建國三傑傳 (續)」. “瑪志尼ᄂᆞᆫ 一士人子也라 年十三에 入「市立」大學ᄒᆞ니 其時ᄂᆞᆫ 維也納會議後三年이라 **法國革命之反動力**이 大作ᄒᆞ고 奧大利之壓抑이 愈甚ᄒᆞ야 國運이 日以益卑라 每讀前史에 惘然若有所失ᄒᆞ야 惟着深墨喪制之服ᄒᆞ고 以終其身이라ᄒᆞ니 後有叩其故者ᄒᆞᆫ딕 瑪ㅣ曰 吾當時에 亦不知所以然이오 惟在羣兒稠人歡笑雜遝之中에 自覺悲氣沈沈而來襲心ᄒᆞ야 使人哀ᄒᆞ고 使人老ᄒᆞ니 噫嘻라(강조, 밑줄 - 인용자)”; ≪황성신문≫ 1906년 12월 20일 「讀意大利建國三傑傳 (續)」. “千八百三十年에 **法國第二革命**이 起ᄒᆞ야 風潮所簸에 加波拿里가 復揚其燼ᄒᆞ야 蜂起各郡타가 奧國이 移兵勦洗에 瞬息掃定ᄒᆞ고 瑪氏가 偵吏所賣로 繫獄六月에 僅減死一等ᄒᆞ야 放於意大利境外ᄒᆞ니 時年이 二十五라 千八百三十一年에 撒的尼亞前王이 死ᄒᆞ고 弟阿爾拔이 立ᄒᆞ니 阿爾拔은 夙懷恢復之志ᄒᆞ고 曾加盟於加波拿里者라(강조, 밑줄 - 인용자)”

는 ‘혁명’의 논의 맥락을 살펴보겠다. ‘프랑스’는 1907년 8월 31일 ≪황성신문≫의 「又一告暴動者」라는 기사에서 ‘입헌’, ‘독립’과 함께 ‘혁명’의 공기어로 등장했다. 이 논설에서는 “마치니도 하나의 폭동이며, 워싱턴도 하나의 폭동이며, 프랑스의 혁명도 하나의 폭동이며, 러시아의 허무당도 하나의 폭동”이고, “폭동으로써 독립하고, 혁명하며, 정부를 놀라게 해서 입헌을 청구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병은 이러한 유형의 폭동에서 거리가 멀다고 한다.[64] 이처럼, 논설의 필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폭동과 그렇지 않은 폭동을 구분하고 한국의 의병을 후자와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때, ‘독립’과 ‘혁명’, ‘입헌’은 모두 논설의 필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폭동과 연관되어 함께 이해되고 있다.



[그림 9]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그림 10]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이와 비슷하게, ≪대한매일신보≫와 재일유학생단체 잡지에서도 ‘프랑

64) ≪황성신문≫ 1907년 8월 31일「又一告暴動者」. “瑪志尼도 一暴動也며 華盛頓도 一暴動也며 法之**革命**도 一暴動也며 俄之虛無黨도 一暴動也라 彼以暴動으로 有**獨立**者ᄒᆞ며 有**革命**者ᄒᆞ며 有震驚政府에 請求**立憲**者ᄒᆞ니 今此暴動이 何遽不若彼리오 ᄒᆞᄂᆞ니 是果愚之甚也로다(강조, 밑줄 - 인용자)”

스'는 '憲政', '공화', '자유', '민권' 등의 단어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관련 문맥들에서 프랑스혁명은 헌정 세계가 이루어지게 한 발단이자 현재의 문명 각국이 모두 입헌을 갈구하게 된 계기적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1910년 2월 23일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二十世紀新國民 (續)」에서는 한국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수백년 사대주의에 沈醉하던 舊恥를 洗하고 20세기 신국민의 사업을 진작"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다.[65] 논설에서는 현 세계는 자유주의의 세계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三) 此世界ᄂᆞᆫ 自由主義의 世界라
> 自由主義ᄂᆞᆫ 歐洲의 産物이라 第一次**英國大革命**이 凱歌를 奏ᄒᆞ며 第二次**法國大革命**이 大潮를 作하야 此로 以ᄒᆞ야 美國이 獨立ᄒᆞ며 此로 以ᄒᆞ야 德國이 强大하며 此로 以ᄒᆞ야 比利時가 自立하며 此로 以ᄒᆞ야 伊太利가 統一ᄒᆞ며 此로 以ᄒᆞ야 歐洲列邦이 福利를 博ᄒᆞ며 此로 以하야 南美諸國이 自主를 得ᄒᆞᆫ지라 噫라 當時 歐洲天地에 獨步ᄒᆞ던 神聖同盟도 水泡를 化作ᄒᆞ고 自由空氣가 東西에 瀰滿ᄒᆞ야 自由主義를 向ᄒᆞᆫ 者ᄂᆞᆫ 存ᄒᆞ며 自由主義를 順ᄒᆞᆫ 者ᄂᆞᆫ 强홈이 此에 至ᄒᆞ엿도다(강조, 밑줄 - 인용자)"[66]

위의 인용문은 자유주의는 유럽의 산물로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크게 유행해서, 이로 하여 미국이 독립하고 독일이 강대해지고 이탈리아는 통일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유주의를 향한 자는 생존하며, 자유주의를 따른 자는 이처럼 강해진다고 역설한다. 현 세계에서 국가가 생존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따라야 하는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유행하게 된 계기로 이해되는 것이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을 문명이나 부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

---

65)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3일 「二十世紀新國民 (續)」. "然則今日同胞가 如何히 ᄒᆞ면 可히 幾千載東洋一隅에 孤居ᄒᆞ던 舊夢을 破ᄒᆞ고 二十世紀新國民의 理想을 發揮ᄒᆞ며 如何히 ᄒᆞ면 可히 數百年事大主義에 沈醉ᄒᆞ던 舊恥를 洗ᄒᆞ고 二十世紀新國民의 事業을 振作ᄒᆞ야 現世界舞臺上에 名譽旗를 翩翩히 揚홀까 吾儕ᄂᆞᆫ 葑蕘의 一言을 發ᄒᆞ야 國民同胞의게 供ᄒᆞ노라"

66)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3일 「二十世紀新國民 (續)」

하는 사례는 ≪대한매일신보≫에 같은 해 발표된「憲政硏究會의 必要」에서도 발견된다. 해당 논설은 첫 문장에서 "한국 금일은 영국대혁명의 시대가 아니며 프랑스대혁명의 시대가 아닌데 지금 헌정연구회 필요란 문제를 昌함은 실로 齒病에 胃藥을 說함"이 아닐지 질문을 던진 후, 현 세계는 "헌정(입헌정치)세계"라서 "헌정을 행하는 나라는 반드시 흥하며 헌정을 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함"은 어린이도 모두 아는 바라고 답한다.[67] 이어서,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 "故로 **英法革命**이 凱歌를 奏ᄒᆞᆫ 後로 東西列국이 嚬効를 競ᄒᆞ야 畢竟憲政世界를 成ᄒᆞᆫ 後로 文明富强의 勢가 日로 勃興ᄒᆞ며 平等自由의 福이 日로 遍大ᄒᆞᄂᆞᆫ지라 近年에 至ᄒᆞ야 彼千年回敎國의 土耳其가 憲政의 功을 奏ᄒᆞ며 長睡不醒의 波斯가 憲政制度를 奮行ᄒᆞ며 衰頹老大의 淸국도 憲政準備에 方急ᄒᆞ야 悉皆旭日將昇의 勢가 有ᄒᆞ도다(강조, 밑줄 - 인용자)"[68]

위 인용문에서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은 헌정 세계가 이루어지게 한 발단으로, 헌정 세계가 성립한 이후로 문명부강의 세가 날로 발흥하며, 평등자유의 복이 날로 넓어진다고 서술한다. 앞서 살펴본 논설「二十世紀新國民 (續)」과 마찬가지로 위 논설에서도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은 자유주의와 헌정질서가 현 세계의 질서로 자리매김하게 된 발단이자, 문명부강과 평등자유를 이루는 하나의 관문처럼 이해되고 있다.

한편, 재일유학생단체 잡지들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프랑스'는 '인민', '민권', '자유', '루소', '미국', '유럽'과 링크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단어들이 '프랑스'와 함께 '혁명'의 문맥 속에서 공기어로 등장한 맥락을 확인해보면, 각 문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프랑스혁명이 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

---

67)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19일「憲政硏究會의 必要」. "韓國今日은 **英國大革命**의 時代가아니며 **法國大革命**의 時代가 아니어날 今에 憲政硏究會必要란 問題를 唱ᄒᆞᆷ은 實로 齒病에 胃藥을 說ᄒᆞᆷ이아닐싸. 曰不然ᄒᆞ도다 大抵此世界ᄂᆞᆫ 憲政(立憲政治)世界라 憲政을 行ᄒᆞᄂᆞᆫ 國은 必興ᄒᆞ며 憲政을 行치못ᄒᆞᄂᆞᆫ 國은 必亡ᄒᆞᆷ은 童稚도 皆知ᄒᆞᆯ바니 此世界에 在ᄒᆞ야 國家가 一日을 存하면 憲政을 一日에 行ᄒᆞᆯ지며 國家가 二日을 存ᄒᆞ면 憲政을 二日에 行ᄒᆞᆯ지니라(강조, 밑줄 - 인용자)"

68)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19일「憲政硏究會의 必要」

에서는 공통적이다. “18세기의 프랑스대혁명이 인권선언론을 쟁창”한 이후 “현 천하의 문명 각국”이 모두 “입헌을 갈구”하게 되었다거나,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서 수천년간 압제하에 있던 인민이 공화를 외치면서” 그 영향이 전 유럽에 퍼져 “專制에 불평을 외치는 사람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등의 서술이 대표적이다.[69]

특히, ‘자유’는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실제 문맥에서는 “인민자유”나 “민권자유”, “자유평등”과 같은 형태로 등장한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나니 각국 인민이 자국의 혁명적 운동에 광분해서 인민자유론을 외쳤다”라든가, “문명의 발달과 국가의 제도가 극성한 시대인 17세기 이후로 19세기에 달한 유럽 열강의 역사를 보건대” “민권자유의 혁명으로써 국시를 정한 자가 있으니 프랑스가 이에 해당한다”와 같은 서술이다.[70] 여기서 프랑스혁명의 성격과 프랑스혁명이 제기한 가치와 지향점은 “인민자유”와 “민권자유”로 설명된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프랑스혁명을 ‘자유평등’이라는 사상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그 사상을 주창했던 사상가와 문학가에 주목하는 문맥도 여러 차례 발견된다. 1908년에는 ≪대한학회월보≫에서 “18세기 초에 혁신 문학가가 평등자유론을 주창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사상을 두뇌에 주입하게 아니 하였으면 프랑스대혁명이 어찌 유럽 천지를 진동하였으리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71] 해당 논설에서는 “我韓의 형세

---

69) ≪대한흥학보≫ 제4호, 1909년 6월 20일「立憲世界」金振聲. “十八世紀佛國大革命이 忽焉爆裂에 聲振天地ᄒᆞ야 人權宣言論을 爭唱에 全歐列國이 以萬死一生之力으로 渴求立憲者는 現天下文明各國이 皆然也요”; ≪태극학보≫ 제3호, 1906년 10월 24일「歷史譚 (第一回) (寄書)」朴容喜 “有佛國革命ᄒᆞ야 數千年間 壓制下之人民이 猝唱共和에 影響이 播傳에 全歐가 聳動ᄒᆞ야 專制에 不平을 唱道者 四起ᄒᆞ니”

70) ≪태극학보≫ 제5호, 1906년 12월 24일「警察之沿革」張啓澤. “各處 民心이 一層激昂ᄒᆞ야 遂爲佛國之革命ᄒᆞ니 自此로 各國人民이 狂奔於自國革命的運動ᄒᆞ야 呼唱人民自由論이라.”; ≪대한흥학보≫ 제8호, 1909년 12월 20일「民是論」岳裔. “文明의 發達과 國家의 制度ㅣ 極盛ᄒᆞᆫ 時代 十七世紀 以后로 十九世紀에 至ᄒᆞᆫ 歐州 列强의 歷史를 觀컨던 或은 民權自由의 革命으로써 國是를 定ᄒᆞᆫ 者 有ᄒᆞ니 佛蘭西是也오”

71)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년 7월 25일「本會總代 蔡基斗氏 祝辭」. “十八世紀初에 革新 文學家의 平等 自由論을 主唱ᄒᆞ야 一般國民으로 ᄒᆞ야곰 自由思想을 腦髓에 注入치 아니 ᄒᆞ얏스면 佛蘭西 大革命이 웃지 歐洲 天地을 震動ᄒᆞ얏스리

는 從此로 실업이 필요하다 하여 법률 정치 경제 등 학술은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은 이에 대해 반대함을 밝히면서, 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먼저 무력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학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농공상업이 발달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72] 이어서 필자는 일본은 "理想家의 원동력으로 금일 40년 문명이 세계에 혁혁하다"라고 평가하며, 반대로 한국은 "민권이 어떠한 것인지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 결과로 금일 세계상의 무쌍한 外人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평가한다.[73]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사상을 주창했던 사상가로 '루소'가 특히 주목되는데, 공기어 연결망에서 '루소'가 '프랑스'의 인접 노드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74]

이처럼, 세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입헌', '독립', '憲政', '민권', '자유', '공화' 등 정치 체제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단어가 '프랑스'와 함께 '혁명'의 논의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프랑스혁명이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발화되었던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프랑스혁명 사건 자체가 정체의 변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1914~1918년 ≪학지광≫이나 1920~1924년 ≪동아일보≫, ≪개벽≫의 연결망에서는 '자유'를 제외하고는 '입헌'이나 '독립', '공화', '憲政', '민권' 등의 단어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

오."

72)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년 7월 25일「本會總代 蔡基斗氏 祝辭」

73)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년 7월 25일「本會總代 蔡基斗氏 祝辭」

74) ≪대한흥학보≫ 제11호, 1910년 3월 20일「文學의 價値」李寶鏡. "또 近世文明의 一大刺激되는 驚天動地하는 **佛國大革命**의 活劇은 演出홈이 **佛國革新文學者ㅣ룻소- (Roussau)** 의 一枝筆의 力이 안이며 또 北米 南北戰爭時 北部人民의 奴隸愛憐ᄒᆞ는 情을 動케 ᄒᆞ야 激戰數年에 多數奴隸로 하여곰 自由에 歡樂케 ᄒᆞᆫ 者 스토-, ᄆᆞᆫ소터 氏 等 文學者의 力이 안인가.(강조, 밑줄 - 인용자)". 한편, ≪대한흥학보≫ 제11호, 1910년 3월 20일「文學의 價値」의 사례가 '혁명', '프랑스', '루소'가 한 문맥('혁명'의 앞뒤 20음절) 속에 모두 등장하는 경우라면, '루소'가 '혁명'의 앞뒤 20글자 안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의 사례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대한흥학보≫ 제5호, 1909년 7월 20일「破壞的 時代의 精神을 論홈」李承瑾. "第二의 派는 **佛國大革命**이 是也라. 當時 **自由平等**의 新思想으로 階級을 打破ᄒᆞ고 貴族僧侶의 跋扈를 制裁ᄒᆞ야 其影響을 全世界에 震動케ᄒᆞᆫ 者는 **루-쇼** 一個人의 主唱ᄒᆞᆫ 精神이 卽 一時代의 要求에 應ᄒᆞ야 破壞ᄒᆞᆫ 것이오(강조, 밑줄 - 인용자)"

한 점에서, 1906~1910년에 이 단어들이 단순히 프랑스혁명과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 프랑스혁명을 이해하던 관점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화된 것이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혁명'의 문맥을 다시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혁명'이 '입헌', '공화', '민권', '자유'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된 문맥의 앞, 뒤에서 대체로 '문명'도 함께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프랑스혁명은 헌정 세계가 이루어지게 한 발단이며 헌정 세계가 성립한 이후로 문명부강의 세가 날로 발흥한다는 서술이나, 프랑스에서는 자유평등사상이 국민 사이에 먼저 퍼져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일본은 이상가의 원동력으로 문명이 세계에 혁혁한데, 한국에서는 민권이 어떠한 것인지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 결과로 지금 외세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대한학회월보≫에서의 논의가 대표적인 예다.[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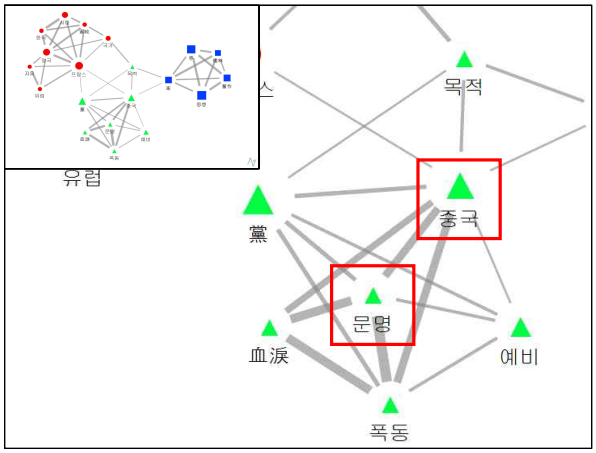
≪황성신문≫에서 프랑스혁명 관련 논의 맥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讀意大利建國三傑傳」의 경우에도, 량치차오의 「意大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한 목적이 일제에 의해 한국이 '보호국'이 된 상황에서 국가 존망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모범으로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과 건국 과정을 소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과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6] 또한, ≪대한매일신보≫에서만 등장하는 '중국' 관련 커뮤니티도 중국의 혁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혁명이 "문명으로 가는 유신풍조"를 형성한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앞서 살펴본 프랑스혁명 관련 논의 맥락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77]

---

75)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3일 「二十世紀新國民 (續)」;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19일 「憲政硏究會의 必要」;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년 7월 25일 「本會總代 蔡基斗氏 祝辭」

76) 김수자, 2014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 번역 목적과 '영웅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44-45쪽.

77)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1일 「淸國立憲問題에 對ᄒᆞᆫ 所感」



[그림 11]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중국' 관련 커뮤니티

이처럼 1906~1910년에 프랑스혁명은 한국이 문명부강을 달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던 '입헌', '공화', '민권', '자유' 등의 단어들과 연관되어 이해되었다.[78] 개항 이후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과 조선 내부의 문제점들로 인해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은 당시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고,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문명의 도입과 실현이 이러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1905년 한국이 반식민지 상황이 되자 서양의 문명을 수용해서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식인층 사이에 더욱 널리 확산했다.[79] 1906~1910년에 프랑스혁명이 '문명과 부강의 달성'이라

78) 이 시기 재일유학생들이 보였던 입헌정체와 프랑스혁명을 향한 관심이 문명부강의 국가건설이라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은 일본 유학생의 근대 사회과학 수용과정을 입헌정치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프랑스혁명이나 입헌정체에 관련된 이들의 글에서 인민권리나 민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긴 하지만, 당시 유학생들이 입헌정체의 핵심적 의의로 파악했던 것은 인민의 정치참여나 권리보다는 문명부강 국가건설이었다[이태훈, 2012 <한말 일본 유학 지식인의 '근대 사회과학' 수용과정과 특징 - '정치'에 대한 인식과 '입헌정치론'을 중심으로> ≪梨花史學硏究≫ 44, 81-88쪽]. 이러한 인식은 한말 민권론을 분석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권 종속형 민권론'과도 비슷한 맥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김종준, 2012 <한말 '민권' 용례와 분기 양상> ≪歷史敎育≫ 121, 153-162쪽].

79) 권태억, 2014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1904~1919)≫, 서울대학교출판

는 당시 한국 지식인들의 관심사와 맞물리면서 '혁명' 개념의 논의 맥락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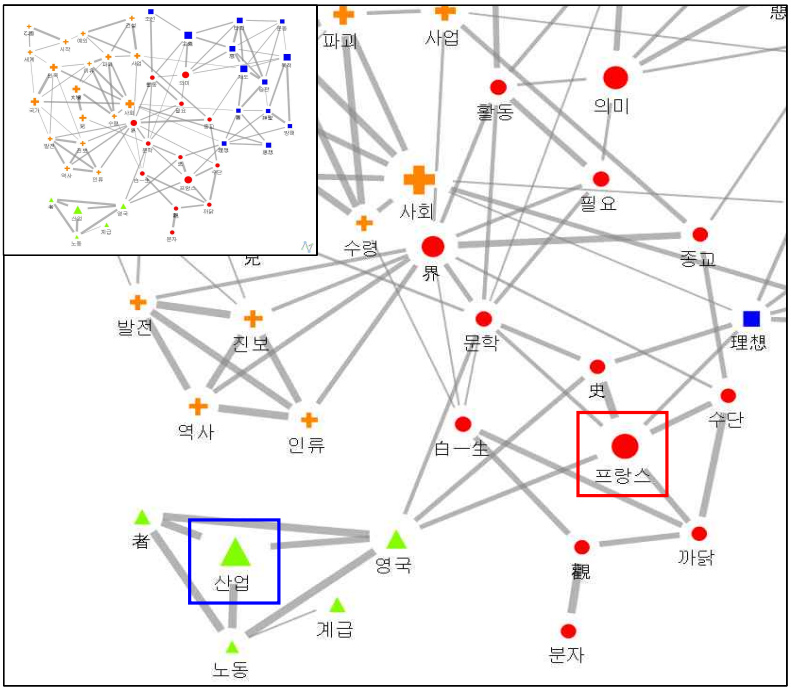
문화원, 120-123쪽.

2. 1910년대~1920년대 전반 사회주의적 용법의 정착

1906~1910년 언론 매체의 논설 속에서는 '혁명'으로 명명되었던 외국 사건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이 주로 프랑스혁명과 그로 인한 정치 체제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1910년대~1920년대 전반에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하고, 러시아혁명을 향한 관심 속에서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구분하는 용법이 정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1914~1918년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이 당시 지식인들의 어떠한 사상적 동향 속에서 제기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 등장하는 '프랑스'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이 1920년을 전후로 변화하는 양상과 이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 수용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914~1918년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산업'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겠다. '산업'은 1914~1918년에 '혁명'과 함께 가장 자주 등장한 공기어로, 이 시기 '혁명'의 논의 맥락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산업'이 '혁명'의 공기어로 등장한 문맥 총 15개 중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용례로 쓰인 문맥은 14개이다. 즉, 연결망에서 '산업'으로 표현된 노드는 대체로 '산업혁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10년대 '혁명' 개념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산업혁명을 종교개혁, 프랑스혁명과 함께 묶어서 문명, 발전, 진보의 맥락에서 '혁명'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루거나,[80] '과학계의 혁명'과 유사한 사례로 묶어서 다뤘기 때문에,[81] 사회주의와 긴밀하게 연관해서 이해하진 않았다.

80) 권보드래, 2015 앞 논문, 69-70쪽.
81) 이만영, 2018 앞 논문, 115-116쪽.



[그림 12]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부분 확대도 - '산업'과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지광≫의 연결망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이해와는 조금 다르게, '산업'이 '노동', '者'와 직접 연결이 되고, '노동'은 '계급'과 연결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연결망에서 '노동'과 '者'가 '산업'과 연결된 형태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두 단어가 '산업'과 같은 문맥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연결망에 함께 등장하지 않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동'과 '者'가 '산업'과 같이 등장한 문맥을 확인해보면, 실제 문맥에서는 '노동자'로 등장하는데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노동'과 '者'로 분리되어서 연결망에서는 '노동'과 '者'가 '산업'과 연결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학지광≫에서 '혁명'이 '산업', '노동', '者'와 함께 등장한 문맥을 확인해보면, 관련 논설을 다음 세 개로 좁힐 수 있다. 1916년 9월 ≪학지광≫ 10호에 실린 김철수(金錣洙)의 「勞働者에 關하야」, 1917년 7월호에 실린 김양수(金良洙)의 「社會問題에 對한 觀念」, 1917년 11월에 발표된 노익근(盧翼近)의 「現下의 經濟界와 及其 今後 變遷에 對하여」이다. 김양수

와 노익근의 글에서는 ‘혁명’ 문맥 중에서 ‘노동’과 ‘계급’이 함께 등장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또한, 이들 논설 속에서 ‘혁명’의 공기어로 등장하는 ‘산업’은 실제 문맥에서는 모두 ‘산업혁명’이라는 용례로 사용되었다.[82]

특히, 김철수와 김양수의 논설에서 ‘산업혁명’은 주로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차원에서 발화되었다. 예를 들어, 1916년 김철수의 논설에서는 “노동문제라 하는 것은 18세기 말엽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결과, 제1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불평, 제2는 노동자의 자각, 이 두 가지가 병존하야 비로소 생기었는 것이로다”라고 하며, 산업혁명을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해서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한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83] 이러한 관점은 1917년 김양수의 논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양수는 ‘사회문제’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문제란 일정한 연혁을 가진 명사라 환원하면 歐洲 산업혁명 이후 기업가대 노동자 간의 계급적 투쟁에 발단하여 양자 간의 對人價値에 관한 신계약을 체결하랴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지칭”하며, “종전의 예속적 지위에서 모든 굴복과 검속을 脫離하랴는 경제적 약자의 자각이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고창하는 시대적 정신”의 표출이라고 설명한다.[84]

요컨대, 김철수와 김양수의 논설은 모두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불평등과 노동자의 자각으로 인한 계급적 투쟁에서 발단하여 노동문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학지광≫에는 산업혁명을 프랑스혁명, 종교개혁과 묶어서 “금일 문명의 산모”이자 “발전의 기초”, “진보의 수단”이라고 보는 논의나, 현세 문명의 원리를 ‘강력주의’로 파악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교육과 함께 산업혁명을 제시하는 논의도 존재했다.[85]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산업혁명’ 용례는 이러한 기사들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앞

82) ≪학지광≫ 제10호, 1916년 9월 4일「勞働者에 關하야」金鎭洙; ≪학지광≫ 제13호, 1917년 7월 19일「社會問題에 對한 觀念」金良洙; ≪학지광≫ 제14호, 1917년 11월 20일「現下의 經濟界와 及其 今後 變遷에 對하여」盧翼近
83) ≪학지광≫ 제10호, 1916년 9월 4일「勞働者에 關하야」金鎭洙
84) ≪학지광≫ 제13호, 1917년 7월 19일「社會問題에 對한 觀念」金良洙
85) ≪학지광≫ 제6호, 1915년 7월 23일「出陣하는 勇士諸君에게」金利埈; ≪학지광≫ 제6호, 1915년 7월 23일「强力主義와 朝鮮靑年」玄相允

서 살펴본 김철수나 김양수의 글은 산업혁명을 사회문제나 노동문제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산업혁명을 문명이나 진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다른 논의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에 대한 ≪학지광≫ 필자들의 인식 차이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 한 요인으로 김철수와 김양수가 1916년 봄에 新亞同盟黨의 결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신아동맹당은 1916년에 김철수, 장덕수(張德秀), 정노식(鄭魯湜), 김명식(金明植), 김양수 등의 재일유학생들과 중국, 대만 유학생들이 함께 일본 동경에서 조직한 비밀결사로, 아시아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새 아시아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중에서 김철수와 장덕수는 신아동맹당이 조직될 때 자신들의 이념과 정체성을 사회주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본 사회주의자인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의 저작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었다.[86]

또한, 신아동맹당에 참여한 이들은 다른 재일유학생들이 당시 주목하지 않던 노동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고도 평가된다. 당시 재일유학생들이 노동문제 자체에 무관심했다면, 이들은 노동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한 후, 당시 조선 노동자의 현실을 고찰하고 이들을 구제할 방안으로 간이야학교 설립이나 노동소개소 설치, 신용조합 및 판매조합을 조직할 것 등을 제시했다.[87] 김철수와 김양수가 ≪학지광≫에 위에서 살펴본 논설들을 발표한 시점은 각각 1916년 9월과 1917년 7월로, 신아동맹당 결성에 참여한 이후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아동맹당의 조직과 활동, 사회주의 관련 저서의 탐독과 노동문제를 향한 관심 등이 이들이 산업혁명을 사회문제 및 노동문제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 등장한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실제 문맥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문학', '史'는 1914년 최두선(崔斗善)의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라는 글에서 '프랑스'와 함께 등

86) 박종린, 2007 앞 논문, 11-27쪽; 임경석 2003 앞 책, 39-40쪽.
87) 박종린, 2007 앞 논문, 22-27쪽.

장한다. 문학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주제로 한 본 글에서 “佛國革命史의 가치를 영국 文學史上”에서 누가 무시하겠는가, “칼라일의 佛國革命史와 같은 것은 空想도 아니오 理想도 아니오 정확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는 문맥에서 ‘프랑스’는 ‘문학’, ‘理想’과 함께 ‘혁명’의 공기어로 등장한다.[88] 다만, 위의 두 문맥은 ‘혁명’이나 ‘프랑스혁명’에 대한 필자의 가치 평가는 담고 있지 않아서, ‘혁명’ 개념 자체가 사용된 의미를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다.

‘프랑스’가 등장한 다른 문맥들을 마저 확인해보면, 1915년 최승구(崔承九)의 논설 「너를 혁명하라! Revolutionize yourself!」는 ‘혁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英佛의 전일 혁명이 혁명인 것은 명확”하며 “혁명이라 하면 일반으로” 영국의 청교도혁명이나 18세기 프랑스혁명을 떠올린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혁명’을 “발전”, “진보”로 표현하고, “혁명이 있으므로 역사적 운동이 있는 바”라고 주장한다.[89] 1915년 장덕수의 논설 「意志의 躍動」에서도 “역사는 연속적이니 과거는 현재에 투입”하는 사례로, “불국 혁명이 있었음으로 20세기 문명의 꽃이 찬란히 핀 것이오, 종교개혁이 있었음으로 신교도의 세력이 지금 천하에 팽창한 것이로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90] 이처럼 ≪학지광≫에서 프랑스혁명은 문명과 발전, 진보와 함께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1906~1910년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의 논의 맥락과도 연속성을 보이긴 하지만, 이전처럼 프랑스혁명을 ‘입헌’, ‘憲政’과 같이 정치 체제의 변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와는 함께 쓰진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1914~1918년 ≪학지광≫에서는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프랑스혁명이 여전히 근대 문명과 발전, 진보를 달성하는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이전 시기와는 달리 구체적인 정체 변혁과 관련된 용어와는 함께 쓰이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 시기부터 ‘혁명’의 공기어 연결망에 ‘산업’ 관련 논의 맥락이 새롭게 등장하고 실제 문맥에서

88) ≪학지광≫ 제3호, 1914년 12월 3일 「文學의 意義에 關하여」 崔斗善
89) ≪학지광≫ 제5호, 1915년 5월 2일 「너를 혁명하라! Revolutionize yourself!」 崔承九
90) ≪학지광≫ 제5호, 1915년 5월 2일 「意志의 躍動」 張德秀

‘산업혁명’이라는 용례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산업혁명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과 노동문제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논의들은 당시 재일유학생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11년에 중국에서 발발한 신해혁명이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를 고려했을 때,[91] ‘중국’처럼 신해혁명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들이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특이하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당시에 신해혁명이 ‘혁명’이 아니라 다른 기표로 주로 지칭되었을 가능성이다. 중국의 ‘혁명’ 개념을 연구한 진관타오와 류칭펑에 따르면, 신해혁명이 발발했을 당시 중국의 신문과 잡지에서는 이 사건을 주로 ‘武昌興師’라고 불렀으며, ‘신해혁명’이 상용어가 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였다.[92] 다만, 당시에 미주 지역에서 발간된 ≪신한민보≫에서는 신해혁명을 ‘청국혁명’이나 ‘중국혁명’으로 명확히 지칭하는 기사가 발견되고 있고,[93] ≪학지광≫에서는 ‘武昌’이나 ‘支那’ 등 다른 기표로 검색을 해봐도 신해혁명 관련 기사가 잘 발견되지 않아서 단지 기표의 문제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먼저, 제1혁명으로 불리는 1911년의 武昌起義와 제2혁명으로 불리는 1913년의 討袁運動[94]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인 1914년부터 ≪학지광≫이 발간되어서 신해혁명 직후 한국 지식인들이 보였던 관심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1910년대 ≪신한민보≫ 사설에서도 ‘혁명’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1911년 10월부터 1913년 10월까지는 모두 신해혁명과 관련해서

91) 배경한, 2003 <中國亡命시기(1910-1925) 朴殷植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香江雜誌』,『國是報』,『四民報』의 분석> ≪東方學志≫ 121; 배경한, 2015 <한국독립운동과 辛亥革命> ≪한국근현대사연구≫ 75.
92) 진관타오·류칭펑 저(양일모 외 역), 2010 앞 책, 486-487쪽.
93) ≪신한민보≫ 1911년 10월 18일「청국혁명에 대하야」; ≪신한민보≫ 1911년 11월 15일「(論說) 中國革命의 大勢」
94) 배경한, 2015 앞 논문, 76-77쪽.

기사가 추출된다. 반면에, 1913년 10월 이후에는 '혁명'으로 검색된 사설이 한 건도 없는 점이 눈에 띈다.[95] 1914년에는 신해혁명의 동력이 식으면서 한국 지식인들의 글 속에서도 신해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학지광≫ 매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학지광≫의 편집부는 일본 당국의 검열로 인해 언론, 학술, 문예 등으로 원고의 주제를 한정하고 시사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글은 받지 않는다는 점을 투고 시 주의사항으로 환기한 바 있다.[96] 1917년 러시아혁명 발발 직후에도 ≪학지광≫에서는 '혁명'이 러시아혁명과 관련된 맥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데, 신해혁명 또한 러시아혁명의 경우와 비슷하게 시사나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싣지 않는 ≪학지광≫의 매체적 성격으로 인해 논설 속에서 잘 언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해혁명 발발 직후 ≪신한민보≫의 사설에서는 신해혁명을 "중국혁명"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본과 같은 나라는 소위 헌법이 인민의

---

95) ≪신한민보≫ 1911년 10월 18일「청국혁명에 대하야」; ≪신한민보≫ 1911년 11월 15일「(論說) 中國革命의 大勢」; ≪신한민보≫ 1912년 1월 15일「신듕국 건셜문뎨」; ≪신한민보≫ 1913년 10월 17일「(論說) 第二革命終의 局 (東)」. 이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에서 키워드 검색란에 '혁명'을 넣고 검색한 결과이다(검색일 : 2022.12.18.). 이러한 상황은 비슷한 시기 ≪매일신보≫의 사설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1910년대 ≪매일신보≫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란에 '혁명'을 검색하면 총 11건의 사설이 검색되는데, 그중 1건이 1911년에, 5건이 1912년에, 2건이 1915년에, 3건이 1918년에 게재되었다. 그중 1911년과 1912년의 사설, 1915년 1월에 실린 사설은 전부 신해혁명과 관련해서 실린 것이었다면, 1915년 3월에 실린 사설 1건과 1918년 기사 3건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검색일 : 2022.12.24.). 검색된 기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보≫ 1911년 10월 20일「논설: 淸國의 현상」; ≪매일신보≫ 1912년 1월 18일「사설: 支那의 영토」; ≪매일신보≫ 1912년 2월 9일「사설: 支那革命과 墨國」; ≪매일신보≫ 1912년 2월 15일「사설: 淸帝 退位의 發諭」; ≪매일신보≫ 1912년 3월 20일「사설: 支那動亂과 朝鮮」; ≪매일신보≫ 1912년 11월 24일「사설: 朝鮮과 滿洲」; ≪매일신보≫ 1915년 1월 16일「사설: 支那」; ≪매일신보≫ 1915년 3월 25일「사설: 日支交涉과 조선(중)」; ≪매일신보≫ 1918년 1월 20일「사설: 亞細亞振興의 機運(1); 現戰局의 大勢」; ≪매일신보≫ 1918년 1월 22일「사설: 亞細亞振興의 機運(2); 亞細亞民族覺醒의 機」; ≪매일신보≫ 1918년 12월 3일「사설: 강화의 전도와 독일의 장래」

96) 이경훈, 2004 <『學之光』의 매체적 특성과 日本의 영향 1 - 『學之光』의 주변> ≪大東文化硏究≫ 48, 106-107쪽.

공권을 유린하며 더구나 청국은 삼백년 학정이 거의 중국□을 □□하였거늘 이제 중국인이 □번 뛰어일어나 신성한 공화국기를 날리며 동양을 위하여 호기를(□는 판독 불가 - 인용자)"이라고 하며 중국의 혁명 정세를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신해혁명과 공화정 수립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97] 또한, 한국 지식인들의 중국 망명은 1911년 우창기의의 성공 소식이 알려진 후 본격화되었으며, 이들은 중국 혁명파 인사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98]

이를 고려했을 때, 1914~1918년 ≪학지광≫의 기사에서는 신해혁명의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당시 지식인들이 '혁명' 개념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신해혁명은 당대의 사건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신해혁명의 영향을 한국 지식인들의 텍스트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의 연구가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 문제는 ≪학지광≫에서 신해혁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시기 ≪매일신보≫와 ≪신한민보≫ 사설에서 신해혁명을 보도한 동향을 확인한 정도로만 하고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99]

---

97) ≪신한민보≫ 1911년 11월 15일「(論說) 中國革命의 大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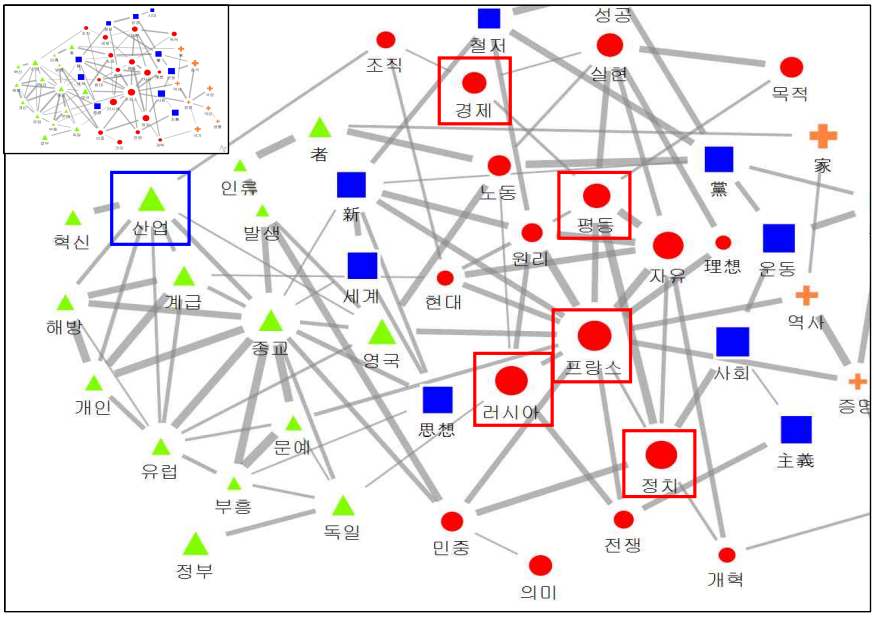
98) 배경한, 1999 <上海·南京지역의 初期(1911-1913) 韓人亡命者들과 辛亥革命 - 武昌起義·討袁運動에의 參與와 孫文·革命派人士들과의 交流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67, 66-67쪽.

99) 대표적으로, 1910년대에 중국에서 망명 중이었던 박은식과 신채호는 1910년 이후에도 글에서 '혁명' 개념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정황상 신해혁명의 영향을 추정해볼 수는 있다. 특히 박은식이 1911년에 저술한 ≪夢拜金太祖≫에서는 루소의 민약론이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을 만들었고, 크롬웰은 헌법을 제정했고 마틴 루터는 종교혁명의 공을 이룩했으나, 조선에서는 열혈아가 없어서 "정치혁명"도 하지 못하고 "학술혁명"도 하지 못했다는 서술에서 '혁명'이 등장한다[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 ≪백암박은식전집≫Ⅳ, 동방미디어, 195쪽]. 또한, 같은 해에 집필한 ≪明臨答夫傳≫과 ≪泉蓋蘇文傳≫에서는 '혁명'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명림답부와 천개소문을 크롬웰에 비견했다는 점에서 당시 박은식이 청교도혁명을 인식하던 관점이 명립답부와 천개소문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고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 앞 책, 268-269, 342쪽]. 이와 비슷하게, 신채호가 1910년대에 저술했다고 알려진 ≪朝鮮上古文化史≫에서는 명림답부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혁명' 개념을 활용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2007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41, 374쪽]. 신채호는 1900년대 후반에도 ≪伊太利建國三傑傳≫이나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東國巨傑 崔都統」에서도 '혁명' 개념을 꾸준히 사용했었다[양진오, 2013 앞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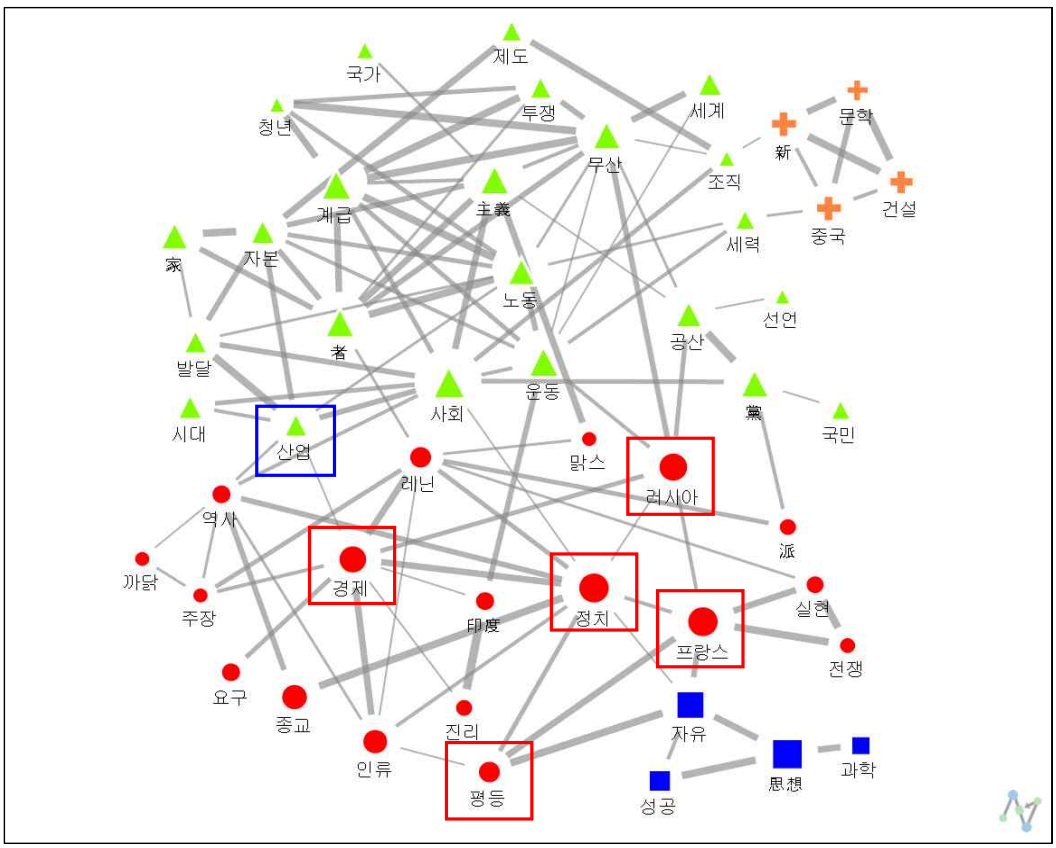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지광≫에서 나타나는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관련 논의 맥락은 1920~1924년 ≪동아일보≫와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을까? 두 매체의 연결망에서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는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두 연결망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연결망 모두에서 '프랑스'는 '러시아', '정치', '경제', '평등'과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이는 당시 한국 지식인들이 3·1운동 이후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를 민족 해방의 한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표하게 되면서, 프랑스혁명을 러시아혁명과 함께 발화하고 그 역사적 성격이나 특징을 비교하는 문맥이 많아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100]

노관범, 2016 앞 책, 320-371쪽 참조]. 또한, 신채호가 1920년대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朝鮮史(朝鮮上古史)≫나 1923년 1월에 작성한 「朝鮮革命宣言」에서도 '혁명' 개념은 계속 중요한 키워드로 활용되었다[박걸순, 2008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의 의의와 과제 - 「역사편」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2쪽]. 특히 ≪朝鮮史(朝鮮上古史)≫에서는 '혁명'이 총 33회 등장한다[이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에 데이터베이스화된 ≪朝鮮史≫에 '革命'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이다(검색일 : 2023.02.05.). 해당 자료는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에서 2007년에 펴낸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의 새 활자본 ≪朝鮮史≫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다만, 프랑스혁명과 영국혁명에 대한 소개는 이미 1900년대 후반부터 신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해당 글들에서 '혁명' 개념을 사용하면서 신해혁명을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위 사료들만을 대상으로는 공화혁명이자 민족혁명으로서의 신해혁명이 당시 지식인들의 '혁명' 개념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00) 임경석, 2003 앞 책, 40-48쪽; 최은혜는 볼셰비키에 의한 러시아혁명이 1917년에 발발하긴 했지만, 이후 1918년 볼셰비키가 러시아 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1919년 6월 3차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조직되기까지 공산주의 정권의 성립과 국제주의의 확립은 아직 과정 중에 있었으며, 1920년 9월 바쿠에서 제1회 동방피억압민족대회가 개최되면서 비로소 레닌적 민족주의가 세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최은혜, 2021 앞 논문, 327-338쪽].



[그림 13]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산업'과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



[그림 14]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예컨대, 1920년 6월 12일의 ≪동아일보≫ 사설「對露通商問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 "露國革命는 佛國革命原理의 一層 徹底한 者니 卽 自由와 平等이라 佛國의 革命은 政治上에 自由와 平等을 實現하기를 目的하얏스나 露國革命은 經濟的 自由와 平等이 無하면 政治의 自由와 平等은 定虛한 一片形式에 不過한다 하야 社會革命을 企圖한 것이로다"[101]

위의 인용문에서 러시아혁명은 프랑스혁명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을 일층 철저하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프랑스혁명이 정치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러시아혁명은 '경제적 자유와 평등이 없으면 정치의 자유와 평등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사회혁명'을 기도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전반에 ≪동아일보≫에서 프랑스혁명은 정치상의 자유와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정치혁명', 러시아혁명은 '정치혁명'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은 경제상의 자유와 평등을 목적으로 한 '사회혁명'이라는 구분과 도식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개벽≫에서는 ≪동아일보≫에서 등장하는 '사회혁명'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경제적 혁명', '경제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23년 7월 1일 ≪개벽≫ 37호에 실린 논설「無宗教라야 有宗教」에서는 러시아혁명을 "경제적 혁명"이라고 지칭하며, "러시아혁명과 如한 것은 역대의 혁명과 其趣가 異하야 순수히 無産者 對 資本閥에 대한 이해 단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102] 이외에도 1923년 2월 ≪개벽≫ 32호의 논설「爭鬪의 世界로부터 扶助의 世界에」에서도 프랑스혁명을 "정치적 혁명군"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을 "경제적 혁명군"으로 묘사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103]

이처럼 '정치혁명'과 '사회혁명(경제혁명)'을 구분하는 용법은 프랑스의

---

101) ≪동아일보≫ 1920년 6월 12일「對露通商問題」
102) ≪개벽≫ 제37호, 1923년 7월 1일「無宗教라야 有宗教」李喆
103) ≪개벽≫ 제32호, 1923년 2월 1일「爭鬪의 世界로부터 扶助의 世界에」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2월 혁명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과 같은 사회문제가 도시 노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혁명 이후에는 '혁명' 개념이 정치적 권리나 법률 등의 정치적 범주를 넘어서 사회문제의 차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사회적 혁명'의 개념이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1848년 2월에 발표된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다른 글에서 마르크스는 '정치혁명'을 '부르주아 사회의 혁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2월 혁명 이후에 '사회적 혁명' 및 '사회혁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프랑스대혁명'이라고도 불리는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정치적' 혹은 '부르주아적' 혁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한적인 성격의 혁명으로 이해되었다.[104]

1920년대 전반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사회혁명(경제혁명)'을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정치혁명'을 프랑스혁명의 제한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자주 사용했던 것도 이러한 사회주의적 용법의 영향 속에서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프랑스'가 속해있는 커뮤니티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공기어 연결망 전체에서 계속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논의의 중심은 '프랑스혁명과 그로 인한 정치 체제의 변혁'에서 '러시아혁명과 경제적·사회적 변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1906~1910년에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의 논의 중심이 '입헌', '憲政', '민권', '자유', '공화'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정치 체제의 변혁에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한편, 1920~1924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산업' 관련 커뮤니티와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의 노드들 사이에 연결 관계가 1914~1918년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보다 더 활발해진 점도 주목된다. 이 시기에 '프랑스' 관련 커뮤니티에 '러시아'가 등장하고,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이 '정치혁명'과 '사회혁명(경제혁명)'으로 인식되면서,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었던 '산업혁명'도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21년 6월 17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 「社會發展의

104) 길윤미·문경자, 2014 <'혁명'의 개념 변화에 관한 고찰 -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2, 14-17쪽.

階段 文學革新, 産業革命」에서는 “사회의 진화한 역사는 반드시 시대의 계단”이 존재한다고 하며, “사회발전의 계단”을 소개한다. “서양에 있어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혁신문학이 발달하야 재래의 사회적 계급을 타파하였으나 다시 신계급이 出來하야 계급적 투쟁을 演하고 사회적 혁명을 계속하되 동양에는 혁신문학이 발달이 되지 아니하고 산업혁명이 전체에 亘하야 실시되지 아니하얏스며 또 과거의 계급사상이 희박하얏슴으로 아직까지 계급투쟁이 사회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한다.[105]

이어서, 현재 조선의 상황을 설명하며, “目下의 조선 現狀은 경제적 생산과 분배로 인하야 계급이 分野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勞資 양 계급이 대립하는 것은 경제발달로 인하야 면치 못할 사실일 뿐 아니라 진실한 인류의 해방이 이로 인하야 成할 줄로” 믿는다고 말하며, 조선 사회에 조속히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문학을 唱하고 산업혁명을 行치 아니”하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106] 즉, 조선 사회에서의 ‘사회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발달을 이루고 이를 통해 계급 분화가 발생하게 해서 ‘사회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14~1918년에 산업혁명이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 갈등과 사회문제 및 노동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시기에는 사회혁명이 발생하기 위해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한 단계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산업’이 ‘무산’, ‘투쟁’, ‘계급’, ‘노동’, ‘사회’ 등의 단어와 같은 커뮤니티에 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이 속해있는 커뮤니티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연결망 전체에서도 중앙 윗부분을 차지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학지광≫에서 ‘산업’ 관련 커뮤니티가 가장 아랫부분에 ‘영국’, ‘노동’, ‘계급’, ‘者’만을 포함하는 소규모 커뮤니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산업’이 링크로 연결된 ‘발달’, ‘자본’,

105) ≪동아일보≫ 1921년 6월 17일「社會發展의 階段 文學革新, 産業革命」
106) ≪동아일보≫ 1921년 6월 17일「社會發展의 階段 文學革新, 産業革命」

‘사회’와 함께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맥은 1921년 6월 ≪개벽≫ 12호에 실린 「社會運動의 歷史的 觀察과 現代社會運動의 一大進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운동의 진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는 취지의 이 논설에서는 ‘산업혁명’을 “자본가와 노동자를 계급적으로 분립케 하엿고 결과는 현대 사회운동의 新起에 終하엿다”라고 이해한다.[107] 이러한 관점은 앞서 보았던 ≪학지광≫에서의 김철수와 김양수의 인식과 거의 비슷하다.

이어서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근래의 사회운동을 “사회개량주의”와 “사회혁명주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이때 “사회혁명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革命산지카리쯤”을 의미하며 “사회조직제도를 전부 파괴하야 순전한 신조직을 목적하는 과격적이며 혁명적인” 방식의 사회운동이라고 소개된다.[108] 1914~1918년의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 산업혁명을 노동문제와 사회문제의 시각에서 재인식하는 정도로 표현이 되었다면, 1920년대 전반 ≪개벽≫에서는 산업혁명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사회주의’, ‘사회혁명주의’에 대한 소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먼저 살펴보았던 ≪동아일보≫에서의 산업혁명 논의와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요컨대, 1906~1910년에는 프랑스혁명이 근대 ‘혁명’의 전형으로서 ‘혁명’ 개념의 수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1914~1918년부터는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함께 ‘산업혁명’이 사회문제 및 노동문제의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발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산업혁명 이해는 비슷한 시기인 1922년 12월에 발간된 ≪現代新語釋義≫의 ‘산업혁명’ 항목에도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09] 아울러, 1920년대 전반부터는

---

107) ≪개벽≫ 제12호, 1921년 6월 1일 「社會運動의 歷史的 觀察과 現代社會運動의 一大進展」 SWJ生

108) ≪개벽≫ 제12호, 1921년 6월 1일 「社會運動의 歷史的 觀察과 現代社會運動의 一大進展」 SWJ生

109) 한림과학원 편, 2010 ≪한국 근대 신어 사전 - 現代新語釋義 · 新語事典≫, 선인, 51, 327-328쪽. “[産業革命] 十八世紀의 末로부터 十九世紀에 亘ᄒᆞ야 英國을 中心으로 ᄒᆞ야 起 ᄒᆞᆫ 農業上, 工業上의 大變動을 云홈이니 卽 機械의 發明과 技術의 進步와는 産業上에 大變革을 與ᄒᆞ야 一方으로 産業主義를 生ᄒᆞ고 他方으로 自由競爭이 激烈로 되야 農業上에는 大規模의 農業이 行ᄒᆞ야 科學을 應用하며 其耕耘에 人力을 省ᄒᆞ고 工業上으로는 大工場이 設備되야 小工業은 大工業에 倂呑되고 家內工業은 工場工業으로 되며 從弟關係는 雇傭關係로 되얏

러시아혁명이 프랑스혁명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사회혁명(경제혁명)’과 ‘정치혁명’을 구분하고 두 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산업혁명’을 인식하는 구도가 정착되었다. 이처럼 ‘사회혁명’,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을 함께 인식하는 방식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더불어 사회주의적인 ‘혁명’의 용법도 함께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ᄂᆞ니 此를 産業革命이라 云ᄒᆞ는 것이니, 其結果로 勞動問題, 社會問題를 惹起홈에 至ᄒᆞ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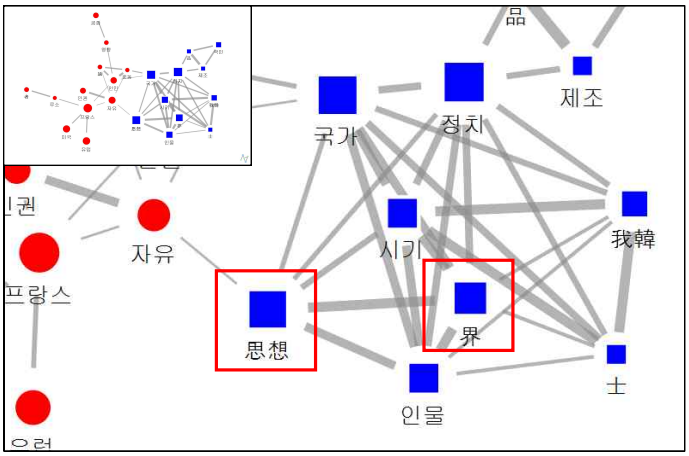
三. (반)식민지 상황의 반영과 사상·문화적 용례

1. 1900년대 후반 사상계의 변혁 요구와 '혁명'의 사용 범위 확장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프랑스'와 '산업'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들이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근대 '혁명' 개념이 수용되고 사회주의적 '혁명'의 용법이 정착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면, 이번 장에서 살펴볼 '思想'과 '文壇'·'문학' 관련 커뮤니티는 '보호국' 및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실천적 고민이 '혁명' 개념에 반영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먼저, 본 절에서는 1900년대 후반에 사상계의 변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혁명'이 사용되는 범위가 정치·사회적 용례를 넘어서 사상·문화적 용례로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언어적 수사' 정도로만 다뤄졌던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용례와 의미들을 (반)식민지라는 한국의 시대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06~1910년의 공기어 연결망들은 크게 '프랑스'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과 '思想'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연결망에 나타나는 '思想'은 주로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사상계의 혁명'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10년 2월 20일 ≪대한흥학보≫에 실린 「告我韓士」이다. 이 논설은 [그림 15]의 연결망에 표현된 '思想', '시기', '인물', '국가', '界', '정치', '我韓'이 모두 함께 등장하는 기사로, 논설의 필자는 지금은 국망의 위기이기 때문에 "我韓"의 "士"들이 "인물사상계에 일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때 '혁명'의 당위성과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하는 단어는 "문명"이다. "문명은 新舊一般"이어서, "토지를 이용하여 재화를 얻으며 학예를 闡明해서 지식을 구함은 문명의 異相"이 없는데, 최근에는 "修齊治平의 道"가 행해지지 않고, "格物致知의 學"을 공부하지 않아

서 “皮知覺”이나 “假有志”에 불과한 자들만 있다는 것이다.[110] 이어서 필자는 자신이 인물사상계에 혁명을 일으키자는 말은 “수구완고의 사상을 變하여 진취의 사상을 取”하라는 말과 같으며, 이는 “과학적 국민과 세계적 국민의 자격을 양성”할 것이라고 설명한다.[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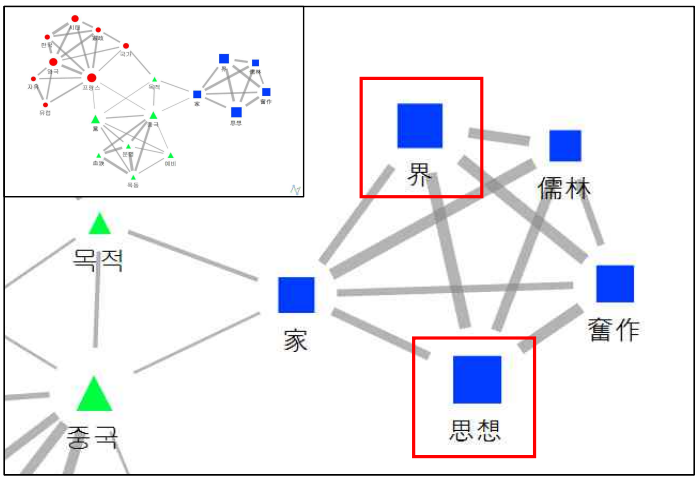


[그림 15] ≪태극학보≫·≪대한학회월보≫·≪대한흥학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사상계의 혁명을 촉구하는 기사는 비슷한 시기 ≪대한매일신보≫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16]의 연결망에서 ‘思想’, ‘奮作’, ‘家’, ‘界’, ‘儒林’이 ‘혁명’과 함께 등장한 문맥들을 추출하면, 모두 1910년 3월 23일에 실린 「儒林家의 思想界革命」이라는 기사에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혁명’은 총 6번 등장하며, 모두 “사상계혁명” 아니면 “사상계의 혁명”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논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논설의 필자는 “文明的 儒林家”와 “頑舊的 儒林家”를 구분하면서 “사상계혁명”은 “문명적 유림가”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구적 유림가”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완구적 유림가”들이 “국가와 민족의 유일 생명되는 신지식 신교육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110) ≪대한흥학보≫ 제10호, 1910년 2월 20일 「告我韓士」
111) ≪대한흥학보≫ 제10호, 1910년 2월 20일 「告我韓士」

서 필자는 “頑舊思想”으로는 “六大强國의 威力”을 당해내지 못하고 “20세기의 문명”을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儒敎者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舊陋를 革하고 신문명을 환영하라”라고 역설한다.[112]



[그림 16] ≪대한매일신보≫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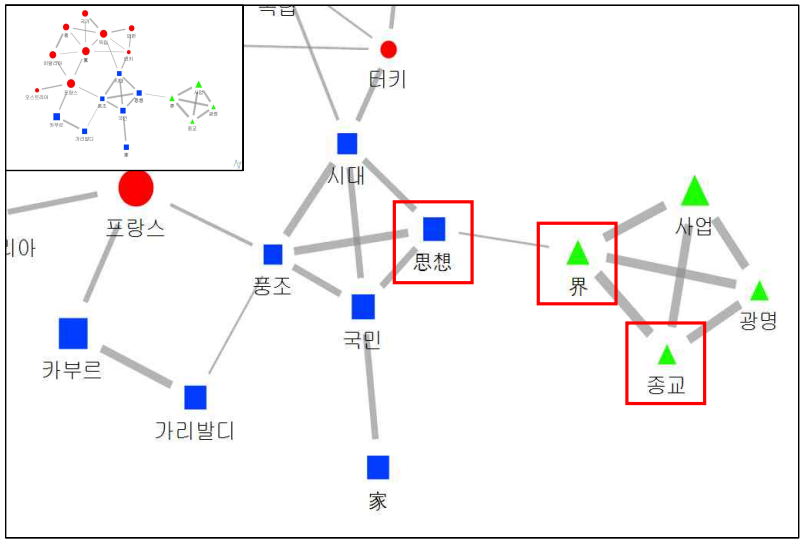
한편, ≪황성신문≫에서 ‘思想’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혁명’과 함께 등장했다. 먼저, [그림 17]에서 ‘思想’과 같은 커뮤니티의 단어들인 ‘국민’, ‘풍조’, ‘시대’ 등과 함께 등장하는 문맥들을 추출하면, 1906년 12월 25일의 「讀意大利建國三傑傳 (續)」에서 이 단어들이 함께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혁명’과 ‘思想’은 “革命之思想”이라는 형태로 함께 사용되었다. 이탈리아 마치니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마치니가 혁명과 공화를 주장한 이유가 “국민이 혁명의 사상이 없으면 군주가 완전한 헌법을 국민에게 능히 주지 않고, 국민이 千血萬淚로써 하지 않고 쉽게 헌법을 얻으면 군주가 비록 三揖三讓할지라도 국민이 그 이익을 능히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맥락에서다.[113]

112)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3일「儒林家의 思想界革命」
113) ≪황성신문≫ 1906년 12월 25일「讀意大利建國三傑傳 (續)」. “曰意大利가 旣以立憲而成ᄒᆞ니 其性質之宜於立憲이 明矣어늘 瑪氏ᄂᆞᆫ 乃倡革命倡共和ᄒᆞ니 不爲無識乎아 曰惡라 是何言也오 通觀今世界之立憲君主國이 何一非生於革命風潮最高點之時代哉아 國民이 無**革命之思想**ᄒᆞ면 君主가 不能以完全之憲法으로 與民

다음으로, ‘思想’이 ‘界’와 함께 등장한 문맥을 살펴보면, 1906년 9월 26일에 실린 「警告全國同胞」라는 논설의 “宗敎革命에 革去思想界之奴性”이라는 구절에서 두 단어가 ‘혁명’의 공기어로 함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설에서는 서양이 기예와 학술에서 동양을 앞서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종교혁명을 통해 사상계의 “奴性”을 근절한 것처럼, 개혁에 용감하고 “求新”에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14] 이 논설은 앞서 살펴본 ≪대한흥학보≫나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서처럼 한국의 사상계에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직접 제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논설 또한 동양이 문명의 수준에서 서양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된 원인을 ‘개혁’과 ‘구신’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논설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오 國民이 苟非以千血萬淚로 易得憲法이면 君主가 雖三揖三讓以與之라도 而民이 不能食其利ᄒᆞᄂᆞ니 故로 論意大利建國之功에 不可不首瑪志尼라 造意大利者ᄂᆞᆫ 三傑也오 造其二傑者ᄂᆞᆫ 又瑪志尼也니 盖至是而瑪志尼退矣오 至是而意大利成矣니라(강조, 밑줄 - 인용자)”

114) ≪황성신문≫ 1906년 9월 26일「警告全國同胞」. “今讀西國之史ᄒᆞ면 其古代之頑習은 盖有甚於東洋ᄒᆞ고 其本來之文明은 遠不及於東洋이로ᄃᆡ 今日之技藝學術이 突然駕出於東洋人之上者ᄂᆞᆫ 無他라 勇於改革에 急於求新ᄒᆞ야 壓制之極에 發出自由之新想ᄒᆞ며 蠻昧之甚에 漸露文明之眞面ᄒᆞ야 路得之**宗敎革命에 革去思想界之奴性**ᄒᆞ고 十字軍之東征에 互相智識之交換ᄒᆞ야 數百年來로 駸駸然蒸進無已ᄒᆞ야 雄飛虎視에 振撼地球ᄒᆞ고 日本則旣革之數十年에 乃其名譽勢力이 與歐美而並駕ᄒᆞ니(강조, 밑줄 - 인용자)”



[그림 17] ≪황성신문≫의 공기어 연결망(1906~1910) 부분 확대도 - '思想'과 '종교' 관련 커뮤니티

그렇다면, ≪황성신문≫에서는 한국 사상계에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혁명'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일까? 이러한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림 17]에서 '思想'의 오른쪽 옆에 '종교', '界', '사업', '광명'이 구성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실제 문맥을 확인해보면, '종교', '界', '사업', '광명'은 1910년 7월 20일에 실린 「忠南中學校發起」라는 논설에서 '혁명'과 함께 사용되었다. 해당 논설의 필자는 충남학교의 발기를 축하하면서도, 이전부터 내려오던 "習慣의 痼疾"을 맹렬히 비판하지 않으면 금일 교육계에 실효를 얻기 어렵다고 하며 구습의 하나로 "儒林家의 習慣"을 들고 있다.

이어서, "종교계에도 위인걸사의 혁명사업이 일어나 도덕의 광명을 불식"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림은 수백년 동안 一種 法門이 오직 宋儒의 노예를 만들었"으니, "어찌 斯文의 혁명사업이 있으리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림의 痼疾이 뇌수에 印着해서 신문화를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15] 이처럼, ≪황성신문≫의 '종교' 관련 커뮤니티에서 '혁명'은 종교계에 혁명사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이

115) ≪황성신문≫ 1910년 7월 20일「忠南中學校發起」

때 종교계는 '儒林家'를 의미한다. 사실상 다른 매체들에서 '사상계'가 의미하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906~1910년 공기어 연결망에 등장한 '思想'과 '종교' 관련 커뮤니티는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이 사상계와 종교계의 변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혁명'을 발화했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혁명' 개념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사상계 및 종교계의 변혁과 관련해서 발화되었던 '혁명' 개념은 애초에 분석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거나,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급진성과 무관한 언어적 수사 정도로만 여겨졌다.[116] 기존 연구들이 초점을 맞춰온 것은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의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상계나 종교계의 혁명이 언어적 수사로 여겨지고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1900년대 후반 국내에서 당시 지식인층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간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라, 재일유학생 단체의 ≪대한흥학보≫에서까지 사상계나 종교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맥락에서 '혁명'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단지 언어적 수사로만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용법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1900년대 후반에 사상계와 종교계에서의 '혁명'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제기되었던 것일까? 여기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정체의 변혁이나 무력혁명은 쉽게 주장할 수 없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사상이나 종교와 관련해서 발화된 '혁명'만 최종적으로 언론 매체의 논설 속에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다. 러일전쟁 발발 후인 1904년 7월 20일 일본군 헌병 사령부는 군사경찰훈령을 발표해서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군

116) 대한제국기의 '혁명' 개념을 다룬 이헌미의 연구에서는 사상계나 종교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발화된 '혁명'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이헌미, 2012 앞 논문]. 1910년대의 '혁명' 개념을 다루면서 1900년대의 '혁명' 개념을 전사로 다룬 권보드래의 연구에서는 ≪대한매일신보≫에서 발화된 '사상계혁명'이 언급되긴 했지만, "정치적 급진성과 무관한 언어적 수사"라든가 "'혁명'이 수사화·상징화되고 있는 경우"라고만 해석되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1909년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천희당시화(天喜堂詩話)」에서 등장한 '동국시계혁명' 또한 "정치적·제도적 개혁과는 단지 우회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라고 하며 '사상계혁명'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수사로 간주한다[권보드래, 2015 앞 논문, 54-55쪽].

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도록 했다. 또한, 1907년 5월 30일 16회 시정개선협의회에서 신문지조례를 제정할 필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같은 해 7월 24일에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지법이 발표되었다. 같은 달 27일에 제정된 보안법 제7조에서는 정치에 관해서 불온한 언론으로 치안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었다.[117] 이 시기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의미의 '혁명'을 직접 주장하는 논설이 보이지 않았던 데에는 이러한 일제의 검열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상계와 종교계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맥락에서는 '혁명'이라는 기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사실은 첫째, 이 시기에 이미 '혁명'이 '프랑스혁명'의 용례 정도로만 사용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간지부터 재일유학생단체의 잡지까지 여러 매체에 걸쳐서 '혁명'이 사상계나 종교계와 관련된 맥락에서 여러 번 등장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사회적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혁명'이 왜 '사상'이나 '종교'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되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상 및 종교와 관련해서 세 매체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나타났던 '혁명'의 논의 맥락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 매체 모두 사상계의 변혁을 촉구하면서 '수구완고의 사상' 혹은 '완구사상'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진취의 사상'이나 '新智', '新學', '신문명'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한국의 반식민지화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자강운동론과도 연관되어 있다. 당시 자강운동론은 교육의 진흥, 실업의 진흥을 골자로 하는 실력양성론과 구습의 타파 및 개량에 대한 논의를 축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자강운동론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

117) 정근식, 2003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 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11-24쪽.

금씩 차이가 있지만,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국내 학회들의 학회지, 재일유학생단체들의 잡지 등을 통해 당시 지식인층 사이에 폭넓게 확산해 갔다.[118]

이때,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대한흥학보≫ 모두에서 '유림가'는 수구완고의 표상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흥학보≫에서는 '문명개화'라고 불리는 지식인 중에 존재하는 '皮知覺'과 '假有志'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19] 당시에는 신지식을 습득한 사회 인사나 학생들이 학교 설립을 명목으로 토지를 강탈하거나 일본인과 결탁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신지식인층을 '假志士'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학회지와 신문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120] 자강운동에 대한 반성과 '假志士'에 대한 비판이라는 1900년대 후반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한흥학보≫의 논설 속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1906~1910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보이는 '思想' 및 '종교'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은 반식민지 상황에서 사상계의 변혁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가 '혁명' 개념의 사용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혁명'이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서 사회 일반의 변화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특히 사상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맥락에서 쓰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에 'revolution'이 '혁명'으로 번역되어 들어올 때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중역되어 수용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0년대 신채호의 '혁명' 개념을 분석한 양진오의 연구에서는 신문에서 '혁명' 사건이 재현되고 보도되는 방식과 중국 및 일본 지식인들의 저서에서 '혁명'이 논의되는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 지식인들이 '혁명'의

---

118) 박찬승, 1992 앞 책, 30-47쪽.

119) ≪대한흥학보≫ 제10호, 1910년 2월 20일 「告我韓士」. "時衣를 服ᄒᆞ고 時冠을 着ᄒᆞᆫ 者 雖 曰 文明開化ㅣ나 醉俗傷時ᄒᆞ야 影樣만 捕捉ᄒᆞ고 形骸를 忘却ᄒᆞ니 時病而人亦病이라. 自稱 曰 知覺이 有ᄒᆞ다 ᄒᆞ나 皮知覺에 不過ᄒᆞ고 自謂 曰 有志者라 ᄒᆞ나 假有志에 不過ᄒᆞᆫ지라."

120) 노관범, 2007 <대한제국기 朴殷植과 張志淵의 自强思想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38-243쪽.

근대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 중요하게 읽혔던 량치차오와 고토쿠 슈스이의 저서들이다. 양진오는 량치차오와 고토쿠 슈스이가 '혁명'을 이해하고 발화했던 방식이 당시 한국 지식인들이 '혁명'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121]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특히 량치차오가 '혁명'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는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량치차오는 1900년대 후반 ≪대한매일신보≫에서 '청국혁명당의 두령'으로 소개되고 있었으며, ≪飮氷室文集≫과 같은 그의 저작은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탐독되고 있었다.[122] 특히 그는 중국에서 '혁명' 개념을 근대적 의미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도 이해되고 있다. 중국에서 1890년대에 '프랑스혁명'의 용례가 처음 들어온 이후에 '혁명'이 한동안은 주로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발화되었다면, 1900년을 전후로 해서 량치차오가 '詩界革命', '小說界革命', '文界革命' '史界革命'을 주장하면서 '혁명'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 사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123]

량치차오는 또한 1902년 12월에 'revolution'의 새로운 번역어로 '變革'을 제시했다. 그는 'revolution'을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과 같이 뿌리째 뒤흔들어 하나의 신세계를 따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유혈과 폭력이 아니라 仁政으로 폭정을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volution'은 정치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교, 도덕, 학술, 학문, 풍속, 산업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변혁이라고 정리되었다. 그가 제시한 '변혁'은 'revolution'의 번역어로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변혁'에 담고자 했던 'revolution'의 의미는 이후 「혁명군」을 연재한 저우룽(秋容)과 같이 다른 지식인들이 사용한 '혁명'의 의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24]

이처럼 1900년을 전후해서 량치차오는 정치적·제도적 개혁이나 무력에

121) 양진오, 2013 앞 논문, 417-428쪽.
122) 양진오, 2013 앞 논문, 423-425쪽; 이호룡, 2001 앞 책, 84-86쪽.
123) 양일모, 2010 앞 논문, 189-191쪽; 이혜경, 2015 앞 논문, 133-134쪽.
124) 양일모, 2010 앞 논문, 191-193쪽.

의한 정치질서의 전복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종교, 도덕, 학술, 학문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변혁이라는 의미로 '혁명' 개념을 이해했다. 그리고 량치차오가 '혁명'을 이해했던 방식은 1900년대 후반 한국 지식인들이 '혁명'을 이해하고 사용하던 방식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07년에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량치차오를 청국혁명당의 두령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그가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기했던 '시계혁명', '소설계혁명'론은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 큰 시차 없이 전달되고 있었다.[125] 특히 량치차오가 주장한 '시계혁명'은 1909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天喜堂詩話」라는 글에서 '東國詩界革命'으로 소화되고 있었다.[126]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혁명'을 폭력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미, 혹은 정치질서의 전복이나 제도적 개혁의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고, 종교부터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의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은 1900년대 후반에 이미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06~1910년에 한국 언론 매체에서 발화되었던 '사상계혁명'에서 '혁명'은 단지 언어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설계혁명'이나 '시계혁명'처럼 사회 각 분야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당시 한국 지식인들이 '보호국'화의 상황에서 사회개혁의 급무라고 생각했던 사상계의 변혁에 대한 요구가 '사상계혁명'이라는 용례로 표출된 것이었다. 단순히 정치적 '혁명'에 대한 발설의 금지로 인해 '사상계혁명'이 우회적으로 주장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상 및 종교 방면에서 발화된 '혁명'의 용법은 당시 '혁명'의 의미와 용례에서 부차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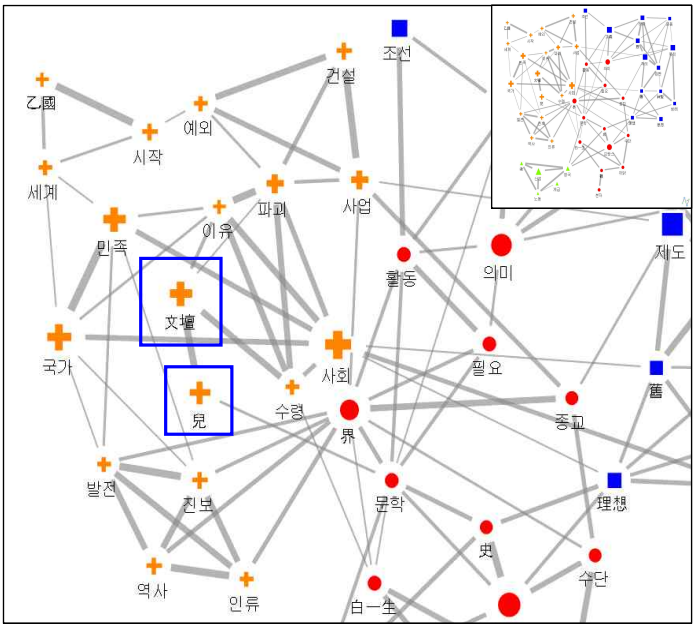
125) 량치차오의 시계혁명과 소설계혁명이 한국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형욱, 2009 <梁啓超의 詩界革命論이 개화기 한국 시론에 미친 영향 - ≪飮氷室詩話≫와 ≪天喜堂詩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8; 최형욱, 2002 <梁啓超의 小說界革命이 舊韓末 小說界에 미친 影響> ≪중국어문학논집≫ 20 참조.

126) 최형욱, 2009 앞 논문; 권보드래, 2015 앞 논문, 55-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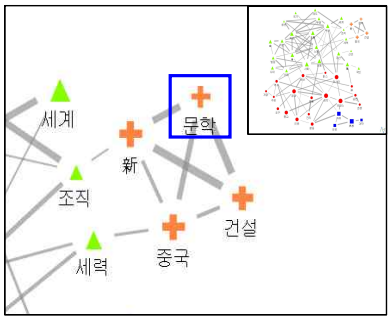
2. 1910년대~1920년대 전반 비폭력적·비정치적 '혁명' 논의의 지속

1906~1910년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보였던 '思想'과 '종교'를 중심으로 한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인 논의 맥락은 1910년대~1920년대 전반에도 문학과 사상 방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학지광≫의 연결망에서 처음 등장한 '文壇' 관련 커뮤니티는 ≪개벽≫의 연결망에서는 '중국', '新', '문학', '건설'로 구성된 소규모의 커뮤니티로 이어지며, '思想' 관련 커뮤니티는 1906년부터 1924년까지 모든 공기어 연결망에서 계속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절에서는 1914~1918년에 ≪학지광≫에서 왜 '文壇'이 '혁명'과 관련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思想' 관련 커뮤니티는 왜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 계속 '혁명'과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文壇'과 관련된 커뮤니티의 공기어들이 등장한 실제 문맥을 확인해보면, 1917년 11월 20일에 ≪학지광≫ 14호에 실린 백일생(白一生)의 「文壇의 革命兒야」와 그에 대한 반론으로 1918년 3월 25일 ≪학지광≫ 15호에 발표된 서상일(徐尙一)의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에서 이 단어들이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1장에서 제시한 '혁명'의 연도별 상대빈도 그래프를 보면, 1918년에 상대빈도가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1914~1918년 ≪학지광≫에서 '혁명'이 논의되었던 맥락 전체에서 1918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또한, 1918년에 '혁명'이 등장한 문맥 총 60개 중 58개가 모두 서상일의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에서 등장했다는 사실에서, 이 논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단의 혁명'이 당시 ≪학지광≫에서 '혁명'이 사용된 맥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18]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부분 확대도 - '文壇' 관련 커뮤니티



[그림 19]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 '문학' 관련 커뮤니티

'문단의 혁명'을 둘러싼 논쟁은 1917년 백일생이 「文壇의 革命兒야」에서 "한학파"를 비판하고 "문단의 혁명"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한학파를 혁명한 후에 추구할 문학의 방향은, "예술파의 南歐문학"도 가능하며, "인생파의 北歐문학"도 가능하며, "절충파의 영미문학"도 가능하고, "잡종파의 일본문학"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근일 우리 문단에 새로 春園(이광수 - 인용자), 文堂[127](최남선 - 인용자), 小星(현상윤 - 인용자) 등 혁명수령의 擧義가 現出함"을 밝히면서, "어찌 응원군이 되지 아니하리오"라고 말한다.[128] 이러한 백일생의 주장에 대해서는 1918년 3월 25일에 서상일의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라는 글을 통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상일은 문단의 혁명을 주장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비록 혁명에 際하여도 가급적 구제도 구관습 중에 善美한 부분은 훼손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된다"라고 하며 혁명 대상의 설정에서는

127) 「文壇의 革命兒야」에 대한 반박 글인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文堂'을 '六堂'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여기서 '文堂'은 최남선의 호인 '六堂'의 오기로 보인다.

128) ≪학지광≫ 제14호, 1917년 11월 20일 「文壇의 革命兒야」 白一生

좀 더 온건한 방향을 제시했다.[129]

그렇다면, '문단의 혁명'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제기되었던 것일까?[130] 1900년대 후반에도 '시계혁명'이나 '소설계혁명' 등의 단어가 한국 지식인에게 전파되어 있었고 문학 각 방면에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긴 했지만, 시, 소설 등을 통틀어서 '문학'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론을 제기한 것은 1910년 ≪대한흥학보≫에 실린 이광수(李光洙)의 「文學의 價値」에서였다. 이후 ≪학지광≫에서는 최두선의 「文學의 意義에 觀하여」와 안확(安廓)의 「朝鮮의 文學」 등의 논설이 계속 실리면서 신문학을 제창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1916년에는 ≪매일신보≫에 이광수가 다시 「文學이란 何오」라는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1910년대에 당시 지식인들에게 문학은 개혁과 변화가 요구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백일생이 1917년에 ≪학지광≫을 통해 발표한 「文壇의 革命兒야」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 있었다.[131]

다만, 백일생의 논설은 앞서 문학의 개혁을 주장한 다른 논설들과는 달리 '문단'과 '혁명'을 결합해서 '문단의 혁명'을 주장한 것이 특징적이다. '문학' 개념을 분석한 최원식에 의하면, 백일생과 서상일의 '문단의

---

129) ≪학지광≫ 제15호, 1918년 3월 25일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 徐尙一

130) 이만영의 연구에서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1917년 11월 ≪학지광≫ 14호와 1918년 3월의 15호에서 '혁명'의 출현 빈도가 급증하는 현상과 '혁명가'로서 스스로를 호명하는 문법, 사회가 급진적인 방식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변화를 근거로 이를 러시아혁명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이만영, 2018 앞 논문, 115-116쪽]. 당시 일본 당국의 검열 상황과 그 영향으로 인해 정치적 시사를 적극적으로 게재할 수 없었던 ≪학지광≫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이경훈, 2004 앞 논문, 106-107쪽], 1917년 러시아혁명 발발 이후에도 ≪학지광≫에서 '혁명'이 러시아혁명과 관련된 맥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모습만을 두고 당시 지식인들의 '혁명' 개념 사용에서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에 ≪학지광≫ 제14호(1917.11.20.)에 실린 極熊의 「KERENSKY」에서는 케렌스키의 생애와 활동을 다루면서, 당시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긴 한다. 이러한 점에서, 1917년 러시아혁명이 발발한 직후 ≪학지광≫ 제14호와 제15호에서 연이어 '문단의 혁명아' 관련 논쟁이 벌어지면서 '혁명'의 발화가 급증하는 양상에서 ≪학지광≫에서의 '혁명' 개념과 러시아혁명과의 연관성을 의심해볼 수는 있다. 다만, '문단의 혁명아' 관련 논설에서는 러시아혁명과의 연관성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황상의 근거를 토대로 이 둘의 영향 관계를 주장하는 것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31) 최원식, 2012 ≪문학≫, 소화, 133-205쪽.

혁명' 논쟁은 기본적으로는 이광수를 비롯한 유학생이 주창한 문학개혁론의 연장이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후스(胡適)와 천두슈(陳獨秀)의 문학혁명론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이를 비슷한 시기인 1917년 2월에 ≪新靑年≫을 통해 발표되었던 천두슈의 「文學革命論」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천두슈는 「文學革命論」에서 오늘날의 유럽은 혁명의 산물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의 신해혁명이 결국 실패한 것은 혁명을 두려워하는 정신의 부패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이어서, 정치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윤리도덕혁명을 중국의 급선무로 제시한다. 그러한 윤리도덕혁명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주장하는 문학혁명인 것이다.[132]

천두슈와 후스의 문학혁명론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관심은 1920년대 전반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 전반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문학', '新', '중국', '건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연결망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실제 문맥을 살펴보면, 천두슈의 문학혁명론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문학', '중국' 등의 단어가 '혁명'과 함께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3] 이는 1910년대에 ≪학지광≫에서 처음 등장한 '文壇'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이 1920년대 전반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에서는 '문학', '중국'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벽≫에서 '문학'과 '혁명'이 함께 등장한 문맥들을 모두 추출하면, 1921년 3월 제9호에 실린 창해거사(滄海居士, 이돈화)[134]의 「孫文學說인 「行易知難」說을 讀하다가」와 1922년 12월 제30호에 실린 북여동곡(北旅東谷, 이동곡)[135]의 「現中國의 舊思想, 舊文藝의 改革으로부터 新東洋文

132) 최원식, 2012 앞 책, 123, 200-205쪽. 최원식은 백일생과 서상일의 글에서 후스와 천두슈가 직접 거론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백일생의 글에서는 후스와 천두슈의 영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백일생이 간접적으로라도 이들의 문학혁명론을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133) ≪개벽≫ 제30호, 1922년 12월 1일 「現中國의 舊思想, 舊文藝의 改革으로부터 新東洋文化의 樹立에 他山의 石으로 現中國의 新文學建設運動을 이약이함.」 北旅東谷

134) 창해거사는 이돈화(李敦化)의 필명이다.

135) 북여동곡은 이동곡(李東谷)이다. 이동곡의 문화개조론과 중국의 신문화운동을 향한 관심에 대해서는 차태근, 2019 <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 - 1920

化의 樹立에 他山의 石으로 現中國의 新文學建設運動을 이약이함」, 1923년 8월 제38호에 실린 양명(梁明)의 「新文學 建設과 한글 整理」 세 논설에서 해당 문맥들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동곡의 논설은 중국의 문학혁명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글이고, 양명의 논설은 중국의 문학혁명론을 참고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신문학건설운동을 제기하는 글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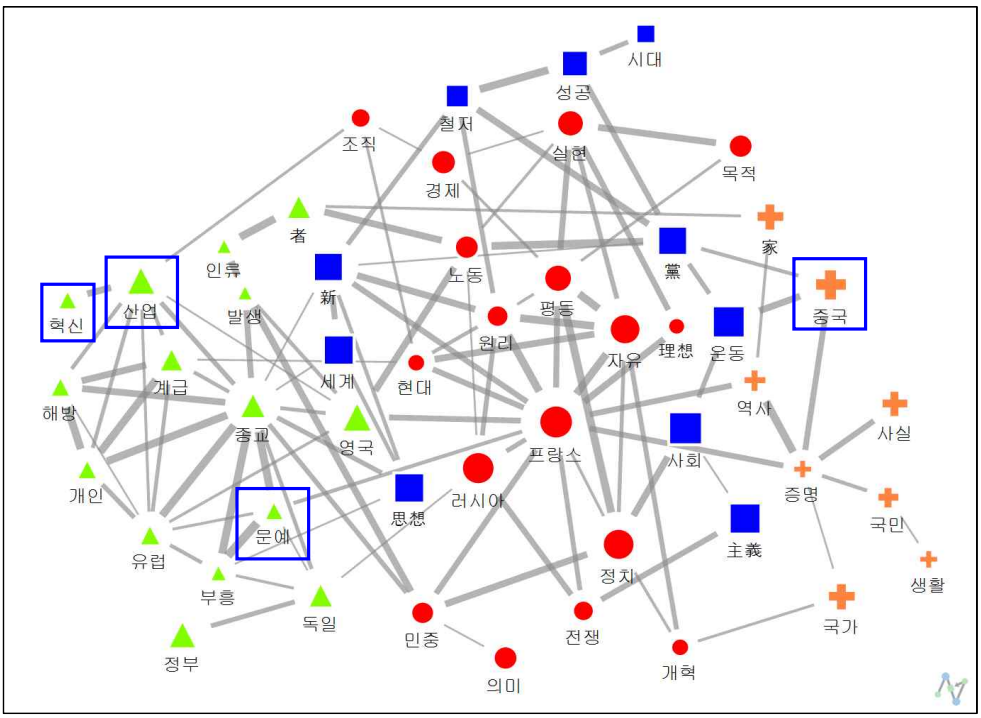
먼저, 이동곡은 1922년의 논설에서 현재 조선과 중국 모두에서 "신문화운동이 날로 격렬한" 시점에, 중국의 사정을 소개하는 것이 "조선의 문화운동에도 자극과 참고를 주리라는" 생각에서 해당 글을 썼음을 밝힌다. 그는 중국의 후스와 천두슈의 문학혁명론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중국의 문학혁명이라 함은 곧 白話文學의 건설을 의미함"이었다고 정리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논설이 주로 후스와 천두슈의 문학혁명론의 주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논설의 곳곳에 이들의 문학혁명론과 조선의 문화운동 사이에 접점을 찾는 필자의 고민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동곡은 백화문학 건설에 대한 후스의 주장을 소개한 후에, "胡氏의 주장이 중국문학 及 思潮에만 병폐가 되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위 漢文學의 순연한 정복을 받은 우리 조선문학의 개량에도 동일한 책략이 안될는지?"라고 하며 한국 사회에서 문학혁명론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본다.[136]

1923년에 발표한 논설에서 양명 또한 먼저 "현재 중국의 신문학 비평가로 유명한 후스"가 「建設的 文學 革命論」에서 "고금 중국의 문학 중 조금이라도 가치 있고 조금이라도 생명 있는 문학은 모두 白話거나 또는 백화에 가까운 것이며, 그 밖은 모두 생기 없는 古董이니 박물원의 진열품에 지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한다. 이어서 그는 후스의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死文字와 活文學이 얼마나 양립할 수 없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민족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그네

년대 전반 李東谷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4 참조. 해당 논문에서는 이동곡을 이민창(李民昌)의 필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36) ≪개벽≫ 제30호, 1922년 12월 1일 「現中國의 舊思想, 舊文藝의 改革으로부터 新東洋文化의 樹立에 他山의 石으로 現中國의 新文學建設運動을 이약이함」 北旅東谷

들 일용의 언어와 도무지 부합되지 않는 죽은 문자로 생명 있는 문학, 가치 있는 저작은 산출하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조선의 "신문학건설운동은 그 제일보가 현재 우리의 死文字를 폐기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자를 부활시키는 데 있음"을 주장하며, "국어해방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137]



[그림 20]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한편, ≪동아일보≫의 '중국'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는 '문학'이나 '文壇'이 연결망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그림 20]의 '산업' 관련 커뮤니티에 등장한 '혁신'이나 '문예'를 살펴보면, "문예부흥"과 같은 "사상혁명"의 "理想이 불란서혁명의 근본적 요구가 되었다"라는 서술이나,[138] 조선이 "서양문명"을 소화해서 "신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문학이 필요하며 산업혁명이 緊切"하다는 주장을 찾을 수 있

137) ≪개벽≫ 제38호, 1923년 8월 1일「新文學 建設과 한글 整理」北京 梁明
138) ≪동아일보≫ 1920년 5월 27일「歷史的 事實과 自由의 解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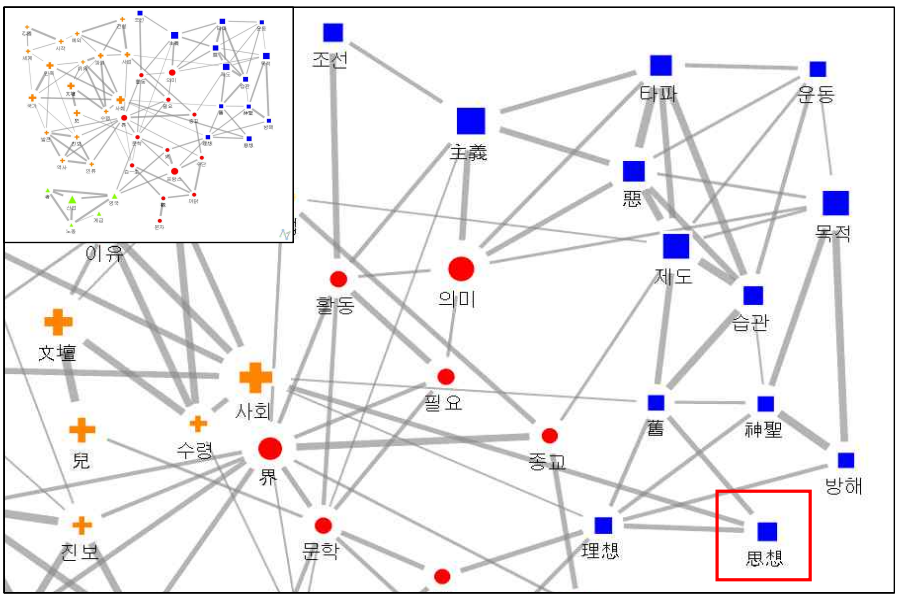
다.[139] 이를 통해, 사회 변화의 첫 번째 단계로 문학이나 사상 방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이 ≪동아일보≫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혁명'과 함께 쓰인 문맥을 추출해보면, 중국의 신해혁명이 "당초부터 사상혁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先知先覺이 청국의 정치 부패를 기회로 해서 일시적으로 정권을 바꾼 것"이었기 때문에, "수천년간 쌓여온 구도덕과 구관습의 토대 위에 신정치와 신제도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라는 평가를 발견할 수 있다.[140]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설의 범위를 넘어서 연재기사까지 살펴보면, ≪동아일보≫에서는 1922년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中國의 思想革命과 文學革命」이라는 제목의 연재기사로 천두슈와 후스의 문학혁명론을 비롯한 중국의 신문화운동이 소개되고 있다.[141] 이처럼 사회 변혁에 있어서 문학 방면에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나 중국의 문학혁명론 및 신문화운동을 향한 관심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思想'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文壇' 관련 '혁명'의 논의 맥락이 1914~191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思想' 관련 커뮤니티는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 모든 공기어 연결망에서 계속 등장했다. 1906~1910년 공기어 연결망에 등장한 '思想'은 실제 문맥에서 '사상계혁명'과 같은 용례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학지광≫에서도 '사상계혁명'이라는 용례가 계속 등장한다. 1915년 5월에 ≪학지광≫ 제5호에 실린 송진우의 논설 「思想改革論」에서는 "사회발전"과 "민족보호"를 위해서는 "신생활"이 요구되고, "신생활은 신사상에서 배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상계혁명"이 "제일 要緊하고 急切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혁의 대상 중 하나로 190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孔敎"가 지목되고 있다.[142]

---

139) ≪동아일보≫ 1921년 6월 17일 「社會發展의 階段 文學革新, 産業革命」
140) ≪동아일보≫ 1922년 4월 30일 「中國廣東의 蓄妾廢止運動에 對하야」
141) ≪동아일보≫에서 중국 신문화운동이 소개되던 양상에 대해서는 송인재, 2015 <1920, 30년대 한국 지식인의 중국 신문화운동 수용 - 양건식, 정래동, 김태준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 63; 이기훈, 2017 앞 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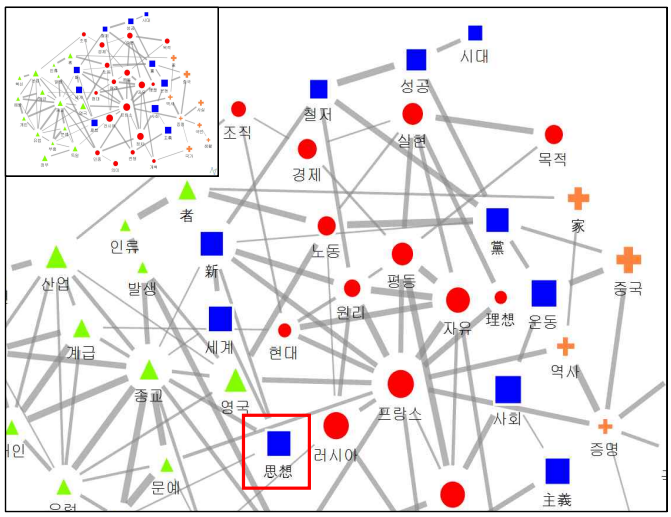
[그림 21]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1914~1918)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이러한 '사상계혁명'의 주장은 1910년대 재일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신지식층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던 구사상·구관습 개혁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43] 또한, 1918년 3월에 ≪학지광≫ 제15호에 발표된 서상일의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에서는 아예 "혁명이란 한 사회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사상, 구제도, 구습관을 타파함에 있다"라고 하며 제도와 함께 사상과 습관도 혁명의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해놓고 있다.[144] ≪학지광≫의 공기어 연결망에서 '思想'이 '습관', '제도', '舊', '타파', '理想' 등의 단어와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해당 논설의 문맥이 연결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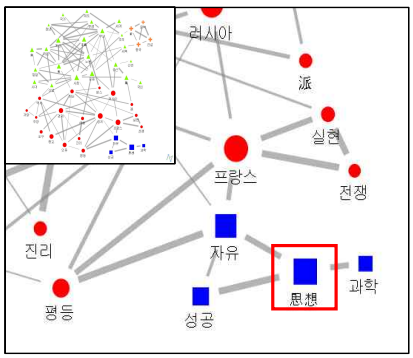
이처럼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1920~1924년에도 계속 이어

142) ≪학지광≫ 제5호, 1915년 5월 2일 「思想改革論」 宋鎭禹
143) 1910년대 신지식층의 구사상·구관습 개혁론에 대해서는 박찬승, 1992 앞 책, 155-165쪽 참조.
144) ≪학지광≫ 제15호, 1918년 3월 25일 「「文壇의 革命兒」를 讀하고」 徐尙一

지고 있었다. 먼저, ≪동아일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맥은 앞서 문학과 관련된 '혁명'의 논의 맥락을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던 중국 신해혁명에 대한 평가이다. 1922년 4월 30일「中國廣東의 蓄妾廢止運動에 對하야」에서는 신해혁명이 사상혁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도덕과 구관습을 개혁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정권의 변화만 바꾼 것이었다고 평가한다.[145] 다만, ≪동아일보≫에는 현재 "조선인이 사상을 대상으로 한 계몽운동의 시대에 있어서 경제적 실지 운동에까지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혁명은 思想上 혁명으로만 그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사회적 조건과 사회적 실세가 있은 연후에 실현되는 것이 오히려 그 보통 원칙이라" 할 수 있으니, 조선에서도 "경제적 생산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146]



[그림 22] ≪동아일보≫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그림 23] ≪개벽≫의 공기어 연결망(1920~1924) 부분 확대도 - '思想' 관련 커뮤니티

'사상혁명'이라는 용례가 특히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개벽≫에서이다. 1920~1924년의 ≪개벽≫에서는 '혁명'의 상대빈도가 1924년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 1924년에 '혁명'이 가장 많이 출현한 논설은 1월

145) ≪동아일보≫ 1922년 4월 30일「中國廣東의 蓄妾廢止運動에 對하야」
146) ≪동아일보≫ 1922년 8월 17일「政治와 經濟」

1일 제43호에 실린 양명[147]의 「우리의 思想革命과 科學的 態度」라는 글이었다. 이 논설에서 '혁명'은 총 39회 등장하며, 그중 '사상혁명'의 형태로 사용된 경우는 26회에 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논설에서 양명은 현재 식민지 조선의 사상계가 예수, 마르크스, 간디,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레닌 등의 사상으로 혼돈한 중에 있는데, 정작 우리 민족의 대다수를 점령하는 무산계급은 이러한 사상가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거나 그저 맹종하기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비평"과 "과학적 태도"를 통해서 "사상혁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8]

한편, 1924년 10월에 ≪개벽≫에 실린 「思想의 革命」이라는 논설에서도 '사상의 혁명'이 제기되었다. 앞서 1922년에는 ≪개벽≫에 중국의 문학혁명론을 소개하는 글을 썼던 이동곡의 논설이다. 그는 이 논설에서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신문화운동이 제기되어왔고, 여기서 신문화는 곧 신사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과거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현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도 계통적으로 서술한 논문이 발표된 적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인의 3분의 2는 아직 傳統的 私生子的 사상과 문화의 固守者이고, 조선인의 3분의 1이 되는 청년 및 新智識級도 구사상과 구문화에 대한 반항의 각오는 다소 있지만, 신사상 및 신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사상의 혁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149]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양명과 이동곡 모두 신사상을 맹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47) 양명은 1919년에 북경에 와서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수학하던 중에 공산주의를 수용했다. 그는 1924년 2월에 북경조선유학생구락부를 설립하는 한편, 같은 달에 공산주의 선전을 위해 국한문혼용체로 ≪新光(새빛)≫을 발간했다. 1924년 겨울에는 혁명사를 조직에 참여했고, 1925년 8월 사회주의운동전선의 통일을 위해 귀국, 1926년 10월에 제3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고 중앙간부에 선임되었다[조규태, .2010 <1920년대 재북경 한인 革命社의 『革命』 발간과 혁명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53-258, 272-273쪽]. 1924년 1월 1일 ≪개벽≫ 제43호에 실린 「우리의 思想革命과 科學的 態度」는 그가 북경에서 1923년 11월 10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48) ≪개벽≫ 제43호, 1924년 1월 1일 「우리의 思想革命과 科學的 態度」 梁明

149) ≪개벽≫ 제52호, 1924년 10월 1일 「思想의 革命」 李東谷

사상의 혁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벽≫에 해당 논설을 게재한 양명이 비슷한 시기인 1924년 겨울에 중국 북경에서 장건상(張建相), 김용찬(金容贊), 김성숙(金星淑), 장지락(張志樂) 등과 革命社를 조직하고 1925년 1월 1일부터 잡지 ≪革命≫을 발간했다는 사실이다.[150] '이동곡'을 필명으로 사용한 이민창 역시 양명과 함께 혁명사의 창립 주도 인물로 분류된다.[151] 앞서 살펴본, ≪개벽≫에서 중국의 문학혁명론을 소개한 두 필자 또한 양명과 이민창(이동곡)이다.

≪개벽≫에서 '문학혁명'과 '사상혁명'을 발화했던 두 인물이 모두 논설을 발표한 때와 비슷한 시점에 중국 북경에서 혁명사를 조직하고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잡지를 발행하는 데 참여한 것이다. 이들이 1924년에 북경에서 혁명사를 결성한 데에는 공산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아나키즘계 인물들의 활동에 대응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혁명≫은 조선의 혁명이 민족적 정치혁명만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경제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혁명이 되기를 바랐으며, 정치 체제로는 자본주의적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무산계급의 독재정치를 목표로 했다. 또한, 이러한 이상 사회는 민중의 무력혁명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152]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혁명론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려고 했던 이들이 국내에서 ≪개벽≫의 지면을 통해서는 '문학혁명'과 '사상혁명'을 함께 주장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일차적으로는 국내와 국외라는 공간과 그에 따른 일제에 의한 검열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검열에 따른 차이라면 ≪개벽≫에서는 공산주의 혁명론을 직접 주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들은 왜 굳이 '문학혁명'과 '사상혁명'을 주장했던 것일까? 이들에게는 문학과 사상도 그만큼 중요한 혁명의 분야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

150) 혁명사의 잡지 ≪혁명≫ 발간과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조규태, 2010 앞 논문 참조.
151) 조규태, 2010 앞 논문, 257-258쪽; 차태근, 2019 앞 논문, 218-225쪽.
152) 조규태, 2010 앞 논문, 264-265쪽.

애초에 ≪혁명≫은 당시 북경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즘계 인물들의 공세에 대응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선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반면, ≪개벽≫을 통해 이들이 제기한 '문학혁명'과 '사상혁명'은 어떤 사상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무산계급부터 신지식을 수용하긴 했어도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아직 부족한 청년 및 신지식층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식민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양명과 이민창은 국외에서는 공산주의 혁명론을 선전하기 위해 혁명사를 조직하고 활동했지만, 무산계급이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 조선의 국내 상황에서는 문학혁명과 사상혁명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들에게 '문학혁명'과 '사상혁명'은 단순히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쉽게 주장하지 못하는 식민지 검열의 상황에서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한국 지식인들의 실천적 고민이 '혁명' 개념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1900년대 후반에 사상계의 변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혁명'이 사용되는 범위가 정치·사회적 용례를 넘어서 사상·문화적 용례로까지 확장되었다면, 1910년대~1920년대 전반에는 이러한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논의 맥락이 문학과 사상 방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914~1918년에는 문단과 문학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하는 논의가 '혁명' 개념의 사용에도 반영되어 '문단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1920년대 전반에는 중국 문학혁명론의 본격적인 수용과 소개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1900년대 후반에만 그치지 않고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에까지 '사상계혁명'과 '사상혁명'이라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문단의 혁명'이나 '문학혁명', '사상계혁명'과 '사상혁명'은 정치적 저항이나 폭력과 같은 전형적인 '혁명'의 의미에서는 거리가 멀다. 또한, '산업혁명', '사회혁명', '정치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사회주의적 용법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상과 문학 방면에서 발화된 '혁명'들은 20

세기 초반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에서 계속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혁명’의 용례들에는 ‘보호국’과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당시 한국 지식인들이 가졌던 사회 변혁에 대한 실천적인 기대가 계속 담겨 있었다. 이들에게는 정치혁명이나 사회혁명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단의 혁명도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이처럼, 사상과 문학 방면에서의 ‘혁명’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혁명’ 개념이 수용되고 정착해가는 과정에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용례와 의미들을 언어적 수사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반)식민지라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맺음말

서구 개념의 번역과 수용 과정에서 식민지 근대의 특성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근대 한국이 처한 주변부적 특성을 개념사에서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는 한국 근대 개념사 연구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근대 '혁명' 개념이 수용되는 과정과 함께, 그 과정에 '보호국' 및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는 양상을 언론 매체의 공기어 연결망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사상과 문화 방면에서 발화되었던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용례들이었다. 이 시기 한국 지식인들이 발화한 '혁명' 중에서는 '사상계혁명'이나 '문단의 혁명'처럼,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혁명'의 의미나 용례와는 조금 다른 사례들이 발견된다. 그동안 20세기 초반 한국의 '혁명' 개념을 다룬 연구들은 '혁명'이 가지는 정치적 저항성과 폭력성, 운동성에 주로 주목했다. 이에 따라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용례들은 대체로 '혁명' 개념의 보수화나 언어적 수사 정도로만 이해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저항이나 폭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의미도 당시 '혁명'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용례들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것인지,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 수용 과정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의 언론 매체 자료에서 등장하는 '혁명'의 문맥들을 공기어 연결망으로 구현해보면,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혁명'이 발화되었던 맥락은 크게 '프랑스' 관련 맥락, '思想' 관련 맥락, '文壇'·'문학' 관련 맥락, '산업' 관련 맥락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기어 연결망에서의 특징과 '혁명'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1906~1910년과 1914~1918년의 사이에 '혁명'이 논의되던 구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14~1918년의 연결망에서는 1906~1910년까지 존재했던 '프랑스'와 '思想' 중심의 구

도에 더해 '文壇'과 관련된 논의와 '산업'과 관련된 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1920~1924년의 연결망에서도 계속 관찰되었다.

이때, '프랑스'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정치·사회적 논의 맥락들의 시기별 변화상은 서구 근대 '혁명' 개념의 도입과 사회주의적 '혁명' 용법의 정착 과정을 잘 보여준다. 1906~1910년에 근대 '혁명' 개념은 '프랑스혁명'이라는 용례를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일제의 '보호국'이 된 1900년대 후반에 '프랑스혁명'은 한국이 문명부강을 달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던 '입헌', '공화', '민권', '자유' 등의 단어들과 연관되어 이해되었다. 한편, 1914~1918년부터는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함께 '산업혁명'이 사회문제 및 노동문제의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발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1920년대 전반부터는 러시아혁명이 프랑스혁명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사회혁명(경제혁명)'과 '정치혁명'을 구분하고 두 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산업혁명'을 인식하는 구도가 정착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더불어 사회주의적인 '혁명'의 용법도 함께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思想'과 '文壇'·'문학'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사상·문화적 논의 맥락은 '보호국'과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실천적 고민을 반영하고 있었다. 1900년대 후반에는 사상계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혁명' 개념에 반영되어 '혁명'이 사상·문화적 용례로도 발화되기 시작했다면, 1910년대~1920년대 전반에는 이러한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논의 맥락이 문학과 사상 방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914~1918년에는 문단과 문학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하는 논의가 '혁명' 개념의 사용에도 반영되어 '문단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1920년대 전반에는 중국 문학혁명론의 본격적인 수용과 소개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에도 '사상계혁명'과 '사상혁명'이라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문단의 혁명'이나 '문학혁명', '사상계혁명'과 '사상혁명'은 정치적 저항

이나 폭력과 같은 전형적인 ‘혁명’의 의미에서는 거리가 멀다. 또한, ‘산업혁명’, ‘사회혁명’, ‘정치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사회주의적 용법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상과 문학 방면에서 발화된 ‘혁명’들은 20세기 초반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에서 계속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해왔다. 또한, 이러한 ‘혁명’의 용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혁명’ 개념이 수용되고 정착해가는 과정에 ‘보호국’ 및 식민지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혁명’의 비폭력적·비정치적 용례와 의미들을 언어적 수사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반)식민지라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혁명’ 개념이 수용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공기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비폭력적·비정치적인 ‘혁명’ 용례가 한국 사회의 ‘혁명’ 개념에서 계속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해왔음을 밝히고, 이를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코퍼스 구축 상황의 문제로 인해 1910년대에 ≪학지광≫ 이외의 사료들에서 사용된 ‘혁명’ 개념을 폭넓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1910년대 사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근대 ‘혁명’ 개념이 수용되었던 19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혁명’ 개념 연구는 이 시기에 자리 잡은 ‘혁명’의 의미들이 이후의 시기까지도 계속 규정력 있게 작용했는지를 고찰하는 방향으로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근현대에 걸쳐 ‘혁명’ 개념의 의미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자, 1900년대 후반~1920년대 전반에 사용되었던 ‘혁명’ 개념의 성격을 더 분명히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동아일보≫에서는 ‘혁명’이 중국 국민혁명과 관련된 맥락에서 많이 발화되기 시작하고, ≪개벽≫에서는 ‘동학혁명’이 자주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00년대 후반~1920년대 전반의 ‘혁명’들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Ⅰ. 자료

1. 참고 사이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2. 신문자료

≪大韓每日申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新韓民報≫
≪漢城旬報≫
≪漢城週報≫
≪皇城新聞≫

3. 잡지자료

≪開闢≫
≪大韓學會月報≫
≪大韓興學報≫
≪太極學報≫
≪學之光≫

4. 전집류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2007-2008 ≪단재신채호전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 ≪백암박은식전집≫, 동방미디어.

5. 사전류

한림과학원 편, 2010 ≪한국 근대 신어 사전 - 現代新語釋義 · 新語事典≫, 선인.

Ⅱ. 연구성과

1. 단행본

권태억, 2014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1904~191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영민, 2019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잡지 연구≫, 소명출판.
김일환 외, 2017 ≪키워드, 공기어, 그리고 네트워크 - 신문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소명출판.
노관범, 2016 ≪기억의 역전 - 전환기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 소명출판.
_____, 2021 ≪백암 박은식 평전≫, 이조.
라인하르트 코젤렉 저(한철 역), 1998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음(한운석 역), 2019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2 - 혁명≫, 푸른역사.

박명규, 2014 ≪국민 · 인민 ·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아이케 볼가스트 지음,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음 (백승종 역), 2014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8 - 개혁과 (종교)개혁≫, 푸른역사.
이경구 외, 2012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이현주, 2003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1919~1923≫, 일조각.
이혜경 외, 2016 ≪1905년 러시아혁명과 동아시아 3국의 반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호룡, 2001 ≪한국의 아나키즘 - 사상편≫, 지식산업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편, 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임경석·차혜영 외, 2007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 사람들.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 - 서울파 사회주의그룹의 노선과 활동≫, 선인.
진관타오·류칭펑 저(양일모 외 역), 2010 ≪중국 근현대사를 새로 쓰는 관념사란 무엇인가 -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최수진, 2016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원식, 2012 ≪문학≫, 소화.
하영선 외,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하영선·손열 외, 2012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창비.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편, 2013 ≪두 시점의 개념사 - 현지성과 동시성으로 보는 동아시아 근대≫, 푸른역사.

2. 논문

권보드래, 2015 <1910년대의 ‘혁명’ -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5, 47-82.

길윤미·문경자, 2014 <‘혁명’의 개념 변화에 관한 고찰 -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2, 1-38.

김수자, 2014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 번역 목적과 ‘영웅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45-78.

김인덕, 1995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國史館論叢≫ 66, 113-147.

김종준, 2012 <한말 ‘민권’ 용례와 분기 양상> ≪歷史敎育≫ 121, 131-164.

김주현, 2009 <<월남망국사>와 <의대리건국3걸전>의 첫 번역자> ≪한국현대문학연구≫ 29, 9-41.

김현주, 2017 <1907년 이후, ≪제국신문≫ 외보란의 담론 구성 방식> ≪현대문학의 연구≫ 63, 297-334.

나인호, 2014 <‘한국개념사총서’의 이론적 감수성> ≪개념과 소통≫ 13, 87-112.

노관범, 2007 <대한제국기 朴殷植과 張志淵의 自强思想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09 <『韓國痛史』의 時代思想 - 自强, 人道, 革命의 삼중주> ≪韓國思想史學≫ 33, 325-351.

류시현, 2010 <1920년대 전반기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소개 및 수용> ≪역사문제연구≫ 52, 51-79.

박걸순, 2008 <『단재 신채호 전집』 편찬의 의의와 과제 - 「역사편」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1-44.

박양신, 2012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 - 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127-157.

박찬정, 2020 <공영방송 내부 의사결정조직의 사회연결망 분석 - 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학위논문.
박종린, 2007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硏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배경한, 1999 <上海·南京지역의 初期(1911-1913) 韓人亡命者들과 辛亥革命 - 武昌起義·討袁運動에의 參與와 孫文·革命派人士들과의 交流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67, 37-69.
_____, 2003 <中國亡命시기(1910-1925) 朴殷植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香江雜誌』,『國是報』,『四民報』의 분석> ≪東方學志≫ 121, 227-270.
_____, 2015 <한국독립운동과 辛亥革命> ≪한국근현대사연구≫ 75, 76-107.
송인재, 2015 <1920, 30년대 한국 지식인의 중국 신문화운동 수용 - 양건식, 정래동, 김태준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 63, 71-97.
_____, 2019 <한국 개념사의 이론적 탐색에 대한 고찰과 전망> ≪한국학연구≫ 70, 77-103.
양일모, 2010 <번역과 개념으로 본 중국의 근대성 - '유신'과 '혁명'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3, 173-198.
_____, 2011 <한국 개념사 연구의 모색과 논점> ≪개념과 소통≫ 8, 5-38.
양진오, 2013 <신채호 문학에서의 혁명 개념 연구> ≪국어교육연구≫ 52, 413-442.
윤덕영, 2010 <일제하 해방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18 <1920년대 초반 협동조합운동론의 형성과 특징 - 동아일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9, 361-404.
_____, 2019 <1920년대 전반 조선물산장려운동 주도세력의 사회운동론과 서구 사회주의 사상과의 비교 - '국내상해파'와 조선청년회연합회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87, 1-41.
윤해동, 2010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 박명규 · 박찬승의 개

넘사연구> ≪개념과 소통≫ 6, 81-101.
이경훈, 2004 <『學之光』의 매체적 특성과 日本의 영향 1 - 『學之光』의 주변> ≪大東文化硏究≫ 48, 99-143.
이기훈, 2017 <1920년대 ≪동아일보≫의 중국 인식 - 계몽과 혁명,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시각의 부침과 교차> ≪東方學志≫ 178, 59-106.
이만영, 2018 <한국 초기 근대소설과 진화론 - 1910~1920년대 초 '진화' 개념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20 <1920년대 초 사회주의 비평 담론과 진화론 인식> ≪현대소설연구≫ 78, 221-254.
이태훈, 2012 <한말 일본 유학 지식인의 '근대 사회과학' 수용과정과 특징 - '정치'에 대한 인식과 '입헌정치론'을 중심으로> ≪梨花史學硏究≫ 44, 63-93.
이헌미, 2012 <반역의 정치학 -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혜경, 2015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청의보』·『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 ≪人文論叢≫ 72(2), 123-160.
정근식, 2003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 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5-46.
조규태, 2010 <1920년대 재북경 한인 革命社의 『革命』 발간과 혁명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49-285.
차태근, 2019 <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1920년대 전반 이동곡(李東谷)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4, 215-254.
최선웅, 2014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은혜, 2021 <민족과 혁명 :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77, 323-368.
최형욱, 2002 <梁啓超의 小說界革命이 舊韓末 小說界에 미친 影響> ≪

중국어문학논집≫ 20, 631-650.
_____, 2009 <梁啓超의 詩界革命論이 개화기 한국 시론에 미친 영향 - ≪飮氷室詩話≫와 ≪天喜堂詩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8, 413-453.
허 수, 2008 <『개벽』의 '표상공간'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62, 353-390.
_____, 2012 <한국 개념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와 현실≫ 86, 361-380.
_____, 2016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 -『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8, 53-95.
_____, 2021 <『개벽』 논조의 사회주의화에 관한 새로운 접근 - 토픽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人文論叢≫ 78(1), 221-262.
_____, 2022 <192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와 민중> ≪역사비평≫ 140, 282-306.

부 록

[부록 1]. 분석 대상 매체의 발간 정보 및 기사 원문 텍스트화 상황

연번	매체명	구분	발간 정보 (해방 이전까지)	기사 원문 텍스트화 상황
1	≪황성신문≫	신문	황성신문사 발행 1898.09.05.~1910.09.14.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1898.09.05.~1910.09.14.
2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신문	대한매일신보사 발행 1905.08.11.~1910.08.28.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1905.08.11.~1910.08.28.
3	≪태극학보≫	잡지	태극학회 발행 제1호(1906.08.24.)~제26호(1908.11.2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1호~제26호
4	≪대한학회월보≫	잡지	대한학회 발행 제1호(1908.02.25.)~제9호(1908.11.2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1호~제9호
5	≪대한흥학보≫	잡지	대한흥학회 발행 제1호(1909.03.20.)~제13호(1910.05.2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1호~제13호
6	≪학지광≫	잡지	조선유학생학우회 발행 제1호(1914.04.02.)~제30호(1930.12.27.)[153]	제2호(1914.04.20.)~제6호(1915.07.23.), 제10호(1916.09.04.)~제15호(1918.03.25.), 제17호(1919.01.03.)
7	≪동아일보≫	신문	동아일보사 발행 1920.04.01.~1940.08.11.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20.04.01.~1940.08.11.

8	≪개벽≫	잡지	개벽사 발행 제1호(1920.06.25.)～제72호(1926.08.01.), 신간 제1호(1934.11.01.)～신간 제4호(1935.03.0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1호～제72호, 신간 제1호～신간 제4호

153) 이 중에서 제7호～제9호, 제16호, 제18호, 제20호～제21호, 제25호～제26호는 검열로 인해 발매 금지 처분을 받은 권호이다. 현재 실물 확인이 가능한 것은 제2호～제6호, 제8호, 제10호～제15호, 제17호～제22호, 제26호～제30호까지 총 23호이다(김영민, 2019 앞 책, 80쪽).

[부록 2]. 형태소분석 기준

1. 대원칙

1) '혁명', '革命', '러볼류슌'은 모두 '혁명'으로 표기 통일

2) '혁명'이 들어간 복합어는 보통명사, 고유명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분리
예) 고려혁명당 → 형태소분석 : '고려', '혁명', '당'

3) 형태소분석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진행
예) 표준국어대사전) 혁명당 : 혁명-당 → 형태소분석 : '혁명', '당'
표준국어대사전) 당원 : 당원 → 형태소분석 : '당원'
표준국어대사전) 무정부 : 무-정부 → 형태소분석 : '無', '정부'
표준국어대사전) 불평등 : 불-평등 → 형태소분석 : '不', '평등'

4) 형태소분석 과정에서 공기어는 명사 중심으로 남김
다만, '~하다'에서 앞부분이 한자어이면서 명사면, 공기어에 포함

2. 세부 원칙

1) 형태소분석 과정에서 삭제한 표현들

(1) '~電을 據한'과 같은 기사의 출처 표기는 일괄 삭제
- 이유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혁명'의 의미 분석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예) 중국이나 러시아의 혁명운동 관련 기사 출처 - '런던電을 據한 則'

(2) 수량사는 일괄 삭제
예) '100명', '1시간', '5월 7일', '100대'
다만, '1917년'이나 '10월', '2월' 등 '혁명' 개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 표현은 삭제하지 않음

(3) ‘大’, ‘小’ 등의 표현은 의미상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삭제
예) ‘프랑스대혁명’ → 형태소분석 : ‘프랑스’, ‘혁명’

(4) ‘一帶’, ‘방면’, ‘결국’, ‘今番’, ‘부근’, ‘상호’ 등의 표현은 삭제

2) 고유명사여도 세부 단위로 형태소분석 진행하는 경우
- 설명 : ‘혁명’과의 형평성 맞추기 위해 ‘혁명’이 들어가지 않은 고유명사도 더 세부 단위로 형태소분석 진행

(1) 단체명
예) 고려혁명당 → 형태소분석 : ‘고려’, ‘혁명’, ‘당’
예) 사회민주당 → 형태소분석 : ‘사회’, ‘민주’, ‘당’
다만, ‘山黨’과 같이 두 글자 단체명 중에서 형태소분석을 진행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세부 단위로 분리하지 않음
다만, 잡지·신문명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 데이터 중에 ‘혁명’이 들어간 잡지·신문명이 없으므로, 세부 단위로 형태소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2) 사건명
예) 러일전쟁 → 형태소분석 : ‘러시아’, ‘일본’, ‘전쟁’
예) 남북전쟁 → 형태소분석 : ‘南’, ‘北’, ‘전쟁’

3) 기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단어들은 하나의 표기로 통일

(1) 지명, 국가명, 인명은 하나의 표기로 통일
- 원칙1 : 지명, 국가명, 인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소
예) 연해주 → 형태소분석 : ‘연해’, ‘주’ (X) / ‘연해주’ (O)
- 원칙2 : 최대한 원래의 외국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지만(손문 X, 쑨원 O),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 지명 : ‘歐洲’ → ‘유럽’
‘歐米’ → ‘유럽’, ‘미국’
‘칼캇타’ → ‘캘커타’
중국 지명 중 ‘省’은 생략, ‘縣’은 앞 단어와 붙여서 표기 예) 蒙自縣

- 국가명 : ‘법국’, ‘법란서’, ‘불란서’, ‘불국’ → ‘프랑스’
  보충) ‘淸廷’ → 형태소분석 : ‘중국’, ‘廷’
  ‘淸帝’ → 형태소분석 : ‘중국’, ‘帝’
  ‘俄帝’ → 형태소분석 : ‘러시아’, ‘帝’
- 인명 : ‘손문’, ‘손일선’ → ‘쑨원’

(2) ‘京’, ‘수도’, ‘首府’, ‘都’ → ‘수도’

(3) ‘투쟁’, ‘쟁투’ → ‘투쟁’

(4) ‘領袖’, ‘首領’ → ‘수령’

(5) ‘党’, ‘黨’ → ‘黨’

(6) ‘까닭’, ‘所以’ → ‘까닭’

4)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표기로 구분

(1) ‘東京’ → ‘통킹’, ‘도쿄’

(2) ‘부인’ → ‘婦人’, ‘否認’

(3) ‘사상’ → ‘思想’, ‘死傷’

(4) ‘인도’ → ‘印度’, ‘引導’

Abstract

Acceptance of the Concept of 'Revolution' in Early 20th-century Korean Society

- Based on Network Analysis of Co-occurring Words of 'Revolution' in Media Articles -

Lee, Yoonw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network analysis of co-occurring words of the concept 'revolution' in media article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modern concept of 'revolution' in early 20th-century Korean society. This paper also attempts to analyze the way (semi-)colonial intellectuals' perception of reality and concerns we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concept of 'revolution'.

Particularly,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non-violent and non-political usage of 'revolution' discussed in ideological and cultural areas. Among the discourses of 'revolution' spoken by Korean

intellectuals in the early 20th century, cases such as 'revolution in the field of ideology(思想界革命)' or 'revolution in the field of literature(文壇의 革命)' wer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meaning or usage of 'revolution' mainly spoken in European societ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Previous studies tended to understand these examples as 'conservative usage' or 'linguistic rhetoric' of the concept of 'revolution'. Instead of understanding these examples as 'conservative usage' or 'linguistic rhetoric' of 'revolution',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non-violent and non-political usage of 'revolution' spoken in Korean society within its historical contexts.

Based on the network maps of co-occurring words of 'revolution' which appeared in media articles from the late 1900s to the early 1920s, the contexts of 'revolution' in this period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France', 'ideology(思想)', 'literature(文壇·文學)', 'industry'. Considering the features of the network maps of co-occurring words and the appearance frequency of 'revolution' per year, it can be said tha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contexts of 'revolution' took place between the period of 1906~1910 and the period of 1914~1918. On the network map of 1914~1918, in addition to the contexts of 'revolution' related to 'France' and 'ideology' that already existed in 1906~1910, contexts related to 'literature' and 'industry' newly appeared. A similar pattern is also observed in the network maps of 1920~1924.

The changes in the contexts of political and social discourses of 'revolution' related to 'France' and 'industry' clearly show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concept of 'revolution' and adopting the usage of socialist 'revolution' in Korea. From 1906 to 1910, the modern concept of 'revolution' was introduced to Korea mainly through the spread of the word 'French Revolution'. The French Revolution was frequently

discussed with words such as ‘constitution’, ‘republicanism’, ‘civil rights’, and ‘freedom’ perceived as what Korea should aim for in order to achieve national prosperity and make Korea a civilized society. Furthermore, from 1914 to 1918, as Korean intellectuals started to learn and understand the ideas of socialism,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begun to be regarded as the background of social and labor problems. In addition, from the first half of the 1920s, as the Russian Revolution began to be discussed often with the French Revolution, the usage of socialist ‘revolution’, generally known as distinguishing ‘social revolution(economic revolution)’ and ‘political revolution’ and regarding ‘industrial revolution’ as a prerequisite for the two revolutions, has been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the contexts of ideological and cultural discourses of ‘revolution’ related to ‘ideology’ and ‘literature’, reflects the practical concerns of (semi-)colonial intellectuals who tried to reform Korean society thoroughly. In the late 1900s, voices demanding thorough reform in the ideological field of Korean society induced the concept of ‘revolution’ to be spoken in ideological and cultural contexts. Moreover, the non-violent and non-political usage of ‘revolution’ continued to exist in the field of literature and ideology during 1910s and the early 1920s. From 1914 to 1918, discussions demand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ield of literature were reflected in the usage of the concept of ‘revolution’ as the expression ‘revolution in the field of literature(文壇의 革命)’. And in the first half of the 1920s, it also led to the acceptance and introduction of Chinese intellectuals’ literary revolution theory. In addition, voices demanding a fundamental change in ideology continued in the 1910s and the early 1920s in the form of ‘revolution in the field of ideology(思想界革命)’ and ‘ideological revolution(思想革命)’.

The expressions ‘revolution in the field of literature(文壇의 革命)’, ‘literary revolution(文學革命)’, ‘revolution in the field of ideology(思想界革命)’ and ‘ideological revolution(思想革命)’ are far from typical meanings of ‘revolution’ such as political resistance or violence. They are also different from the socialistic usage of ‘revolution’ which mainly concerns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revolution’, and ‘political revolution’. Nevertheless, the contexts of ‘revolution’ spoken in ideological and cultural areas still continued to occupy an important part of the concept of ‘revolution’ in early 20th-century Korean society. Moreover, these ideological and cultural expressions of ‘revolution’ clearly show the way (semi-)colonial intellectuals’ perception of reality and concerns we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discussing the concept of ‘revolution’ in Korean society. Herein lies the need to historically examine the non-violent and non-political usage of ‘revolution’ in early 20th-century Korea, rather than understanding it just as ‘linguistic rhetoric’.

keywords : revolution, the concept of revolution, translation, media articles, early 20th century, network map of co-occurring words

Student Number : 2019-28126